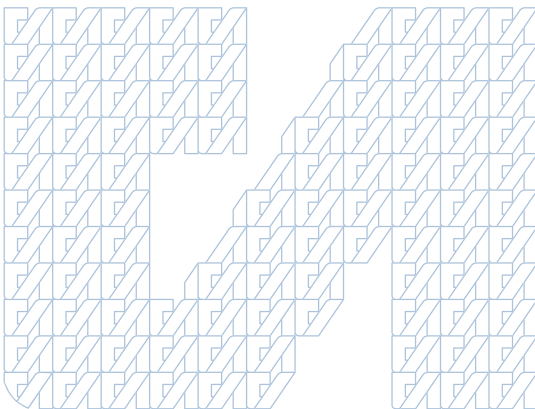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연구

민 경 선



정책연구 2018-24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연구

민 경 선

연구책임

• 민경선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보조

• 손예령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8-24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현대영상미디어 TEL 042-673-7237 FAX 042-673-723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83년에 시작되어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행사임. 그러나 이에 대한 인지도나 행사 콘텐츠에서 발전적 변화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에는 공동주관처인 세종문화원과 비암사 간 운영방식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행사 파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발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 전략 및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언론기사, 기추진된 세종시 백제대제 관련 자료, 국내외 역사문화제 검토
- 현장답사: 2018 세종시 백제대제 및 국내 역사문화제 우수사례 답사
- 심층면담: 세종시 백제대제 관계자 인터뷰
- 자문회의: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모색

■ 연구 결과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60년대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국보 제106호)의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백제 역대 국왕 및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서

유래함

- 1983년 전의고적보존회가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비암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결과로, 같은 해 4월 15일(음력)에 ‘백제충령제’를 올리기 시작하였음
- 행사명은 1986년 ‘백제대제’로 변경되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 백제대제’로 개칭해 진행되었으나 2018년에는 세종문화원이 운주산성 광장에서 ‘제36회 백제대제’를, 비암사는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 영산대제’를 진행하면서 운영의 이원화 문제가 심화됨

세종시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

- 세종시 문화예술 지원 관련 조례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이 조례들에 근거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계승과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역사·문화·예술 관광자원 및 행사

- 세종시 소재 백제문화자산: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 운주산성, 금이성
- 세종시에 등록된 전통사찰: 비암사, 연화사, 관음암(관음사), 청안사, 신평사, 황룡사, 영평사, 학림사
- 세종시 소재 한옥체험업 운영: 학림재, 세종 부강리 고택, 목향재
- 이 외에도 초려역사공원, 김종서장군묘, 어서각역사공원, 독락정, 금강대도, 전의향교, 전의초수, 쌍류리예술촌, 연기향교 등이 있음
- 세종시의 백제문화자산, 문화시설을 연계한 세종시 백제대제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세종시 주요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로 ‘세종축제’, ‘백제대제’, ‘왕의 물 축제’, ‘김종서장군 문화제’ 등이 있음

시민문화수요

-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는 세종 시민의 비율과 향후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의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상당히 높음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세종시 응답자의 68.0%가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방문한 역사 문화유적지 형태 중 종교 유적지가 50.7%로 가장 많았음
- 향후 역사문화유적지에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지역별 조사에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세종 시민의 비율은 96.1%로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임
- 세종 시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나, 축제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음
- 축제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세종 시민의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이는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낮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지만, 세종 시민의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축제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최근 연도별 백제대제 개요(2014~2018)**

- 2014년과 2015년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 세종향토사연구소 주관 하에 4월 15일 비암사에서 진행됨
- 2016년부터 세종문화원, 비암사가 공동으로 세종시 백제대제를 운영하게 되었고, 2017년 백제대제는 비암사와 세종문화원이 공동 주관하였고,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됨
- 2018년 4월 15일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과 비암사로 주관처가 이원화되어 별도로 운영되었음
- 세종문화원은 2018년 백제대제를 제36회 백제대제로 명기하고, 고산사·운주산성 광장에서 진행
- 비암사는 2018년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를 비암사에서 진행하였고, 이는 크게 제례행사와 문화공연으로 구성되었음

□ **세종시 백제대제 문제점 진단**

- 이원화된 운영으로 행사 파급효과 감소 우려

- 공동주관처인 비암사와 세종문화원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세종시 백제대제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부족한 예산으로 행사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규모 확장에 한계
 - 타 지역의 백제문화제와 구분되는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특성 부각 부족함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는 어떤 대상을 타겟 관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지 않아 행사의 의의, 내용, 일정, 장소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음
 - 세종시 인근에는 백제시대 중요 문화자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고, 대전시에는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세종시 백제대제의 행사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타 지역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함
 -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가 개최된 비암사와 운주산성에의 접근성은 매우 좋지 않음
 -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편의시설, 안내부스, 안전관리부스 등의 설치가 미흡함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의 연차별 결과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아서 환류체계가 부실하다고 판단됨
- 국내외 역사문화행사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세종시 백제대제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내용과 의미를 살려 '백제대제'가 세종시 지역의 특화된 행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백제문화자산을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백제대제는 간헐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회를 행사 개최 시기에 함께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 및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백제문화를 콘텐츠로 한 공연 및 기타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 있음
 - 세종시 백제대제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비암사, 세종문화원, 세종향토사연구소 등이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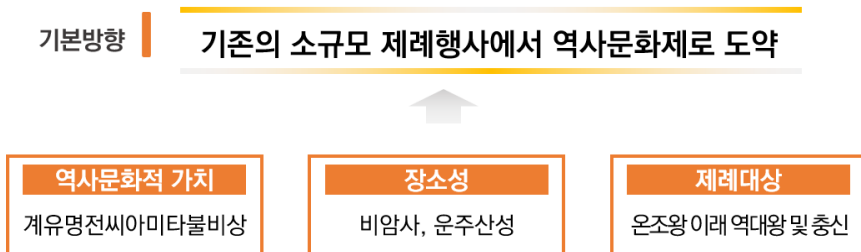
력적으로 참여할 때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임

- 세종시는 백제 문화자산이 풍부한 공주, 익산, 부여와의 교류를 통해 백제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학술회의 등을 기획하여 세종시 백제대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관람객 개발을 위해 타겟 관람객 층 설정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전략 마련 필요
- 홍보 및 행사 자료 축적을 위한 세종시 백제대제 홈페이지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는 백서, 결과보고서 등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음. 향후에는 이를 제작하여 당해 연도의 행사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 행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세종시 백제대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백제대제의 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모색이 필요

■ 정책건의

□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도약”을 발전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기본방향]

- 역사문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목표 - ①세종시 백제대제를 위한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화, ②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강화, ③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 를 수립하였음

- 목표**
- 1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화
 - 2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강화
 - 3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목표]

- 현 세종시 백제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반영해 앞서 제시한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5개 영역(①추진체계·제도, ②정체성, ③사업, ④관람객·홍보, ⑤예산·재원)에서의 추진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안

추진 전략

추진체계·제도	협력적인 백제대제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합리화
정체성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연구 및 강화
사업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관람객·홍보	관람객층 특성 파악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
예산·재원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원 다각화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추진전략]

- 본 연구는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 과제(2019년~2020년)’, ‘중기 과제(2021년~2023년)’, ‘장기 과제(2024년 이후)’로 구분해 제안하였음
- 이는 급속한 변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진전략별로 수행함으로써 백제대제의 의의를 살리며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제언]

구분	중점 추진과제				
단기 과제 (2019~2020년)	지원 제도 체계화	백제대제 발전 TF팀 조직		지역문화 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람객 특성 및 수요조사
	평가·환류 체계 구축				
중기 과제 (2021~2023년)	공정한 예산지원 방안 마련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백제대제/ 백제문화 학술연구	
	↓				
	단계적 예산 증액 방안 마련	추진위원회 조직 계획 수립	백제문화 교류 가능 지역 탐색	백제대제 연계 특화 문화 콘텐츠 발굴·기획	안내 홈페이지 구축
		자체 재원 조성 방안 마련			주요 관객층 맞춤 홍보 전략 마련
↓					
장기과제 (2024년 이후)	일원화된 추진위원회 출범 추진				
	↓				
국비 공모사업 지원 고려	백제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백제대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확대 방안 마련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2장 세종시 백제대제의 개념	7
1.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7
2. 연혁	10
3장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및 현황	15
1. 정책여건	15
1) 문화행정 현황	15
2) 세종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	18
2. 문화시설 현황	22
1) 세종시의 문화시설 현황	22
2) 주요문화시설	24
3. 역사문화 관광자원	26
1) 백제문화자산	26
2) 전통사찰 현황	27
3) 한옥체험업 현황	29
4)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	30

4.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 현황	33
5. 시민 문화수요	34
1) 세종시 인구 특성	34
2) 문화예술 행사 참여	35
3)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36
4) 축제방문	39
6. 소결	42
4장 세종시 백제대제 실태조사	53
1. 최근 연도별 백제대제 개요	53
2. 2018 세종시 백제대제	56
3. 세종시 백제대제 문제점 진단	60
5장 역사문화행사 우수사례 분석	69
1. 사례 분석 개요	69
2. 해외사례	70
1) 독일 옥토버페스트	70
2)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78
3) 메르세 축제	83
3. 국내사례	89
1) 공주 부여 백제문화제	89
2)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96
3) 부안 오복마실축제	100
4) 김해 가야문화축제	107
5) 강릉단오제	112
4. 정책적 시사점	120
1) 시사점	120
2) 국내 유사사례 비교	127

6장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133
1. 발전방향	133
1) 기본방향	133
2) 목표	134
2. 추진전략	135
3. 추진과제	137
1) 단기과제	141
2) 중기과제	152
3) 장기과제	159
7장 결론	167
1. 연구결과 종합	167
1)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167
2)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및 현황 분석	168
3) 세종시 백제대제 실태분석 결과	168
4) 우수 역사문화행사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68
5)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제시	169
2. 정책 제언	169
1)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 점검 제언	169
2) 제안과제의 단계별 추진	171
3) 세종시 백제대제 지원을 위한 기존 조례 보완·조례 제정 제언	172
참고문헌	179

표 차례

[표 2-1]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개요	7
[표 2-2]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9
[표 2-3] 세종시 백제대제 연혁	11
[표 3-1] 세종시 세출 분야별 예산: 일반회계(2016~2018)	16
[표 3-2]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사업별 예산(2016~2018)	17
[표 3-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주요내용	18
[표 3-4]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주요내용	20
[표 3-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21
[표 3-6] 세종시 연도별 문화시설 현황: 2016년 기준	22
[표 3-7] 세종시 읍면동별 문화시설 현황 : 2016년 기준	23
[표 3-8] 세종문화예술회관 주요시설	24
[표 3-9] 세종시 박물관 현황	25
[표 3-10] 세종시 백제문화자산 현황	27
[표 3-11] 세종시 전통사찰 현황(2018.4월 기준)	28
[표 3-12] 세종시 한옥체험업 현황(2018.4월 기준)	30
[표 3-13] 세종시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	31
[표 3-14] 2018년 세종시 주요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 현황	33
[표 3-15] 17개 광역 시도 문화예술축제·행사 담당 부서 현황	43
[표 4-1] 2014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53
[표 4-2] 2015 세종시 백제대제 구성	54
[표 4-3] 2016 세종시 백제대제 구성	55
[표 4-4] 2017 세종시 백제대제 구성	56
[표 4-5] 2018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58
[표 4-6] 비암사 위치정보	64

[표 4-7] 운주산성 위치정보	65
[표 5-1] 우수사례 분석대상	70
[표 5-2] 옥토버페스트를 후원하는 뮌헨의 6대 맥주 회사	72
[표 5-3]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주요 규제사항	74
[표 5-4] 2018 옥토버페스트 개요	74
[표 5-5] 2018 옥토버페스트 주요 프로그램	77
[표 5-6] 2018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종류와 특징	79
[표 5-7] 2018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일정	80
[표 5-8] 2018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개요	81
[표 5-9] 2018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81
[표 5-10] 메르세 축제 특징	84
[표 5-11] 2017 메르세 축제 개요	85
[표 5-12] 2017 메르세 축제 주요 프로그램	86
[표 5-13] 2017~2018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90
[표 5-14] 2017~2018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91
[표 5-15]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공주시·부여군의 역할	92
[표 5-16] 2017 백제문화제 개요	93
[표 5-17] 2017 백제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94
[표 5-18] 2017~2018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예산	97
[표 5-19] 2017 한성백제문화제 개요	98
[표 5-20] 2017 한성백제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99
[표 5-21] 부안 오복마실축제의 역사적 의미	101
[표 5-22] 2017~2018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 예산	102
[표 5-23]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개요	103
[표 5-24]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주요 프로그램	104
[표 5-25] 2017~2018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예산	108
[표 5-26] 2018 가야문화축제 개요	108
[표 5-27] 2018 가야문화축제 주요 프로그램	110

[표 5-28] 2017~2018 강릉단오제위원회 예산액	114
[표 5-29] 강릉단오제 운영에 사용된 2017년 결산액과 2018년 예산액 비교	115
[표 5-30] 강릉단오제 개요	115
[표 5-31]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16
[표 5-32] 국내 유사사례 비교	128
[표 6-1] 세종시 백제대제 추진과제 제안	138
[표 6-2] 가야문화축제 평가 및 환류 방식	142
[표 6-3] 부안오복마실축제 평가 및 환류 방식	144
[표 6-4] 백제문화제 평가 및 환류 방식	145
[표 6-5] 강릉단오제 평가 및 환류 방식	147
[표 6-6] 예산지원을 위한 사전실행계획서 평가 내용 제안	152
[표 6-7] 공주시·부여군·익산시의 백제문화유산 탐방 코스	154
[표 6-8] 세종-공주 시티투어 코스	155
[표 6-9]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사이트맵	157
[표 6-10]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통분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지원결정 내역	162
[표 7-1] 세종시 백제대제의 문제점	170
[표 7-2]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제안	172
[표 7-3]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제 지원 및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조례	174

그림 차례

[그림 2-1]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	8
[그림 2-2] 비암사 전경	9
[그림 3-1]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내 문화예술 담당 행정조직	15
[그림 3-2] 세종문화예술회관	25
[그림 3-3] 세종시 박물관	26
[그림 3-4] 백제문화유산	27
[그림 3-5] 세종시 전통사찰	29
[그림 3-6] 세종시 한옥체험업	30
[그림 3-7] 세종시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	32
[그림 3-8] 세종시 연령대별 인구 비율	34
[그림 3-9]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35
[그림 3-10]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36
[그림 3-11] 지역별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	37
[그림 3-12] 세종 시민이 방문한 역사문화유적지 형태(복수 선택)	38
[그림 3-13]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의향	38
[그림 3-14] 지역별 축제 방문경험	39
[그림 3-15] 세종 시민이 방문했던 축제의 주제(복수 선택)	40
[그림 3-16]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	41
[그림 3-17] 축제 방문 의향	42
[그림 4-1] 제36회 세종시 백제대제 전경(세종문화원 주관)	59
[그림 4-2]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 영산대제 전경(비암사 주관)	59
[그림 4-3] 2018 세종시 백제대제가 운영된 비암사와 운주산성 주차 상황	66
[그림 5-1] 옥tober페스트 대형 텐트 배치도	71

[그림 5-2] 옥tober페스트 전경	76
[그림 5-3]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전경	82
[그림 5-4] 2017 메르세 축제	88
[그림 5-5]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도	90
[그림 5-6] 2017 백제문화제	96
[그림 5-7] 2016 한성백제문화제	100
[그림 5-8]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 조직도	102
[그림 5-9]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106
[그림 5-10]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조직도	107
[그림 5-11] 2018 가야문화축제	111
[그림 5-12] 강릉단오제위원회 조직도	113
[그림 5-13] 강릉단오제위원회의 기능	113
[그림 5-14] 강릉단오제 행사장 안내도	116
[그림 5-15] 2018 강릉단오제	118
[그림 5-16] 2018 강릉단오제 안내·편의시설 및 안전·환경 관리 부스	120
[그림 6-1]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기본방향	133
[그림 6-2]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목표	134
[그림 6-3]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추진전략	136
[그림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추진 절차	142
[그림 6-5] 전북 부안의 ‘용왕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사례	150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장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83년에 시작되어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행사임. 그러나 이에 대한 인지도나 행사 콘텐츠에서 발전적 변화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에는 공동주관처인 세종문화원과 비암사 간 운영방식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행사 파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17년 세종시 백제대제는 비암사가 불교행사로 1부를 주관하고, 세종문화원이 문화행사로 2부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2018년에는 비암사와 문화원이 겹치는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운영의 이원화가 심화되었음
- 이에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발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2) 연구 목적

-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 전략과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안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자료 활용 기준년도로 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

(2)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

(3) 내용적 범위

- 세종시 백제대제의 개념과 연혁 검토
-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책 여건 검토
- 세종시 문화예술 현황 파악
- 세종시 백제대제 실태조사
- 국내외 역사문화제 우수사례 분석
-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전략 도출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언론기사, 기추진된 세종시 백제대제 관련 자료 검토
- 현장답사 : 2018 세종시 백제대제 및 국내 역사문화제 우수사례 답사
- 심층면담 : 세종시 백제대제 관계자 인터뷰
- 자문회의 :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모색

세종시 백제대제의 개념

1.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2. 연혁

2장

2장 세종시 백제대제의 개념

1.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60년대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국보 제106호)의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백제 역대 국왕 및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서 유래함(노왕섭, 2017; 2018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재 리플렛; 2018 세종문화원 백제대제 리플렛)
-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신라 28만, 당나라 40만)에 의해 멸망하고, 백제의 유민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왕자 풍(豊)을 왕으로 맞이하여 원로 왕족인 복신, 승려 도침을 중심으로 연기군 일대 산성에서 구국항전을 했지만 3년 만에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감(2018 세종문화원 백제대제 리플렛)

[표 2-1]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개요

구분	내용
지정번호	• 국보 제106호
지정일	• 1962.12.20.
분류	• 유물/불교조각/석조/불상
수량	• 1기(基)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시대	• 통일신라
소유단체	• 국유
관리단체	• 국립청주박물관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석불비상은 1960년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재학 중이던 이재옥(李在玉)이 학교 과제물로 비암사 삼층석탑 위에 놓인 검은 물체를 탁본해

황수영(黃壽永) 교수에게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착수되면서 알려지게 됨(2018 세종문화원 백제대제 리플렛)

- 당시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3점 중 하나가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이며, 다른 2점은 기축명아미타불비상(己丑醜阿彌陀佛碑像)(보물 제367호)과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보물 제368호)으로 3점 모두 국립청주박물관이 관리하고 있음



정면 및 측면



측면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그림 2-1]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

- 세종시 백제대제가 타 지역의 백제대(왕)제와 구분되는 점은 온조왕 이래 백제의 역대 국왕 모두를 추모하기 위한 제례를 지낸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서울의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시대 왕(온조왕~개로왕), ‘백제문화제(공주·부여)’의 경우 공주시에서 웅진백제 4대왕(문주왕~무령왕), 부여군에서는 사비로 도읍을 옮긴 후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국가로 발전시켜 신라와 일본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6대왕(성왕~의자왕)의 성덕을 추모하는 제(祭)의식을 지냄
- 석불비상이 발견된 비암사는 현재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全義 碑岩寺 極樂寶殿), 제3호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全義 碑岩寺 三層石塔), 제12호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全義 碑岩寺 靈山會 掛佛幀畫), 제13호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全義 碑岩寺

塑造阿彌陀如來坐像)을 보유하고 있음

- 비암사에는 명부전, 요사채, 산신각, 대웅전, 극락보전, 범종각, 설선당 등이 위치해 있고,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 편의를 돕고 있으며 비암사 진입구에 위치한 앞뜰의 공간에서는 문화행사 등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2-2]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구분	내용
유래	◦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비암사를 짓고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시납한 후, 매년 4월 15일에 백제의 국왕과 대신 및 유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를 올렸다는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기록에 근거함
장소	◦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 및 운주산성
목적	◦ 백제의 역대 왕과 신하, 칠세부모, 백제 부흥운동군의 혼령을 기림
주요행사	◦ 백제대제, 범종 타종, 헌다, 추도사, 산사음식 체험 등



대웅전(좌) 및 극락보전(우)



범종각



비암사 주차장



비암사 진입구에 위치한 앞뜰

자료 :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2-2] 비암사 전경

2. 연혁

- 나라는 빼앗겼지만 백제의 역대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위하여 673년 전씨가 중심이 되어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지어 이곳에서 매년 4월 15일에 제를 지냈다는 기록과, 1999년 9월 비암사에서 발견된 조선 초기 제작된 기와에 적힌 “대백제국왕대신”이란 명문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 제를 지내온 것으로 추정(2018 세종문화원 백제대제 리플렛)
- 그러나 백제대제가 이어져 온 역사에 대해 공동주관처인 ‘비암사’와 ‘세종문화원’은 다른 입장을 견지
 - 비암사는 673년 이후 백제 국왕, 대신, 유민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추모제가 지속됐으며, 때문에 2018년 백제대제는 1345년차를 맞이했다는 입장임
 - 반면 세종문화원은 조선시대까지는 백제대제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이후에는 제를 지내오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다가 1983년 전 의고적보존회가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류성과 비암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결과 백제 부흥을 위한 주류성의 향전이 있는 지 1310년 후인 1983년 4월 15일(음력)에 ‘백제충령제’를 올리기 시작하였음(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백제대제 역사”). 때문에 세종문화원에서는 세종시 백제대제가 2018년 36회차를 맞이했다고 봄
- 1985년 제1회 도화문화제(現 도원문화제)에서 ‘백제충령제’가 첫 번째 행사로 진행되면서 개최 일자는 양력 4월 15일로 일자가 변경됨
- 1986년 역사학자 황수영 박사가 부여에서 지내는 ‘백제대왕제’는 성왕에서 의자왕까지 6대왕의 제를 올리지만, 세종에서는 온조왕 이래 역대왕 및 충신에 대한 제를 올리기 때문에 백제대제를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행사명을 ‘백제대제’로 변경함(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백제대제 역사”)

[표 2-3] 세종시 백제대제 연혁

구분	내용
673년	◦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역대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위하여 673년 전씨를 중심으로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지어 매년 4월 15일에 제를 지내게 됨
비암사	세종문화원
◦ 673년 이후 백제 국왕, 대신, 유민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추모제가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봄	◦ 조선시대까지는 백제대제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그 후에는 제를 지내지 않다가 1983년에 재개되었다고 봄
1983년	◦ 1983년 4월 15일(음력)에 ‘백제충령제’로 제를 올리기 시작
1985년	◦ ‘백제충령제’ 개최일자를 양력 4월 15일로 변경
1986년	◦ 행사명을 ‘백제충령제’에서 ‘백제대제’로 변경
1990년	◦ 금이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를 지냄
1992년	◦ 제를 지내는 장소를 비암사로 변경
1999년	◦ 비암사에서 “대백제국왕대신”이라고 적힌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기와가 발견되면서, 조선시대까지 제를 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
2002년	◦ 4월 14일에는 “백제대제와 비암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전야 행사로 탐돌이가 진행되었고, 4월 15일에 개최된 백제대제에서는 제작한 모형석불비상을 시납하는 군사행렬이 재현됨
2014년	◦ ‘세종시 백제대제’로 행사명을 변경
2018년	◦ 세종문화원은 ‘백제대제’로, 비암사는 ‘세종시 비암사 백제 영산대제’로 행사명을 다시 변경하여 진행

자료 :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백제대제 역사”를 참고해 연구자가 작성.

- 2000년부터는 백제 말기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백제권에서는 유일한 ‘백제대제’임을 알리는 행사도 병행. 2002년 4월 14일에는 “백제대제와 비암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전야 행사로 탐돌이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5일에 개최된 백제대제에서는 제작한 모형석불비상을 시납하는 군사행렬을 재현(2018 세종문화원 백제대제 리플렛)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 백제대제’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백제대제 역사”), 2018년부터는 세종문화원이 운주산성 광장에서 ‘제36회 백제대제’를, 비암사는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 영산대제’를 진행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및 현황

1. 정책여건
2. 문화시설 현황
3. 역사문화 관광자원
4.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 현황
5. 시민 문화수요
6.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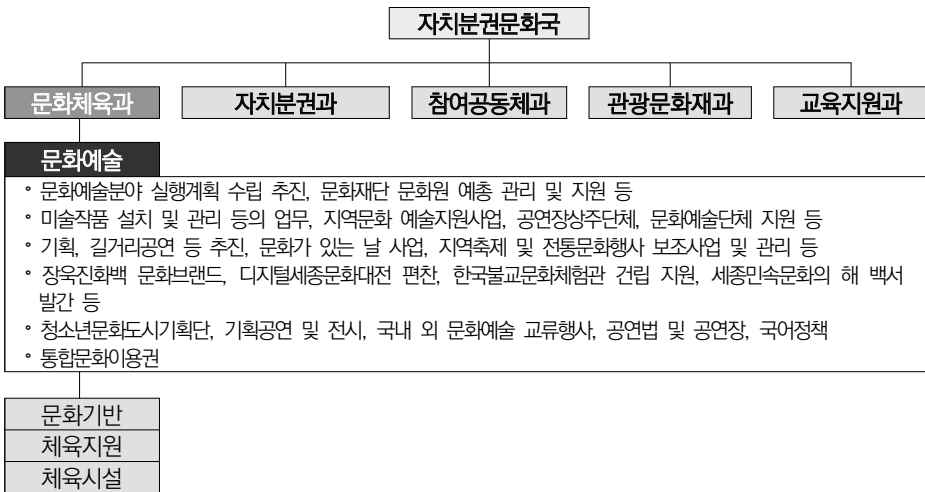
3장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및 현황

1. 정책여건

1) 문화행정 현황

(1) 문화예술 행정조직

-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은 문화체육과,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로 조직되었고, 문화예술 행정조직인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기반, 체육지원, 체육시설 담당으로 업무가 구분됨
- 문화예술 관련 행사지원 및 세종시의 문화예술 진흥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문화예술계이며, 백제대제 행사 진행에 대한 지원 업무도 문화예술계에서 담당함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1]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내 문화예술 담당 행정조직

(2) 예산 현황

- 문화분야에 대한 세종시의 지원 정도를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2018년도에 해당하는 세종시 세출 분야별 예산액을 검토함
-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세종시의 2018년 예산액은 약 646억 원으로 2016년 약 265억 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2017년 예산액 대비 약 63%의 증가율을 나타냄
 - 해당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에는 세종시립도서관 건립비(143억 원) 및 김중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비(100억 원)가 책정된 데 있음

[표 3-1] 세종시 세출 분야별 예산: 일반회계(2016~2018)

(단위: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800,002	100.00	983,999	100.00	1,132,001	100.00
일반공공행정	38,057	4.76	50,395	5.12	60,691	5.36
공공질서 및 안전	26,906	3.36	34,759	3.53	54,554	4.82
교육	47,770	5.97	68,084	6.92	76,302	6.74
문화 및 관광	26,560	3.32	39,779	4.04	64,662	5.71
환경보호	48,633	6.08	70,373	7.15	77,272	6.83
사회복지	178,792	22.35	210,321	21.37	266,651	23.56
보건	16,560	2.07	30,469	3.10	31,507	2.78
농림해양수산	72,245	9.03	65,618	6.67	77,793	6.87
산업·중소기업	40,511	5.06	40,474	4.11	33,279	2.94
수송 및 교통	44,926	5.62	62,261	6.33	71,722	6.34
국토 및 지역개발	125,520	15.69	173,494	17.63	180,439	15.94
과학기술	9,059	1.13	1,291	0.13	10,581	0.93
예비비	14,854	1.86	12,377	1.26	11,951	1.06
기타	109,609	13.70	124,304	12.63	114,597	10.12

주 :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 세종특별자치 홈페이지(재정공시 예산규모 중 세출예산).

- 세종시 전체 세출 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32%, 2017년 4.04%, 2018년 5.71%로 점차 증가함. 이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세종시 차원의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3-2]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사업별 예산(2016~2018)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2016 결산	2017 예산	2018 예산
지역문화예술활성화 합계		1,904	1,828	2,057
문화예술공연지원	일반회계	271	180	40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30	29	29
지역축제 지원		30	50	50
종교 및 제향 행사지원		138	119	125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204	871	871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0	286	40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31	294	368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국가직접지원)		0	0	5
충청유교문화권		0	0	100
광연관광개발 사업		0	0	70
면지 편찬		0	0	70

자료 : 세종특별자치 홈페이지(재정공시 2018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의 문화예술 담당은 백제대제와 같은 종교 및 제향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종교 및 제향 행사 지원’에는 백제대제 외에도 연기대첩제 지원, 연기향교·전의향교·합호서원·덕성서원·김중서장군묘제, 충렬사 제향 등 지원, 성삼문선생 탄생 600주년 제향 및 기념사원 지원, 석가탄신일 봉축대법회, 성탄트리점등식, 향교서원 전통보존사업 등이 해당됨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종교 및 제향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6년 결산액 약 1억4천만 원에서 예산액 기준 2017년 약 1억2천만 원, 2018년 약 1억3천

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 그러나 본 예산 목이 포함하는 사업의 수 대비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지역축제 지원’ 예산은 2016년 결산액 기준으로 3천만 원이었으나 2017년, 2018년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증액됨. 이 예산의 규모는 단일 축제에 대한 지원금이 아닌 만큼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문화예술공연지원’ 예산은 2016년 결산액 기준 2억7천만 원에서 2018년 4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크게 증가. 이는 세종시가 예술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세종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12호, 2016.8.10., 일부개정)는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5638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됨

[표 3-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특별자치시장(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음 •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회)를 둔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72호).

- 1983년에 시작되어 올해 36회를 맞는 세종시 백제대제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또 세종시 문화자산의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내용을 검토
- 조례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육성, 세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26호, 2017.7.20., 일부개정)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세종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에 제정됨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는 국가 및 세종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사회적 의식’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호 및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해당 조례를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73호)은 무형문화재의 유형을 ①전통적 공연·예술, ②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구전 전통 및 표현, ⑤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⑦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구분함
- 조례에 의하면, 세종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790호)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을 의미함
 - 때문에 국가 혹은 세종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도 해당 조례에 따라 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향토문화유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4]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향토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공예품,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향토무형문화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장(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게 보존·관리해야 함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한 때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해야 함 등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26호).

- 동 조례에 따라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①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②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③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이 외에 조례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절차,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절차, 보존 및 관리의 원칙 등을 규정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717호, 2015.9.30., 일부개정)는 세종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음
- 세종시 백제대제는 문화원이 비암사와 함께 공동주관하여 개최되는 행사임. 때문에 문화원이 운영해 온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여건을 살펴보고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봄

[표 3-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세종시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시장)이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문화원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법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짐
보조금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그 시설물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보조금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 1.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 등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717호).

- 해당 조례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됨
- 이 외에 조례는 사무의 검사·감독,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
 - 문화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문화시설 현황

1) 세종시의 문화시설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세종시에는 공공 공연장 1곳, 영화상영관 3곳, 문화예술회관 1곳, 문화원 1곳, 문화재단 1곳이 설립되어 있음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의 문화시설 총 수는 4개소에서 7개소로의 증가에 머물러,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증가 대비 문화시설의 건립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 3-6] 세종시 연도별 문화시설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개소)

연도	총계	공연시설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공공 공연장	영화상영관				
			스크린				
2012	4	1	1	5	1	1	-
2013	5	1	2	7	1	1	-
2014	5	1	2	7	1	1	-
2015	5	1	2	12	1	1	-
2016	7	1	3	14	1	1	1

자료 : 세종통계연보 각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그러나 2016년 세종시 문화재단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 번째로 건립된 만큼, 향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됨
- 세종시의 읍면동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공연장, 영화 상영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이 각 1개소씩 위치한 조치원읍에 가장 많은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표 3-기] 세종시 읍면동별 문화시설 현황 : 2016년 기준

(단위 : 개소)

읍면동 (행정동)	총계	공연시설			문예 회관	문화원	문화 재단
		공공 공연장	영화상영관	스크린			
조치원읍	4	1	1	5	1	1	-
연기면	0	-	-	-	-	-	-
연동면	0	-	-	-	-	-	-
부강면	0	-	-	-	-	-	-
금남면	1	-	1	2	-	-	-
장군면	0	-	-	-	-	-	-
연서면	0	-	-	-	-	-	-
전의면	0	-	-	-	-	-	-
전동면	0	-	-	-	-	-	-
소정면	0	-	-	-	-	-	-
한솔동	0	-	-	-	-	-	-
도담동	1	-	-	-	-	-	1
아름동	0	-	-	-	-	-	-
종촌동	1	-	1	7	-	-	-
고운동	0	-	-	-	-	-	-
보람동	0	-	-	-	-	-	-
새롬동	0	-	-	-	-	-	-

자료 : 세종통계연보.

-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가 진행된 비암사와 운주산성은 각각 전의면과 전동면에 위치해 있으나 해당 지역에 다른 문화시설이 충분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문화시설 간 연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이 외에 도담동에 문화재단이, 금남면과 종촌동에 영화상영관이 각 1개소씩 위치함
- 세종시에는 문화시설의 절대적 수도 매우 적지만 총 7곳의 문화시설 중 4곳이 조치원읍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에는 읍면동별 인구특성과 문화수요를 반영해 균형적·단계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해 나가야 할 것임

2) 주요문화시설

(1)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문화예술회관은 2000년 조치원읍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및 옥탑층의 규모로 개관함
-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 무대연습실, 청소년문화의집(노래방, 댄스연습실, 동아리방, 인터넷방), 문예단체사무실(4개), 회의실(20석) 등이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표 3-8] 세종문화예술회관 주요시설

층별	주요시설
지하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실(전시공간)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지상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객석(621석, 장애인12석 별도) ◦ 공연장관계시설(연습실, 분장실, 대기실, 화장실) ◦ 무대지원시설(장비 반입구) ◦ 특수장치 및 조정실(무대감독실, 무대기계조작실, 영사, 음향, 조명실) ◦ 관리제실(숙직실, 귀빈실, 매표소, 응원실, 경비실, 방송실 및 방재실, 창고)
지상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객석(237석) ◦ 청소년문화의집(사무실, 회의실, 노래방, 연습실, 동아리방, 인터넷방) ◦ 특수장치 및 조정실(측면 투광실 2개소) ◦ 관리제실(관장실, 창고, 매점)
지상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단체사무실(2~4호(43.20㎡), 5호(54㎡)) ◦ 관리제실(전화기계실, 창고) ◦ 회의실(20석)
옥탑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탱크실, 창고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문화예술회관 일반현황).



세종문화예술회관 외부 전경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문화예술회관 일반현황).

[그림 3-2] 세종문화예술회관

(2) 미술관 · 박물관

- 세종시 내에 국립·공립·사립미술관은 없으며 박물관은 국립 1개소, 공립 2개소, 사립 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국립박물관인 조세박물관은 2015년 나성동에 설립됨
 - 공립박물관으로 1997년 금남면에 설립된 충청남도산림박물관과 2012년 개관한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전의면에 위치함
 - 사립박물관에는 교과서박물관(연동면), 연기향토박물관(연서면), 세종전통장류박물관(전동면), 한국여인생활사박물관(조치원읍)이 있음

[표 3-9] 세종시 박물관 현황

박물관명	주소	개관일	연면적(㎡)	비고
조세박물관	노을6로 8-14(나성동)	2015.12.04.	1062	국립
충청남도산림박물관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1997.10.31.	3,173	공립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전의면 금사길 75	2012.10.23.	912	
교과서박물관	연동면 청연로 492-14	2003.09.24.	3,476	사립
연기향토박물관	연서면 양대길 34-4	1995.10.01.	800	
세종전통장류박물관	전동면 배일길 90-43	2013.03.29.	272	
한국여인생활사박물관	조치원읍 안터길 107	2017.11.02.	554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박물관 · 미술관 현황).



조세박물관 전시실 전경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전시실 전경



세종전통장류박물관 외부 전경



한국여인생활사박물관 전시실 전경

자료 : 조세박물관 홈페이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세종전통장류박물관 홈페이지; 한국여인생활사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3-3] 세종시 박물관

3. 역사문화 관광자원

1) 백제문화자산

- 세종시 소재 백제문화자산에는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 ‘운주산성’, ‘금이성’이 있음
 -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 시대 분묘가 발견된 곳으로, 석실분 7기와 석관묘 7기가 존재함
 - ‘운주산성’은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멸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백제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추정
 - ‘금이성’은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위치한 백제산성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구축되었음

[표 3-10] 세종시 백제문화자산 현황

자산명	소재지	특성
한솔동 백제 고분역사공원	세종시 한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시대 분묘가 발견된 곳으로, 석실분 7기와 석곽묘 7기가 존재 백제 횡혈식석실분 2기는 보호각 등으로 노출 전시하고, 다른 백제고분은 흙을 덮고 그 위에 분묘형태를 재현해 놓음
운주산성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양, 복신, 도침장군을 선두로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백제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추정됨 운주산성은 해발 460m의 운주산 정상부를 정점으로 세 개의 봉우리와 연결해 외성과 내성을 쌓은 것으로, 백제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산성의 형식임
금이성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이성은 ‘철성(鐵城)’이라 불리며 금성(金城)으로 표기하는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금현성이 이 산성을 말함 전형적인 백제산성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구축된 철옹성임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



운주산성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그림 3-4] 백제문화유산

2) 전통사찰 현황

- 세종시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전의면 다방리 소재의 비암사, 연서면 월하리 소재의 연화사, 조치원읍 번암리 소재의 관음암(관음사), 전의면 양곡리 소재의 청안사 등 총 8곳이 있음

- 세종시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지닌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보임
 - 비암사의 ‘극락보전’, ‘3층 석탑’, ‘영산회 괘불탱화’,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은 세종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연화사의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와 ‘칠존불비상’은 각각 보물 제649호, 제650호로 지정됨
 - 이 외에 영평사에도 문화재급의 전통건물이 6동이 있고 청안사, 황룡사, 학림사 등도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로서 문화적 가치를 보유

[표 3-11] 세종시 전통사찰 현황(2018.4월 기준)

등록번호	사찰명	소재지	특성
제1호	비암사	전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백제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짐 ◦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전의 비암사 3층 석탑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3호로,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는 시유형문화재 제12호로,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음 ◦ 비암사에서 발견된 국보 제106호는 국립청주박물관에, 보물 제367호 및 제368호는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함
제2호	연화사	연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화사의 창건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창건자로 알려진 흥문섭이 꿈에서 본 곳을 파보니 두개의 비상이 나와 석불을 모셔다가 사찰을 건립했다고 전해짐 ◦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는 보물 제649호로 지정 ◦ 보물 제650호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은 세종시 지역의 고대미술의 판도를 새롭게 정리한 작품으로 평가됨
제3호	관음암 (관음사)	조치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음암은 사찰 내 하나의 불전만 건립되어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암자임 ◦ 사찰 창건 이후 진입로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공단지대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사찰의 자리를 옮기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음
제4호	청안사	전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제국 광무4년(1900)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나, 현재의 성불사에서 약 50m 아래에 위치한 옛 절터에서 조선시대 중기의 기와편과 백자편이 출토되어 이때 창건되었다고도 보고, 백제 말에 창건된 복혈사로 추정되는 비암사에 속한 암자였다고도 전해짐 ◦ 원래 태고종 소속의 성불사라 불렸으나, 2001년 조계종 소속의 청안사로 개칭

등록 번호	사찰명	소재지	특성
제5호	신광사	조치원읍	◦ 재단법인 선학원 사찰이며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곳임. 조치원읍 신안리 토골마을 뒷산의 중턱에 위치함
제6호	황룡사	연동면	◦ 연동면 황우산에 자리한 전통사찰 제77호 황룡사는 조 선의 명재상 황희(1363~1462)의 후손들이 나라의 태평 성대와 가문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한 원찰로 창건됨 ◦ 황룡사터는 ‘행우경전형’의 명당지로 『만산도』에도 언급
제7호	영평사	장군면	◦ 6동의 문화재급 전통건물과 3동의 토굴을 갖춘 ◦ 매년 10월 장군산 구절초꽃 축제를 개최하며, 템플스테 이를 운영함
제8호	학림사	연서면	◦ 학림사는 약 600년 전에 창건되었지만 세월이 지나 절 이 폐허가 되었고, 1965년 다시 절을 세워 안양사라고 불렀음. 이후 1985년 대웅전과 요사를 중창하였고 절 이름을 학림사로 바꿈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전통사찰 현황 2018.4.12.); 세종특별자치
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황룡사



학림사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그림 3-5] 세종시 전통사찰

3) 한옥체험업 현황

- 세종시 소재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3곳으로, 장군면 소
재 학림재, 부강면 소재 세종 부강리 고택, 고운동 소재 목향재가 있음
- 특히 ‘세종 부강리 고택’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되
어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학림재의 경우 한옥체험 뿐만 아
니라 전시회, 워크샵, 컨퍼런스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제공

[표 3-12] 세종시 한옥체험업 현황(2018.4월 기준)

상호명	소재지	특성
학림재	장군면	◦ 한옥체험, 전통혼례, 야외전시회, 워크샵, 컨퍼런스 등의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
세종 부강리 고택	부강면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인 이 고택은 안채 대청에 적힌 상량문에 의하면 고종 3년(1866)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음 ◦ 한단 높은 ‘ㄷ’자형 안채와 한단 낮게 지어진 ‘ㄷ’자형 사랑채가 맞물려 전체적으로 정남향의 ‘ㄱ’자형 구조임
목향재	고운동	◦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와 전통찻집을 운영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 한옥체험업 현황 2018.4.12.); 학림재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201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목향재 홈페이지.



학림재



세종 부강리 고택

자료 : 학림재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3-6] 세종시 한옥체험업

4)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

- 세종시의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에는 초려역사공원, 김종서장군묘, 어서각역사공원, 독락정, 금강대도, 전의향교, 전의초수, 쌍류리예술촌, 연기향교 등이 있음
 - 비암사가 있는 전의면에는 전의향교 및 전의초수가 위치함
 - 전의면과 인접해 있는 연서면에는 쌍류리예술촌, 연기대첩비가 있음

[표 3-13] 세종시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

자산명	소재지	특성
초려역사공원	어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중기 유학자인 초려 이유태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묘소 일원에 조성한 공원
김종서장군묘	장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단종 때의 충신인 김종서장군의 묘소로, 현재의 묘비와 '충신정려'의 현판은 영조 22년(1764)에 세운 것이며, 묘역의 등근 담과 삼문시설은 근래에 설치함
어서각역사공원	아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서각은 임금님의 친필을 보관하던 곳으로, 전각(殿閣), 어필각(御筆閣)으로도 불림 우리나라에는 총 4개의 어서각(세종·영동·장수·선조 어서각)이 있으며, 그 중 세종 어서각은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의 친필이 봉안된 세종시 향토유적 제41호임 역사공원은 어서각을 원형보존하고,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버들잎 설화를 모티브로 전통담장, 잔디마당을 조성
독락정	나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난수 장군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낙향해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킴. 그의 아들 임목은 이를 기리기 위해 1437년(세종 19년)에 독락정을 건립
금강대도	금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대도는 1874년에 창도됐으며,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신 함양, 독립을 염원하는 등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함
전의향교	전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의향교는 조선 초 각 지방 군·현에 향교들이 건립될 때인 1407~1413년(태종 7~13)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 처음에는 동교리에 위치했으나 지세가 협소해 1649년 현의 남쪽으로 옮겼고 1684년(숙종 8)에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추가 제향하면서 다시 현재 위치로 이진함 교육공간인 명륜당이 앞쪽에 있고 그 뒤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는 전학후묘 형태로 건물이 배치됨
전의초수	전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전의초수를 1년간 마시고 눈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을 통해 전해짐 세종대왕이 전의초수를 마시고 눈병이 완쾌되었다고 하여, '왕의 물'이라고 불림 평소에는 전의초수의 보존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나 매년 열리는 '왕의 물' 축제 시에는 개방됨
쌍류리예술촌	연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인 충청남도 연기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예술가들이 연기 미술협회 차원에서 단체로 이주지를 물색하러 다녔고, 이에 정착하게 된 곳이 쌍류리예술촌임
연기대첩비	연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연기대첩비를 건립하고, 그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함

자산명	소재지	특성
연기향교	연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향교는 세종시 기념물 제6호로, 1416년(태종16)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됨 원래 연기리 서쪽에 있었던 것을 인조 21년(1647)에 현 위치로 이진하였고, 1900년 초에 전사청과 대성전, 명륜당을 차례로 중창함. 현존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전사청 등이 있음
합호서원	연동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호서원은 1716년(숙종42) 안경신, 안경인 등이 고려 때의 학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인 안향(1243~1306)의 영정에 향사를 지냈고, 조선시대 고종 때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쇄됐다가 1939년 다시 세워짐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블로그 '세종스토리'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초려역사공원



김종서장군묘



독락정



합호서원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그림 3-7] 세종시 기타 역사문화 관광자원

4.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 현황

○ 2018년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¹⁾

-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 및 역사성과 관련된 주요 행사에는 ‘세종축제’, ‘백제대제’,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 ‘왕의 물 축제’, ‘김종서장군 문화제’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민속 달맞이 행사’, ‘고향마실 페스티벌’, ‘고북자연공원 북적북적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세종시에서 진행됨

[표 3-14] 2018년 세종시 주요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 현황

행사명 (2017년 기준)	2018년 행사예정일	개최지	행사내용	주최	주관
세종축제	10.6~10.9	세종호수 공원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대표축제로 세종대왕과 한글의 정신을 계승 • 한글창의산업전, 아름다운 노랫말 콘서트, 노을음악회, 전시체험행사 등 	세종시	
민속 달맞이 행사	3.2	소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월대보름행사(수살제, 목신제, 달집태우기 등) 	소정면	소정면 민속달맞이 축제준비 위원회
백제대제	4.15	비암사 및 운주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부터 백제 역대대왕과 유민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거행해왔으며, 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됨 	비암사, 세종문화원	세종시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	4.21~4.22	세종문화 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과 시민화합을 도모 • 공식행사, 문화공연, 경연, 체험, 전시, 판매 등 	세종조치원 복숭아연합 영농법인	세종시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고향마실 페스티벌	7.14~7.15	정부세종 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대전, 충남 3개 시도 체험마을 페스티벌 및 안테나숍 운영으로 6차산업제품 홍보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도	대전mbc (사)충남 체험마을 협의회
고북자연공원 북적북적 콘서트	8.5~8.6	연서면 고북 자연공원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공간제공, 체험, 무료책대여, 작은음악회 등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1)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 것으로 세종시의 모든 연중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략적으로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역사·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축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방안 마련시 참고할 만한 사례를 탐색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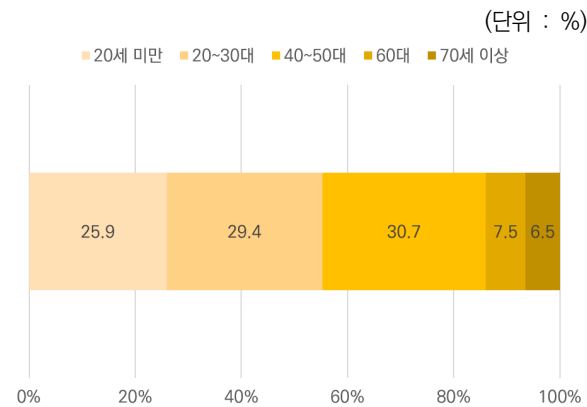
행사명 (2017년 기준)	2018년 행사에정일	개최지	행사내용	주최	주관
세종호수 예술축제	9.15~9.16	세종호수 공원 일원	• 거리에술축제	세종시	세종시 문화재단
왕의 물 축제	10.6	세종시 전의면 전의초수 일원	• 전의초수의 역사성을 알리고 역 사문화자원으로 발굴 • 왕의 물수신제, 채수, 공연 및 전시체험행사	전의면	
김종서장군 문화제	10.7	김종서장군 묘역 일원	• 김종서장군 주제공연 및 주제관 운영 • 장군면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 퍼레이드, 제향 및 작은음악회 • 먹거리장터 및 상설 체험프로그 램 운영 등	김종서 장군선양 위원회	장군면, 장군면 주민자치 위원회
572돌 한글날 경축식	10.9	세종호수 공원 일원	•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 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 진행	세종시	

자료 : 세종시 관광문화재과 내부자료를 참고해 연구자가 재구성.

5. 시민 문화수요

1) 세종시 인구 특성

- 세종시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40~50대 30.7%, 20~30대 29.4%, 20세 미만 2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젊은 연령대의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문화향유에 대한 수요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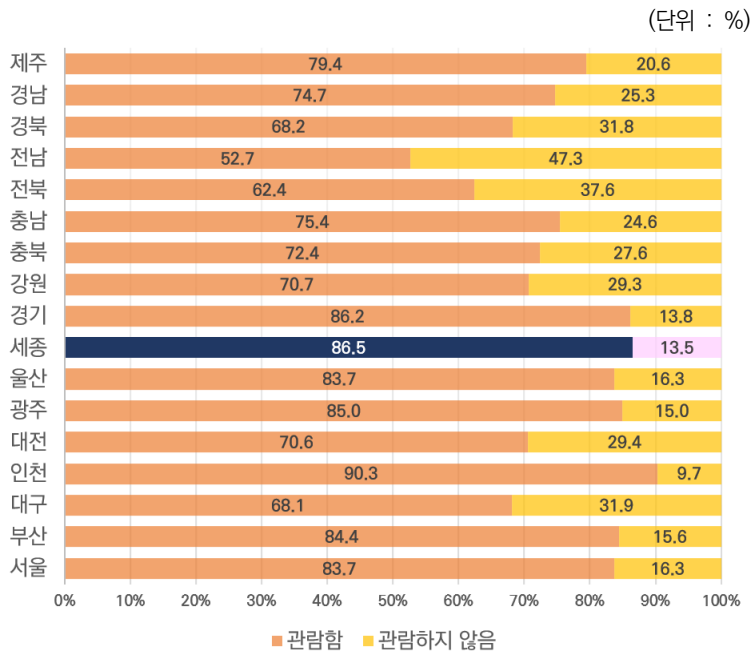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8.02), 「세종 통계월보」.

[그림 3-8] 세종시 연령대별 인구 비율

2) 문화예술 행사 참여

- 전통예술, 문학행사, 미술 전시회,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세종 시민의 경우 86.5%가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이는 인천(90.3%)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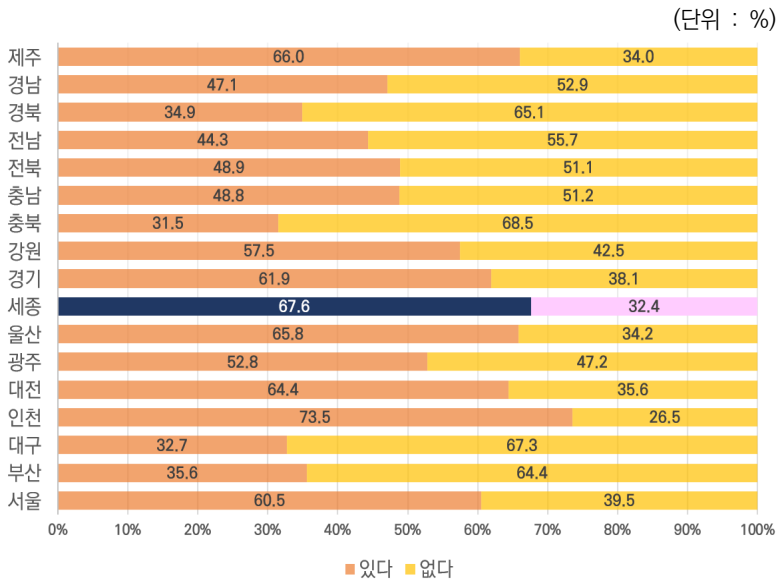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9]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 전통예술, 문학행사, 미술 전시회,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세종시 응답자의 67.6%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세종 시민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은 인천(7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제주(66.0%) 및 울산(65.8%)과 비슷

한 수준임

- 비록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세종 시민의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무려 32.4%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조사결과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 있음
- 세종 시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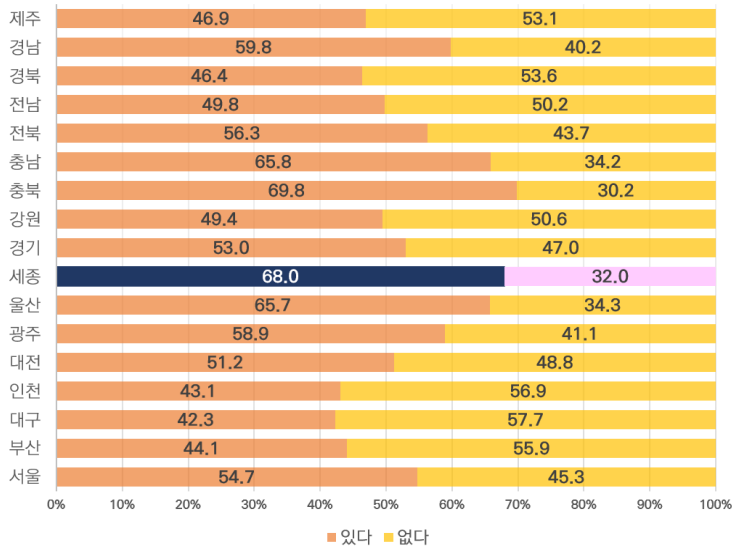
[그림 3-10]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3)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세종시 응답자의 68.0%가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역사문화유적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한 세종시민의 응답비율은 충청북도(6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충청남도(65.8%) 및 울산(65.7%)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세종 시민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은 수준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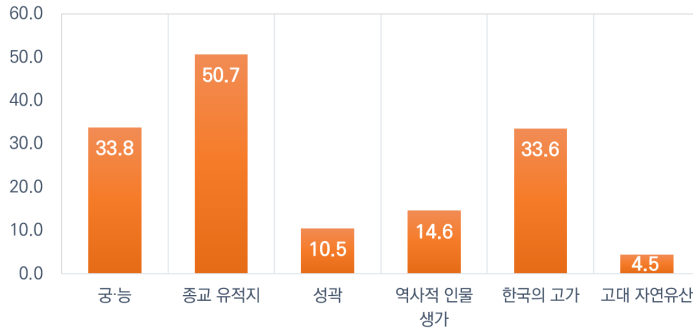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1] 지역별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유적지 형태를 조사한 결과, 종교 유적지가 50.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궁·능(33.8%) > 한국의 고가(33.6%) > 역사적 인물 생가(14.6%) > 성곽(10.5%) > 고대 자연유산(4.5%) 순으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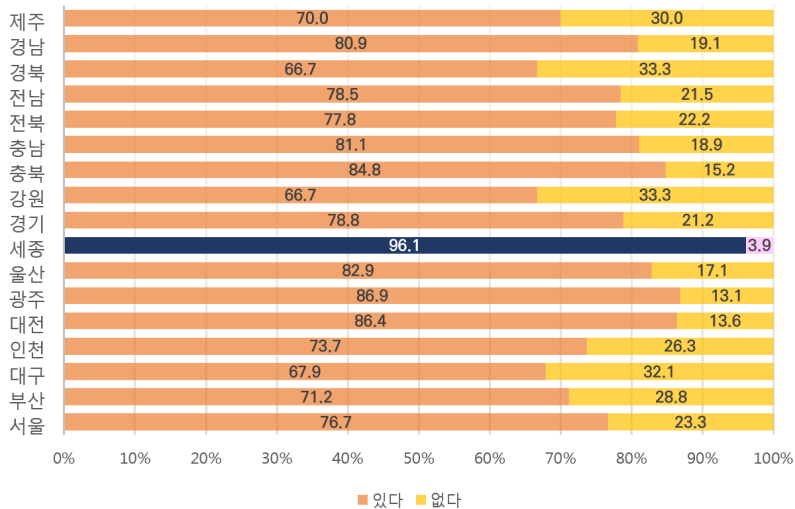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2] 세종 시민이 방문한 역사문화유적지 형태(복수 선택)

- 향후 역사문화유적지에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세종 시민의 비율은 96.1%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장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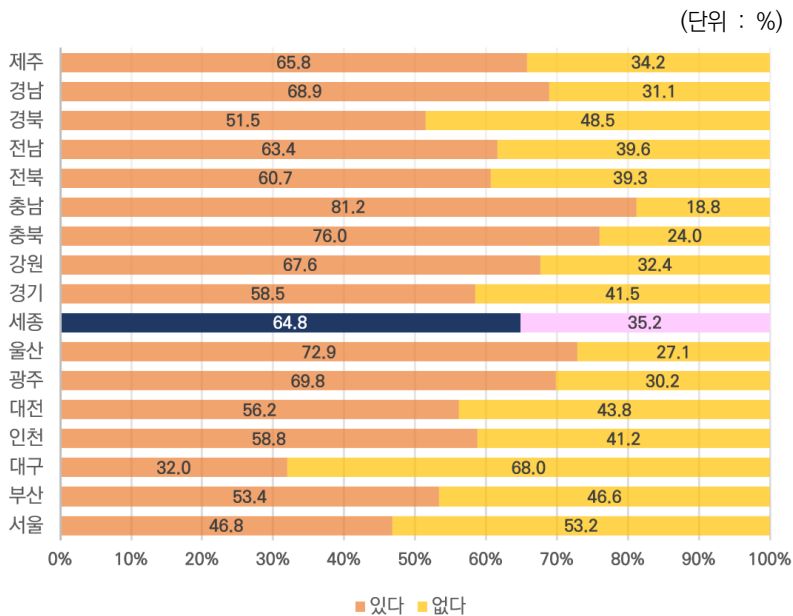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3]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의향

4) 축제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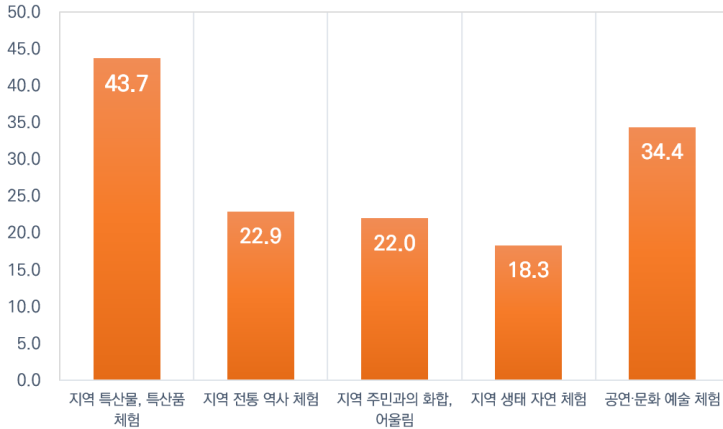
- 축제방문 경험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세종 시민이 축제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64.8%임
- 충청남도(81.2%) > 충청북도(76.0%) > 울산(72.9%) > 광주(69.8%) > 경상남도(68.9%) 등의 순으로 축제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앞서 살펴본 세종 시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나, 축제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4] 지역별 축제 방문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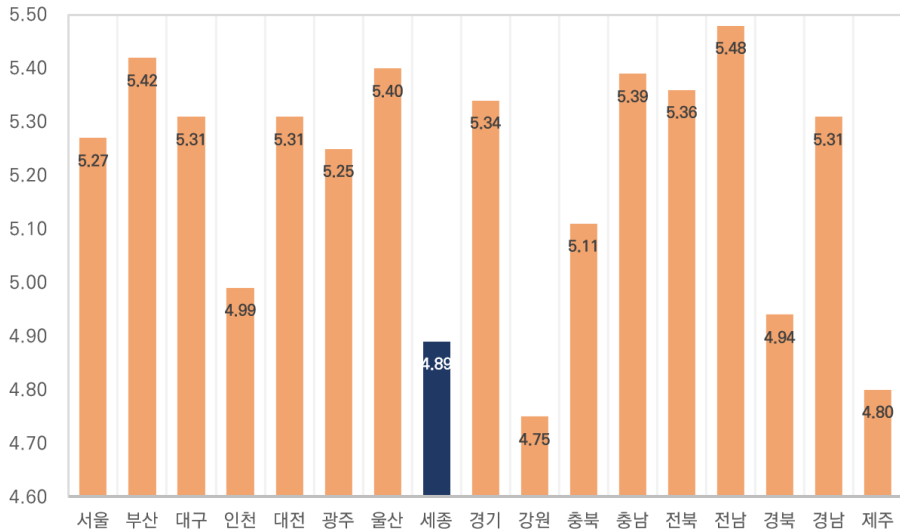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5] 세종 시민이 방문했던 축제의 주제(복수 선택)

- 축제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주제의 축제에 방문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역 특산물 및 특산품 체험이 43.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연·문화 예술 체험(34.4%) > 지역 전통 역사 체험(22.9%) > 지역 주민과의 화합, 어울림(22.0%) > 지역 생태 자연 체험(18.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축제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하여 만족도 평균을 계산함
- 축제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세종 시민의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는 4.89점으로 강원(4.75점)과 제주(4.80)에 이어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줌
-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는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낮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지만, 이들이 방문했던 축제에서 느낀 만족 수준이 낮다는 것은 축제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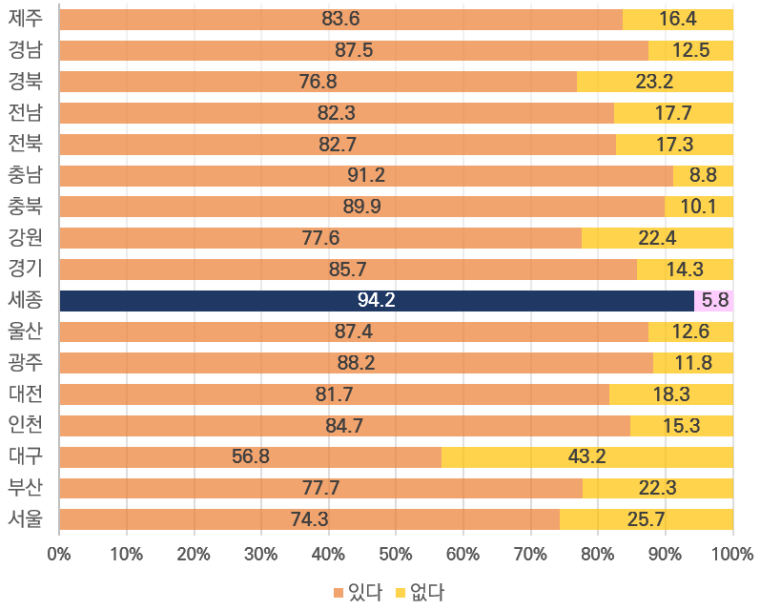
주 : 7점 척도(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약간불만족=3점, 보통=4점, 약간 만족=5점, 만족=6점, 매우 만족=7점)로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한 후 평균을 낸 값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6]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

- 향후 축제에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세종시 응답자의 94.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시도와 비교해 축제에 대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조사 결과에서 세종 시민의 축제 방문 경험은 비교적 많지 않았고 만족도 역시 낮았음
- 이는 세종시민의 축제에 대한 관심 대비 세종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시민의 수요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결과임
- 축제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종시에 이어 충청남도(91.2%) > 충청북도(89.9%) > 광주(88.2%) 등의 순으로 높음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3-17] 축제 방문 의향

6. 소결

□ 문화예술행사 지원 조직

- 시 규모, 인구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 시도 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있겠으나 현재 세종시 직제는 문화예술 부분의 업무가 상당히 통합되어 있어서 업무과중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음
- 서울, 부산, 대구,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를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서 행사 지원에 대한 업무 과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인천은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의 지역관광진흥팀, 관광산업팀, 국제관광팀에서 각기 맡은 문화예술 축제, 행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함

[표 3-15] 17개 광역 시도 문화예술축제행사 담당 부서 현황

지역	조직명	축제·행사 관련 주요 사업
세종특별 자치시	자치분권문화국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거리공연, 문화가 있는 날 사업 ◦ 지역축제 및 전통문화행사 보조사업 및 관리 등
서울 특별시	문화본부 - 문화예술과 - 축제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김장문화제, 서울드럼페스티벌, 서울문화의 밤, 서울세계불꽃축제 ◦ 연등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아리랑 페스티벌 지원 ◦ 문체부 대표공연예술제 ◦ 서울시 축제위원회 구성·운영,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총괄 ◦ 서울시 축제자문단 구성 운영 지원 ◦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국비지원 축제사업 ◦ 축제 아카이브 구축, 지역축제 수합 및 자료관리
부산 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정책과 - 축제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진흥의 연구·발전 및 주요 업무 계획수립 등 ◦ 부산 불꽃축제, 부산 해맞이 축제,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 부산 바다 축제, 북극곰 수영축제, 부산트리축제, 원도심활성화축제에 관한 사항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및 축제 조례, 축제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 축제평가, 구군축제지원 및 통합에 관한 사항
대구 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정책과 - 축제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진흥정책 수립 ◦ 컬러풀페스티벌, 핫페스티벌(여름)지원·운영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 ◦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축제사무국 운영 지원, 구군축제 육성지원, 우수마을축제 발굴 지원, 축제평가 관리
광주 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 관광진흥과 - 관광산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역	조직명	축제·행사 관련 주요 사업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진흥과 - 지역관광진흥팀	◦ 송도해변 여름대축제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진흥과 - 관광산업팀	◦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관련 업무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진흥과 - 국제관광팀	◦ 원도심 특화 축제(낭만시장 축제, 문학의밤 축제) 추진 ◦ INK콘서트 개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진흥과 - 관광기획담당	◦ 축제 종합평가 · 분석 ◦ 축제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 ◦ 대전광역시 지정축제 선정 및 지원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진흥과	◦ 걷기 여행길 종합안내 포털관리(해파랑길 축제 등)
	환경녹지국 - 녹지공원과	◦ 울산산업문화축제 지원
	도시창조국 - 창조경제과	◦ 울산배축제
	일자리경제국 - 농축산과	◦ 햇토우랑 대축제 행사, 한우불고기 축제 행사
	복지여성국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다문화축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과	◦ 한국도자재단에 관한 사항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지원 시군 도자기축제 지원, 경기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국 - 콘텐츠산업과	◦ DMZ국제다큐영화제 지도감독 만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추진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경기지방정치축제
	교육협력국 - 도서관정책과	◦ 경기도독다독축제 운영 지원, 추진
	균형발전기획실 - DMZ정책담당관	◦ DMZ 관련 문화제(축제, 행사)
강원도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마케팅과 - 국내마케팅팀	◦ 문화관광축제 및 도 지정 우수 지역 축제 발굴 육성 ◦ 문화관광축제 및 우수지역축제 육성 지원 및 평가컨설팅 ◦ 국내관광 콘텐츠개발·지원(호수별빛축제, 펫페스티벌 등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정책팀	◦ 민속예술축제, 청소년민속예술제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산업팀	◦ 가족음악축제 등 대중음악산업 지원, 강원비엔날레 지원

지역	조직명	축제·행사 관련 주요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행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세계평화합창축제 추진 ◦ 2022세계합창대회 유치 지원·대회 ◦ 올림픽 문화행사 ◦ 강릉사투리 보전 전승, 김유정 문화제 등 지역 향토문화행사 지원 ◦ 도내 문화행사홍보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항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 새해맞이 축제, 워크숍 등 ◦ 문화관광축제, 도지정 축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마케팅과 - 축제지원TF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관련 업무 기획·조정 ◦ 축제발전종합전략 수립 ◦ 계룡군문화축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처리 지원 ◦ 축제멘토링 컨설팅 ◦ 지역축제 아카데미 운영 ◦ 축제 관련 포상, 홍보, 관학협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총괄과 - 관광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대표축제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총괄과 - 관광마케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 운영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 관광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대표축제 선정 육성 ◦ 시군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 지역축제 평가 및 개선지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육성 ◦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 및 지역축제 현장평가단 운영 ◦ 지역축제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 기타 시군축제 운영지원 및 홍보 ◦ 대표 축제 연계 해외 관광객 유치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마케팅과 - 축제관광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관광산업 전반

지역	조직명	축제·행사 관련 주요 사업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진흥과 - 축제지원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관리, 안전점검단 및 축제 평가단 운영 ◦ 상설문화 관광 프로그램 지원관리 ◦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업무지원 ◦ 시군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원 ◦ 대표 문화관광축제 심사 선정관리 ◦ 군대표 문화관광축제 축제 평가단 및 안전점검단 운영 ◦ 축제지원 관련 신규 사업 발굴 ◦ 기타 축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의협력국 -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문화제 및 탐라문화가장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추진 ◦ 4:3 예술축전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 한국민속,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지원 ◦ 전국단위행사 참가 지원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참고.

- 전북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의 관광산업팀과 관광마케팅팀에서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관광산업팀은 시·군 대표축제를 지원하고 관광마케팅팀은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를 운영함
- 강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의 국내마케팅팀에서 문화관광 축제 및 도 지정 우수 지역 축제 발굴, 육성지원 및 평가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의 문화정책팀, 문화산업팀, 그리고 문화행사팀에서 각자 팀 성격과 관련된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를 지원·운영하고 있음
- 울산, 경기의 경우,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를 전담하는 팀이 없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문화 및 관광 관련 부서에서만 문화예술축제 행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부서에서도 축제 업무를 진행함
- 울산은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진흥과, 환경녹지국의 녹지공원과, 도시창조국의 창조경제과, 일자리경제국의 농축산과,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부서 성격과 관련된 축제를 담당하여 운영함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과와 콘텐츠산업과, 교육협력국의 도서관정책과,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균형발전기획실의 DMZ정책담당관에서 각 부서의 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 세종시 문화자산으로서 백제대제를 보존 지원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60년대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백제역대 국왕,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 근거해 이행되고 있어서, 발견된 불비상 외에도 제례 의식 자체가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님
- 비록 모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국보 제106호로, ‘기축명아미타불비상’ 및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은 각각 보물 제367호와 제368호로 지정됨. 또 비암사의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모두 세종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비암사라는 장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세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백제대제가 세종시의 향토무형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의 연혁 및 의미에 대한 연구, 의식 절차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 있음
 - 이러한 노력은 향후 세종시 백제대제가 ‘사회적 의식’ 성격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진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 지역 내 문화시설을 연계한 세종시 백제대제 육성

- 비록 세종시 내 문화시설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영화상영관, 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음

- 지역 내 문화시설을 연계해 세종시 백제대제 육성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 세종시 백제대제의 유래를 시청각자료로 제작해 상영하고, 시민들을 위한 제례 체험행사 실시, 백제문화 관련 기획전시 등을 운영한다면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및 기획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함

□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종시 백제대제 진흥

- 세종시에는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 운주산성, 금이성 등 백제관련 문화자산이 있음
- 백제대제의 취지가 백제의 역대 국왕 및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내는 것인 만큼, 백제대제가 진행되는 날에 맞추어 세종시의 백제관련 문화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임
 - 각 장소의 특성과 의미 등을 고려해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또한 세종시에는 비암사 외에도 연화사, 청안사, 황룡사, 영평사, 학림사 등 역사가 오래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이 있어서 ‘사찰 투어’와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임
 - 영평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각 사찰별 특성을 살린 사찰 음식 체험, 사찰 음악회, 불교 유적·문화·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한다면 세종시의 사찰들이 보다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비암사와 지역의 다른 사찰들이 연계·협력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세종시 백제대제가 지금보다 풍성한 문화행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이 외에도 세종시에는 세 곳 이상의 한옥체험업장이 있고, 초려역사공원, 김종서장군묘, 어서각역사공원, 독락정, 쌍류리예술촌 등 여러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위치해 있음
 - 특히 쌍류리예술촌은 비암사가 위치한 전의면과 인접한 연서면에 위치

해 있고,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학림재에서는 전시회,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백제대제,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세종시 백제대제 실태조사

1. 최근 연도별 백제대제 개요
2. 2018 세종시 백제대제
3. 세종시 백제대제 문제점 진단

4장 세종시 백제대제 실태조사

1. 최근 연도별 백제대제 개요

- 세종시 백제대제 행사의 구성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도에 해당하는 행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
- 2014년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 세종향토사연구소 주관 하에 4월 15일 비암사에서 개최됨. 세종시는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
 - 세종문화원이 진행한 “제32회 세종시 백제대제”는 범종타종을 시작으로 본행사인 헌다(초헌, 아헌, 종헌), 추도사, 범패의식, 헌화 및 분향, 그리고 세종소리예술단의 가야금병창, 살풀이, 세종불교합창단의 공연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으로 이어짐

[표 4-1] 2014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구분	구성 내용	진행	장소	지원예산
타종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회 세종시 백제대제 • 범종타종(5회 타종) 	세종문화원	비암사	1,200만 원
본행사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다(초헌, 아헌, 종헌) • 추도사 • 범패의식 • 헌화 및 분향 • 문화공연 			

자료 :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2014~2018년 백제대제 행사순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13~2017)”.

- 2015년에도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과 세종향토사연구소가 주관 하여 4월 15일 비암사에서 개최됨. 총 1,3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되었음
 - 세종문화원이 진행한 “제33회 세종시 백제대제”는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괘불이운, 영가이운, 불공의 축원행사를 포함하여, 본행사인 헌

다(초헌, 아헌, 종헌), 추도사, 범패의식, 헌화 및 분향, 그리고 세종소리예술단의 가야금병창, 살풀이, 세종불교합창단의 공연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으로 이어짐

[표 4-2] 2015 세종시 백제대제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진행	장소	지원예산
타종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회 세종시 백제대제 ◦ 범종타종(5회 타종) ◦ 축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괘불이운 - 영가이운 - 불공 	세종문화원	비암사	1,300만 원
본행사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다(초헌, 아헌, 종헌) ◦ 추도사 ◦ 범패의식 ◦ 헌화 및 분향 ◦ 문화공연 			

자료 :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2014~2018년 백제대제 행사순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13~2017)”.

- 2016년부터 세종문화원, 세종시향토사연구소와 함께 비암사가 공동으로 세종시 백제대제를 주관하게 되었음. 이에 세종시는 백제대제 운영을 위하여 비암사에 1,000만 원, 세종문화원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 비암사가 1부를 불교식 제례행사로 진행하였고, 세종문화원이 2부를 유교식 제례행사와 문화공연으로 구성해 운영
 - 비암사가 진행한 1부 행사는 “비암사 국태민안기원 백제 영산대제”를 시작으로 괘불이운, 삼귀의, 삼보통청, 축원, 한글반야심경 봉독, 백제 부흥군 위령 시식, 백제불교 춤,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
 - 이어서 세종문화원이 진행한 2부 행사는 “제34회 세종시 백제대제”로 헌다(초헌, 아헌, 종헌), 추도사, 헌화 및 분향, 그리고 세종여성합창단의 공연과 유혜리 무용단의 승무,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정읍시립국악단의 반야심경, 부여군충남국악단의 7악사연주 문화공연으로 진행됨

[표 4-3] 2016 세종시 백제대제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진행	장소	지원예산
1부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비암사 국태민안기원 백제영산대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종타종(5회 타종) ◦ 괘불이운(범패바라의식) ◦ 삼귀의 ◦ 삼보통청 ◦ 축원 ◦ 한글반야심경 ◦ 시식(백제부흥군 위령 시식) ◦ 백제춤 ◦ 사흥서원 	비암사	비암사	1,000만 원
2부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34회 세종시 백제대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다(초헌, 아헌, 종헌) ◦ 추도사 ◦ 헌화 및 분향 ◦ 문화공연 	세종문화원		1,000만 원

자료 :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2014~2018년 백제대제 행사순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13~2017)”.

- 2017년 백제대제는 비암사와 세종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4월 15일 비암사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됨. 비암사는 1,200만 원, 세종문화원은 8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백제대제를 진행하였음
- 비암사가 “제1344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를 1부 행사로 진행하였고, 이는 괘불이운, 명종, 삼귀의, 찬불가 및 찬탄곡, 권공 및 축원, 한글반야심경, 시식 및 범패, 사흥선원, 백제국왕대신·칠세부모·법계증생함령등중 및 백제부흥군을 위한 공연으로 구성됨
 - 세종문화원이 진행한 2부 행사는 “제35회 세종시 백제대제”로 헌다(초헌, 아헌, 종헌), 추도사, 헌화 및 분향, 그리고 판소리, 살풀이, 무용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이 진행되었음

[표 4-4] 2017 세종시 백제대제 구성

구분	구성 내용	진행	장소	지원예산
1부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44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 • 과불이운 • 명종(5회 타종) • 삼귀의 • 찬불가, 찬탄곡 • 권공, 축원 • 한글반야심경 • 시식 및 범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도사 - 백제국왕대신, 칠세부모, 법계증생함령 등증을 위한 헌화, 헌향, 헌다 • 사홍서원 • 백제국왕대신, 칠세부모, 법계증생함령 등증 및 백제부흥군을 위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심곡, 8악기연주 및 백제불교춤, 백제풍류선무, 사물놀이 	비암사	비암사	1,200만 원
2부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회 세종시 백제대제 • 헌다(초헌, 아헌, 종헌) • 추도사 • 헌화 및 분향 • 문화공연 	세종문화원		800만 원

자료 : 2017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 안내 리플렛;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2013~2017)”.

2. 2018 세종시 백제대제

-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과 비암사로 주관처가 이원화되어 별도로 진행되었음
- 세종문화원과 비암사는 세종시로부터 각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제례 및 문화행사를 운영함
- 세종문화원은 세종시 백제대제의 첫 시행을 1983년 전의고적보존회가 거행한 ‘백제충령제’로 보고, 2018년 백제대제(百濟大祭)를 제36회로 명기

- 세종문화원의 백제대제는 고산사~운주산성 광장에서 진행됨
 - 오전 10시부터 고산사에서 운주산성까지 ‘백제 둘레길 걷기’가 진행됐고, 11시부터 진행된 제례행사는 1부 제례행사와 2부 문화공연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음
 - 고산사에서 운주산성까지는 도보로 약 45분이 소요되었으며 다소 가파른 산길이 포함됨
 - 제례행사는 유교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백제대제 유래 낭독’, ‘백제 국왕을 맞이하다’, ‘석불비상 시납·신위 봉안’, ‘강신례’, ‘초헌관’, ‘축문 낭독’, ‘아헌관’, ‘중헌관’, ‘추도사’ 등이 포함됨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았고 온조왕 이래 백제왕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좌우사열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성을 드러냄. 운주산성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행사의 의의를 높임
- 비암사는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역대 백제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추모하는 재(齋)를 올린 것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매년 크고 작은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봄.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추모 행사는 2018년에 1345년차를 맞이했다고 보고, 지난 4월 15일 비암사에서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재(百濟靈山大齋)’를 진행
- 백제영산대재는 크게 제례행사와 문화공연으로 구분됨
 - ‘신중작법’, ‘괘불이운’, ‘명종(5회 타종)’,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육법공양’, ‘상단권공 및 중단권공’, ‘백제국왕, 대신 및 칠세선망부모 위폐모심’, ‘봉행사’, ‘추도사’, ‘추모사’, ‘시식(헌화, 헌향, 헌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제례는 불교식의 형식과 절차를 따라 진행됐으며 세종시 백제대제의 유래가 된 불비상이 출토된 비암사에서 문화공연까지 이어져서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
- 다음 표는 주관처에 따라 구분한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의 개요를 정리한 것임

[표 4-5] 2018 세종시 백제대제 개요

구분	세종문화원	비암사
행사명	제36회 백제대제(百濟大祭): 백제 둘레길 걷기 대회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百濟靈山大齋)
일시	2018.04.15. 10:00	2018.04.15. 9:30
장소	고산사~운주산성 광장	비암사
주관	세종문화원	대한불교조계종 비암사
후원	세종시, 세종향토사연구소, 세종우리신용협동조합	세종시, 전씨종친회, 비암사대중일동
세종시 예산지원	1,000만 원	1,000만 원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왕 이름이 새겨진 깃발 좌우사열 ◦ 대백제 국왕대신과 칠세부모 위패모시기 ◦ 백제대제 제례행사 (거제선언-강신례-초헌례 -축문낭독-아헌례-종헌례 -분향 및 헌화-음복례- 중제 선언) ◦ 전통놀이 체험 ◦ 문화공연 ◦ 백제 둘레길 걷기 등 	<p>[백제영산대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작법 ◦ 괘불이운 ◦ 명종 ◦ 삼귀의 ◦ 한글반야심경 ◦ 육법공양 ◦ 상단-중단 권공, 백제국왕·대 신 등의 위패 모심 ◦ 봉행사 ◦ 추도사· 추모사· 추모곡 ◦ 문화공연(백제춤, 백제풍류) 등

자료 : 세종시 비암사 백제 영산대제 리플릿; <『제36회 백제대제』 행사 관련 보고>
(2018.04.10.)-문화체육과 내부자료.



자료 :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4-1] 제36회 세종시 백제대제 전경(세종문화원 주관)



자료 :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4-2] 1345년차 세종시 비암사 백제 영산대제 전경(비암사 주관)

3. 세종시 백제대제 문제점 진단

(1) 이원화된 운영으로 행사 파급효과 감소 우려

- 백제 역대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추모한다는 의미의 같은 행사가 다른 장소(운주산성, 비암사)에서 다른 단체(세종문화원, 비암사)에 의해, 또 겹치는 시간대(10시 시작, 9시 30분 시작)에 운영되고 있어서 세종시 백제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 있음
- 세종문화원은 2018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고산사에서 이루어진 부대행사 ‘백제 둘레길 걷기’를 시작으로 11시부터 운주산성 광장에서 제례행사를 진행하였고, 비암사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백제영산대재를 진행하면서 행사 운영시간이 겹치게 됨
- 공동주관처인 세종문화원과 비암사가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제례행사를 진행하면서 물리적으로 두 곳의 전 행사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 비암사와 운주산성은 약 15.99km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함
- 세종시 백제대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 주관처의 행사 개최 장소 혹은 개최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을 위해 세종문화원과 비암사 각각에 약 1천만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행사 운영이 이원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 적은 예산을 문화원과 비암사가 1천만 원씩 나누어 사실상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체간 행사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세종시 백제대제가 갖는 파급효과의 감소가 우려됨

(2) 부족한 예산으로 행사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규모 확장에 한계

- 세종시에서는 백제대제 개최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간

소하게 행사를 치르기도 매우 부족한 예산임

- 때문에 비암사와 문화원은 백제대제 운영을 위해 자체 예산 및 후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행사의 규모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백제대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
- 백제대제가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강화, 행사 규모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특성 부각 부족

- 세종시에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이 발견된 비암사가 위치해 있고, 세종시 백제대제는 온조왕 이래 백제의 역대 국왕 모두를 추모한다는 특성을 지님
-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 백제대제에서는 비암사라는 장소성, 추모대상의 범주가 넓다는 점, 불비상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공연예술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위원회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제로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타 사업과의 구별되는 독창성 및 차별성을 갖추고 있는가?’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갖고 지역축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함
- 이처럼 지역 특성화 전략, 타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지역문화예술제 발전의 중요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 백제대제도 타지역의 백제문화제에서 이행되는 제례행사와는 다른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관객개발을 위한 노력 및 홍보 부족

-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타겟 관객층을 설정하고 그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도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는 어떠한 대상을 타겟 관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다만 세종문화원이 백제대제가 진행된 운주산성 광장에서 ‘주먹밥 만들기’, ‘투호 던지기’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타겟 관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주먹밥 만들기’ 등의 행사부스가 매우 좁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행사 운영 인력이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관람객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형 프로그램의 취지가 다소 약화되었다고 보임
- 뿐만 아니라 올해 36회째 백제대제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행사의 의의, 내용, 일정, 장소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음

(5) 지역간 연계·협력 부족

- 세종시 인근에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포하는 백제시대 중요 문화자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UNESCO 세계문화유산)가 있고, 대전시에는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인근 지역과 연계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행사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6) 낮은 행사 장소 접근성

-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가 개최된 비암사와 운주산성의 접근성은 매우 좋지 않음
- 우선 비암사(전의면 비암사길 137)는 생산관리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비암사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다방리 비암사 입구(37-016, 017)’로, 이곳에는 지선버스 820번과 821번이 오감. 두 버스 모두

- 하루 5회씩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비암사에 오기에는 제약이 큼
-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암사까지 이르는 도착시간은 자동차로 약 35분,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됨 (네이버 빠른 길 찾기, 2018.04.16. 검색)
- 다음으로 운주산성은 전동면 고산길 146에 위치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둘러싸여 있음
- 운주산성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동교리(37-028, 029)'로, 이곳에는 간선버스 801번이 오감. 해당 버스는 하루 56회 운영되고 있으나 동교리 버스정류장에서 운주산성까지는 약 1.88km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운주산성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주산성까지 이르는 도착시간은 자동차로 약 42분,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에서 2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됨(네이버 빠른 길 찾기, 2018.04.16. 검색)
- 그런데 비암사는 백제대제의 기원이 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발견된 곳으로, 실제 673년 전씨 등이 불비상을 시납하고 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는 점에서, 운주산성은 서기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풍왕과 복신, 도침장군을 선두로 일어났던 백제부흥운동군의 최후의 구국항쟁지로 알려져 있다는 점(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백제대제 개최지로서 의의를 지님
- 따라서 행사 당일에 세종시 주요 공공시설, 세종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행사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표 4-6] 비암사 위치정보

구분	내용
장소	비암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3D 지도	
지적편집도 및 대중교통 정보	

자료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네이버 지도.

[표 4-7] 운주산성 위치정보

구분	내용
장소	운주산성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고산길 146
3D 지도	
지적편집도 및 대중교통 정보	

자료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네이버 지도.

(7)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 비압사와 운주산성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 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주차장 역시 협소하였음

- 비암사의 주차장은 협소하여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많았음. 운주산성의 주차장과 행사장은 높이가 달랐는데,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만큼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운주산성에서 진행된 세종문화원 행사의 경우 관계자의 차량 외에는 고산사 입구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하고, 걷거나 당일 운행되는 셔틀 버스를 이용해 운주산성에 가도록 안내가 이루어짐
- 이 외에도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부스, 안전관리부스 등의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비암사 주차상황



운주산성 주차상황

자료 :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4-3] 2018 세종시 백제대제가 운영된 비암사와 운주산성 주차 상황

(8) 부실한 환류체계

- 세종시 백제대제의 연차별 결과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예컨대,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는 연도별 백서를 작성해 행사의 조직 및 운영방식과 내용,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 해 행사가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세종시 백제대제도 매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백제대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행사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방식도 추진해볼 필요 있음

역사문화행사 우수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2. 해외사례
3. 국내사례
4. 정책적 시사점

5장

5장 역사문화행사 우수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 국내외 역사문화행사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함
- 해외사례로는 ①오랜 역사를 지니며 성공적으로 발전해 온 민속축제, ②축제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사례, ③종교 축제이자 행사의 콘텐츠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킨 사례를 검토함
 - ①독일의 ‘옥토버페스트’가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선진적·환경친화적으로 축제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참고하고자 검토하였음
 - ②영국의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문화부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1947년 개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지역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
 - ③스페인의 ‘메르세 축제’는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기리는 종교축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 ‘인간 탐 쌓기’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 운영을 참고하고자 검토함
- 국내사례로는 ①타 지역의 백제문화제(공주·부여, 서울), ②전통분야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사례, ③오래 지속되어 온 지역의 전통문화축제, ④국가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있는 문화제 사례를 검토하였음
 - ①백제 국왕 및 유민을 추모하는 제례행사를 포함해 운영되고 있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와 서울의 ‘한성백제문화제’를 분석
 -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8년 선정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중 전통

분야에 해당하는 ‘부안오복마실축제’를 분석

- ③오랜 시간 발전을 거듭하며 지속되어 온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축제의 노하우를 참고하고자 ‘가야문화축제’를 분석
- ④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어 있는 ‘강릉단오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분석

[표 5-1] 우수사례 분석대상

구분	사례지	사례
해외사례 (3)	독일 뮌헨	◦ 옥토버페스트
	영국 에든버러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스페인 바르셀로나	◦ 메르세 축제
국내사례 (5)	공주·부여	◦ 백제문화제
	서울	◦ 한성백제문화제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 오복마실축제
	김해	◦ 가야문화축제
	강릉	◦ 강릉단오제

2.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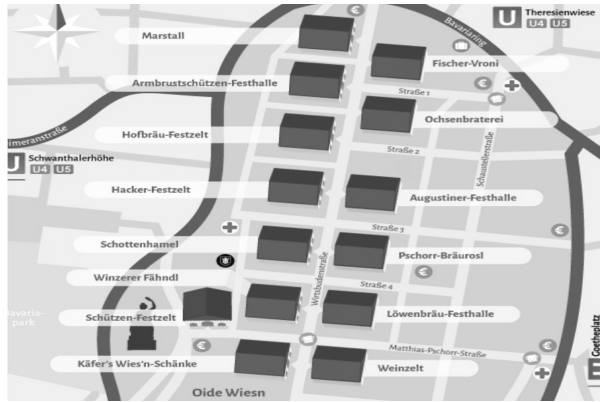
1) 독일 옥토버페스트

(1) 옥토버페스트 개요

-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Bayern) 주(州)의 뮌헨(München)이 주최하는 독일의 오래된 민속축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맥주 축제임
- 1810년 뮌헨에서 거행된 바이에른 공국의 루트비히(Kronprinz Ludwig) 1세와 작센(Sachsen)의 테레제 공주(Therese von Sachsen-Hildburghausen)의 결혼을 기념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축하연회와 민속 스포츠 경기, 대규모 경마 경기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옥토버페스트의 전통이 시작됨. 1883년부터 뮌헨의 6개의 메이저 맥주 회사(bräu, 브로이)가 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세

계 최대 맥주 축제로 성장하게 됨(손수연·황기식, 2018)

- 옥토버페스트는 1810년에 시작된 이래 전쟁, 전염병 등으로 열리지 못한 2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연속적으로 개최되어 옴
- 옥토버페스트를 후원하는 뮌헨의 6대 맥주회사에는 아우구스티너(Augustiner), 하커 프쇼르(Hacker Pschorr), 호프브로이(Hofbrau), 뢰벤브로이(Lowenbrau), 파울라너(Paulaner), 슈파텐(Spaten)이 있음



자료 :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그림 5-1] 옥토버페스트 대형 텐트 배치도

- 옥토버페스트는 ‘10월 축제’라는 뜻이지만 뮌헨의 10월 날씨가 야외 축제를 즐기기에 쌀쌀하기 때문에 1872년부터 9월 15일 이후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작하여 10월 첫째 일요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변경됨
- 2000년부터는 10월 1일 또는 2일이 일요일인 경우 축제는 독일 통일 기념일인 10월 3일까지 연장되어, 축제는 최단 16일에서 최장 18일간 열림(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표 5-2] 옥토버페스트를 후원하는 뮌헨의 6대 맥주 회사

회사	내용
아우구스티너 (Augusti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우구스티너는 1328년에 아우구스트형제회 수도사들이 설립한 뮌헨의 가장 오래된 양조장임 아우구스티너는 옥토버페스트의 아우구스티너 페스트첼트(Augustiner-Festzelt) 및 피셔 프로니(Fischer Vroni) 텐트에서 맥주를 판매
하커 프쇼르 (Hacker Pschorr)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7년부터 오랜 역사를 이어오던 레스토랑 알테스 하커하우스는 18세기에 레스토랑 집안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 하커와 주조장 직원 요제프 프쇼르가 결혼하면서 맥주 회사 하커 프쇼르 브로이로 발전 하커 프쇼르는 옥토버페스트의 하커 페스트첼트(Hacker-Festzelt), 프쇼르 브로이슬(Pschorr-Bräuros) 텐트 이용
호프브로이 (Hofbr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프브로이는 바이에른 대공 빌헬름 5세가 1589년에 설립한 양조장으로, 현재는 바이에른 주(州) 정부가 운영함 호프브로이는 옥토버페스트의 호프브로이 페스트첼트(Hofbräu-Festzelt) 텐트에서 맥주를 판매
뢰벤브로이 (Lowenbr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뢰벤브로이는 14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9세기에 브라이 가문이 회사를 맡으면서 뮌헨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로 성장 뢰벤브로이는 옥토버페스트에서 6.1%의 알코올을 함유한 맥주를 뢰벤브로이 페스트첼트(Löwenbräu-Festzelt) 및 쉬첸 페스트첼트(Schützen-Festzelt)에서 판매함
파울라너 (Paula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울라너는 1634년 15세기 이탈리아의 성인 프란체스코 디 파올라의 기사단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맥주 주조를 한 것이 오늘날 파울라너 맥주로 발전 파울라너는 옥토버페스트의 아름브루스트쉬첸 페스트할레(Armbrustschützen-Festhalle), 케퍼스 비즌 쉐케(Käfer's Wies'n-Schänke), 빈처러 팬들 바인 첼트(Weinzelt), 파울라너 페스트할레(Winzerer Fährndl-Paulaner-Festhalle) 텐트에서 맥주를 판매
슈파텐 (Spa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파텐 양조장은 1397년에 설립되어 1807년부터 제들마이어 가문이 운영. 1922년에 슈파텐 맥주 회사와 프란치스카너 맥주 회사가 합병해 슈파텐 프란치스카너 브로이가 됐고, 1997년 뢰벤브로이와 합병해 슈파텐 프란치스카너 뢰벤브로이 그룹이 됨 슈파텐은 옥토버페스트에서 첫 맥주통을 개봉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쇼텐하멜(Schottenhamel)과 마슈탈(Marstall), 오흐센브라타라이(Ochsenbraterei), 슈파텐 첼트(Spaten-Zelt)에서 맥주를 판매

자료 :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옥토버페스트” 검색(2018.05.08.)하여 작성.

(2) 옥토버페스트의 규제사항

- 옥토버페스트는 환경친화적, 관람객 친화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이는 축제 개최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1991년부터 친환경적 축제를 위한 여러 규제사항 두게 되었음
 - 1회용 그릇과 컵, 포크와 나이프 사용 금지, 캔 음료의 판매 금지, 음료는 반드시 보증금 표시가 된 회수용 병에 판매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들이 이어짐(손수연, 2018)
- 많은 인파에 대비하고 축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배낭이나 큰 가방은 허용되지 않음
 - 모든 가방과 배낭은 보안 직원들이 점검하며 보안 점검 밴드로 태그가 붙여짐. 개인 의료 기기나 의약품은 보안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짐이 최대 크기를 초과할 경우 축제 장소 주변의 잠금 장치에서 보관할 수 있음(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 소지 금지품목에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 부식성·염색 물질, 자르거나 찌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등이 있음(뮌헨 시 홈페이지)
- 아이들이 맥주 텐트를 방문하는 것과 유모차 이용에 대한 규제가 있음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도 저녁 8시에는 텐트를 떠나야 하며(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안전요원의 점검을 받은 후 유모차 허용 여부가 결정됨(뮌헨 시 홈페이지)
- 옥토버페스트는 2005년부터 알코올 소비 급증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조용한 옥토버페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움
 - 예를 들어, 대형 맥주 천막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바이에른의 전통 관악곡만 음량 85dB(데시벨) 이하로 연주할 수 있고, 대중음악과 파티음악은 그 이후에 연주하도록 규제(네이버 지식백과 “옥토버페스트”, 2018.05.08. 검색). 맥주 텐트 안에서의 흡연,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뮌헨 시 홈페이지)

[표 5-3]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주요 규제사항

구분	내용
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품(그릇, 컵, 포크, 나이프) 사용금지, 캔 음료 판매금지 • 음료는 반드시 보증금 표시가 된 회수용 병에 판매 등
가방배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낭이나 큰 가방은 허용되지 않음 • 작은 가방에 들어갔을지라도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 부식성 물질, 염색 물질, 유리병, 날카로운 물건 등 소지 불가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도 오후 8시 이후 텐트 입장불가 • 대형유모차는 안전요원의 점검을 받아야함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옥토버페스트를 위해 대형 맥주 천막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바이에른의 전통 관악곡만 음량 85dB(데시벨) 이하로 연주할 수 있음 • 대중음악과 파티음악은 오후 6시 이후에 연주 가능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텐트 안에서는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됨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은 옥토버페스트에서 언제든지 허용되지 않음

자료 :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뮌헨 시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옥토버페스트” 검색(2018.05.08.); 손수연(2018)을 참고하여 작성.

(3) 2018 옥토버페스트 분석

- 2018년 옥토버페스트는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독일 뮌헨 시의 테레지엔비제에서 개최될 예정임. 본 연구는 축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2018년도 옥토버페스트의 내용을 검토함

[표 5-4] 2018 옥토버페스트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옥토버페스트(Oktobertfest)
기간	2018.09.22.~2018.10.07. (16일간)
장소	테레지엔비제(Theresienwiese)
주최	뮌헨(München) 시
후원	아우구스티너, 하커 프쇼르, 호프브로이, 뢰벤브로이, 파울라너, 슈파텐

자료 :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 옥토버페스트의 주요 행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진, 맥주통 개봉, 민속 의상과 소총부대 퍼레이드, 야외 옥토버페스트 음악 행사 등임

- 축제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건인 고령의 나이, 장애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함
 - 옥토버페스트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령자 우대의 날로 지정하여, 14개의 대형텐트에서 방문한 모든 노령자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며, 화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
 -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로 모든 텐트에 휠체어를 위한 넓은 자리와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그 동반자는 인파에 시달리지 않고 곧바로 축제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류장마다 구조단체가 대기하고 있는 등 다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자 함(손수연, 2018)
- 옥토버페스트 행사장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뮌헨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임. 가까운 곳에 주차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진



양조장 마차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



소총부대 퍼레이드



소총부대 퍼레이드



야외 옥토버페스트 음악연주



바이에른 민속 의상 퍼레이드

자료 :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 홈페이지;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그림 5-2] 옥토버페스트 전경

[표 5-5] 2018 옥토버페스트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첫 번째 날인 토요일 오전에 축제 주최자, 맥주 회사 관계자, 상인, 공연자 등 1,000여 명이 뮌헨 거리행진을 하며 공식적으로 축제 시작을 알림 • 뮌헨 시를 상징하는 ‘뮌헨의 아이’(Münchner Kindl)와 뮌헨 시장을 태운 화려한 마차가 행렬을 이끌며 맥주통을 실은 맥주 회사의 마차, 공연자, 상인, 악단 등이 뒤따름
맥주통 개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첫날인 토요일 정오가 되면 쇼텐하멜(Schottenhamel) 천막에서 ‘뮌헨의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뮌헨 시장이 첫 번째 맥주통을 개봉함. 이 때 “오 차프트 이스”(O’zapft is: ‘맥주통이 열렸다!’는 의미의 바이에른식 표현)라고 외침으로써 옥토버페스트가 시작됨
민속의상 및 소총부대 퍼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토버페스트의 첫 번째 일요일이자 축제의 둘째 날 오전에 각종 민속 의상을 차려 입은 사람들, 행진밴드, 소총수, 서러브레드 말, 소, 염소, 뮌헨 양조장의 장식된 마차, 무용수, 트럼펫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약 9,000명의 인원이 바이에른주 의회 건물 막시밀리아네움(Maximilianeum)을 출발해 뮌헨 시내를 가로질러 축제가 열리는 테레지엔비제(Theresienwiese)까지 2시간~2시간 30분 소요되는 7km의 거리를 행진함 • 1835년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1세와 테레제 왕비의 은혼식을 축하하며 열린 민속의상 퍼레이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민속의상 퍼레이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
야외 옥토버페스트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두 번째 일요일에 약 400명의 뮤지션과 함께 옥토버페스트 밴드 전체의 야외 콘서트가 열림

자료 : 다빈치 축제 편집팀(2016): 259-261;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 참고.

2)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1)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개요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은 음악, 오페라, 무용, 연극분야 등에서 활약하는 여러 나라의 초청팀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축제로,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매년 8월에 3주 동안 개최됨(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문화 부흥에 기여하고자 1947년 처음 개최
- 1990년대부터는 엘리트 예술의 비중을 줄이고, 대중을 위한 공연과 행사를 늘리면서 대중성 높은 축제로 변화해 옴
- 1999년 7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축제 담당 기관인 허브(The Hub)를 설립함(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전체를 축제의 장소로 기획한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축제를 통한 지역 발전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류정아, 2003)

(2)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종류와 특징

-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여러 종류의 축제들이 결합된 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모여 형성됨(손수연·황기식, 2018)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열리는 8월을 전후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어린이 페스티벌,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에든버러 재즈 & 블루스 페스티벌, 에든버러 아트 페스티벌,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등 십여 개의 축제가 함께 개최되며, 이 전체를 아울러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고 함(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 다양한 장르와 대상을 위한 여러 축제로 구성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됨

[표 5-6] 2018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종류와 특징

종류	축제일정	특징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어린이 페스티벌	5.26 ~6.3	• 1990년에 시작되었고 9일간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에서 무료 팝업 공연과 예술 활동이 열림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6.20 ~7.1	• 1947년에 시작되어 영화작품을 발굴·홍보해 세계적인 영화 제작의 변화를 예고 및 토론함
에든버러 재즈 & 블루스 페스티벌	7.13 ~7.22	• 1978년 밴조 연주자이자 기타리스트인 마이크 하트가 만든 축제임 • 원래 정통재즈를 주제로 대중 주점에서 무료공연을 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르도 현대재즈와 스윙 등으로 확장됨
에든버러 아트 페스티벌	7.26 ~8.26	• 2004년에 시작됨.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스코틀랜드 현지의 동시대 예술현장을 볼 수 있으며 전시, 공연, 예술가와의 대화 및 가이드 투어가 포함됨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8.3 ~8.27	• 1947년에 시작됨. 무용, 오페라, 음악, 연극 등 다양한 공연예술로 구성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8.3 ~8.27	• 프린지(fringe)는 '주변'이나 '언저리'라는 뜻으로 1947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극단 8개가 모여 소규모 극장에서 공연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58년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가 설립됨
로열 에든버러 밀리터리 태투	8.3~8.25	• 밀리터리 태투는 '군악대의 북 연주'를 의미함 • 1950년대부터 공연형태로 발전해 전통 스코틀랜드 백파이프와 북소리가 현대적인 군대의 모습과 어우러짐. 오늘날엔 40여개 국가의 연주자들이 참가함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	8.11 ~8.27	• 1983년 시작되어 처음엔 격년제로 열렸으나 1997년부터는 매년 열리게 됨 • 축제 첫해에는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소규모 행사였으나 현재는 800개 이상의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
스코틀랜드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10.19 ~10.31	• 1989년에 시작되었고 스토리텔링 공연, 워크숍,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됨
에든버러 호그마니	12.30 ~2019.1.1	• 비공식 거리 파티였으나 1993년 이후 공식적으로 조직화됨 • 호그마니(Hogmanay)는 '새해 전날'이라는 스코틀랜드 단어이며, 2018년에는 새해 2일 전부터 새해 첫날까지 3일 동안 가든 콘서트, 강물에 몸을 던져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루니 독(Loony Dook), 캔들릿 콘서트(Candlelit Concert) 등의 행사가 진행됨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페스티벌	3.29 ~4.13	• 1989년부터 개최됨. 매년 부활절 기간에 2주간 열리며 토론, 워크숍, 공연, 상영, 특별 행사 및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

자료 : 에든버러 페스티벌 홈페이지;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 홈페이지;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페스티벌 홈페이지; 에든버러 호그마니 홈페이지; 위키백과(영어판) "Edinburgh's Hogmanay" 검색(2018.05.29.); 스코틀랜드 전통예술문화 홈페이지; 다빈치 축제 편집팀(2016), 214-219쪽 참고.

[표 5-7] 2018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일정

2018년						2019년		
5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	1월	3월	4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어린이 페스티벌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에든버러 아트 페스티벌		스코틀랜드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에든버러 호그마니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페스티벌
		에든버러 재즈 & 블루스 페스티벌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로열 에든버러 말리터리 태투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					

주 :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페스티벌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에든버러 페스티벌 홈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하여 연구자 직접 작성.

(3) 2018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분석

- 2018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리스 극장(Leith Theatre),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Palace of Holyroodhouse), 페스티벌 스퀘어(Festival Square), 로스극장 & 프린세스 스트리트 정원(Ross Theatre & Princes Street Gardens) 등에서 개최됨
- 본 연구는 축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2018년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주요내용을 검토함

[표 5-8] 2018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기간	2018.08.03.~2018.08.27. (25일간)
장소	에든버러의 리스 극장,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 페스티벌 스퀘어, 로스극장 & 프린세스 스트리트 정원, 어셔 홀, 스튜디오(The Studio), 퀸스 홀, 킹스 극장, 허브(The Hub), 페스티벌 극장, 에든버러 플레이하우스, 처치 힐 극장, 라이시엄
주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협회

자료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홈페이지.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크게 음악(클래식·동시대), 오페라, 무용, 연극 분야의 세계적 연주자·예술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

[표 5-9] 2018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음악	클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 클래식 솔로 및 듀오, 앙상블 공연 • 2018년 유로비전 영 뮤지션콩쿠르 등
	동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n Cumming Presents Club Cumming, Anna Meredith & Southbank Sinfonia, Celtic Connections 등
오페라	• 헨젤과 그레텔, 라 체네렌톨라, 세비야의 이발사 등
무용	• 자서전(Autobiography), 콜드 블러드(Cold Blood), 호커스 포커스(Hocus Pocus), 홈(Home) 등
연극	• 세 신분(성직자·귀족·평민)에 대한 풍자(Ane Satyre of The Thrie Estaitis), 에디의 최후(The End of Eddy),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 등
토크&워크숍	•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인카운터(International Festival Encounters), 권력·성·예술 등

주 : 분류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음.

자료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고.

- 젊은 음악가 여권(Young Musician's Passport) 소지자들은 8월동안 어셔 홀과 퀸스 홀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 콘서트의 무료 티켓 1장과 반값의 티켓 1장을 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페스티벌 관람 기회를 높임과 동시에 축제 홍보 효과를 얻음

- 신청자격은 ①18세 이하, ②에든버러 또는 로디언(Lothians)주의 학생, ③악기를 연주하거나 합창단 일원이면 됨(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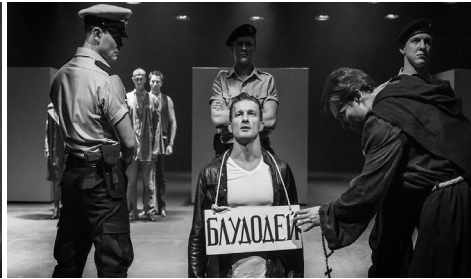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



오페라



무용



연극



야외 이벤트(불꽃놀이)



창의적 학습

자료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홈페이지.

[그림 5-3]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전경

3) 메르세 축제

(1) 메르세 축제 개요

- 메르세 축제(La Mercè Festival)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에서 도시를 수호하는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기리는 종교 축제로, 카탈루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자비로운 신의 어머니(La Mare de Déu de la Mercè)’라고 부르며 메르세 축제는 ‘성모 마리아의 축제’를 의미함(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 1687년 바르셀로나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이후 시 의회는 성모 마리아를 바르셀로나 시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이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매년 이어지게 됨(메르세 축제 홈페이지)
- 메르세 축제는 바르셀로나 시에서 공식 휴일로 지정한 ‘자비의 성모 마리아’ 축일인 9월 24일을 전후로 개최되며 1902년 공식화 되었음
 - 1868년 교황 피우스 9세(Pius IX)가 성모 마리아를 바르셀로나 시의 수호성인으로 공식 인정했으며 1871년 ‘자비의 성모 마리아’ 축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이 축제는 마리아가 성인으로 공인되기 전부터 개최되어 왔다고 전해짐(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2) 메르세 축제 특징

- ‘코레폭(Correfoc)’은 카탈루냐어로 ‘달리는 불꽃’ 또는 ‘불이 달린다’는 뜻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날 밤에 불꽃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시내를 질주하는 행사임(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 코레폭은 웅장한 불꽃놀이로 시작하는데 이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악마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상징하며, 이때는 참가자들 및 관람객 모두 불꽃에 대비하여 안전한 복장을 갖추고 참가해야 함
- ‘인간 탑 쌓기(Castellers)’ 행사는 코레폭과 함께 메르세를 대표하는 행사임. 카탈루냐어로 ‘카스텔(Castell)’은 ‘성’이라는 뜻으로 카탈루냐 주민은 이를 ‘인간 탑’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함. 인간 탑 쌓기는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 인간 탑을 쌓을 때 어린이들과 십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 이는 이전통이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도우며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함
- ‘메르세 책 박람회(Mercé Book Fair)’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에스파냐어나 카탈루냐어로 된 신간과 구간 도서, 소수의 외국 서적도 취급(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 바르셀로나의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은 메르세 축제 기간 중 무료입장하는 ‘메르세 박물관 오픈 데이(Jornada de Portes Obertes Mercé)’를 운영함(다빈치 축제 편집팀, 2016)

[표 5-10] 메르세 축제 특징

구분	내용
코레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폭은 카탈루냐어로 ‘달리는 불꽃’, ‘불이 달린다’는 의미 • 참가자들 및 관람객 모두 불꽃에 대비하여 안전한 복장을 갖추고 참가해야 함
인간 탑 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단체의 참가자들이 시청의 발코니 앞의 광장에서 6층~10층 높이의 인간 탑을 만드는 행사임 •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인간 탑을 쌓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방식은 인간 탑 단체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세대 간에 전승되어 왔으며, 이는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메르세 책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세 책 박람회에는 에스파냐어나 카탈루냐어로 된 신간과 구간 도서, 소수의 외국 서적도 취급
메르세 박물관 오픈 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세 축제 기간 중 바르셀로나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무료입장하는 날을 의미함

자료 : 다빈치 축제 편집팀(2016), 267-269쪽;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참고.

(3) 2017 메르세 축제 분석

- 2017 메르세 축제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역에서 개최되었음
- 본 연구는 축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2017년도 메르세 축제의 내용을 검토함
 - 2018년 메르세 축제는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바르셀로나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임

[표 5-11] 2017 메르세 축제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메르세 축제(La Mercè Festival)
기간	2017.9.22.~2018.9.25. (4일간)
장소	바르셀로나(Barcelona) 시 전역 • 광장: 산 자우메 광장(Plaça de Sant Jaume), 카탈루냐 광장(Plaça de Catalunya), 메르세 광장(Plaça de la Mercè), 왕의 광장(Plaça del Rei), 천사의 광장(Plaça dels Àngels), 노바 광장(Plaça Nova), 레이알 광장(Plaça Reial), 주안 꾸루미나스 광장(Plaça de Joan Corominas), 마요르 데 노우 바리스 광장(Plaça Major de Nou Barris) • 대로·거리: 레이나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로(Avinguda Reina Maria Cristina), 대성당 대로(Avinguda de la Catedral), 람블라 델 라발(Rambra del Raval) • 공원: 포룸 공원(Parc del Fòrum), 산트 마르티 공원(Parc de Sant Martí), 트리니타트 공원(Parc de la Trinitat), 시우타데야 공원(Parc de la Ciutadella) • 해변·부두: 바르셀로네타 해변(Platja de la Barceloneta), 보가텔 해변(Platja del Bogatell), 몰 데 라 푸스따(Moll de la Fusta) • 건물: 바르셀로나 대성당, 바르셀로나 시청, 몬주익 성(Castell de Montjuic), 알베니즈 작은 궁전(Palauet Albéniz), 베레이나 저택(Palau de la Virreina), 안티가 파브리카 에스트레야담(Antiga Fàbrica Estrella Damm), 파브라 이 코츠(Fabra i Coats)
주최	바르셀로나 문화 협회(Institut de Cultura de Barcelona)

자료 : 메르세 축제 홈페이지.

- 메르세 축제는 크게 ‘전통축제 프로그램’, ‘메르세의 음악과 BAM’, ‘빛과 불의 축제’, ‘서커스’, ‘거리예술’, ‘가족활동’ 등으로 구성됨
- ‘전통축제 프로그램’에는 개막연설(프레고), 인간 탐 쌓기, 세구이시, 삼방가, 코레폭, 카발카다 메르세 등이 있음
- ‘메르세의 음악과 BAM’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음악공연뿐만 아니라, 아스투리아스, 칠레, 쿠바, 대한민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 및 장르의 음악공연이 이어지고, 시내 곳곳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됨
- ‘빛과 불의 축제’에서는 바르셀로나시 청사 파사드 프로젝트 쇼가 펼쳐지며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는 뮤지컬’ 음악 쇼가 진행됨

○ 그 외 몬주익 성(Castell de Montjuic)에서 서커스, 거리예술(arts de carrer), 안티가 파브리카 에스트레야에서 가족활동 행사 등이 운영됨

[표 5-12] 2017 메르세 축제 주요 프로그램

전통축제		
메르세 축제 개막연설	◦ 산 자우메 광장(Placa de Sant Jaume)의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개막 연설(Pregó, 프레고)을 함	
인간 탑 쌓기 (Castellers)	◦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놀이로 사람들이 모여 인간 탑을 쌓는 행사가 진행됨	
세구이시 (Seguici de la Merce)	◦ 거인 행렬이 메르세 광장(Placa de la Merce), 암플레 거리(Carrer Ample), 레고미르 거리(Carrer de Regomir), 시우타트 거리(Carrer de la Ciutat), 산 자우메 광장으로 행진함 ◦ 거인과 인형들의 행진은 중세부터 내려온 바르셀로나의 민속전통이며, 이들은 전통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행진함	
삼방가 (Xambanga)	◦ 바르셀로나의 각 지역에서 모여든 거인들의 행렬이 이어짐	
코레폭 (Correfoc)	◦ 밤에 불꽃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시내를 달리는 불꽃 달리기 행사가 진행됨	
카발카다 메르세 (Cavalcada de la Merce)	◦ 메르세 축제에서 가장 큰 행렬로, 자우메 1세와 그의 왕비 비올란트의 형상을 한 거인을 비롯하여, 거리 예술가, 무용수, 카탈루냐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짐	
메르세의 음악과 BAM(Barcelona Acció Musica)		
나라지역	공연팀명	공연장르
아스투리아스	◦ BAM: Pablo und Destruktion	◦ rock song
바르셀로나	◦ Petitet i la seva rumba simfonica ◦ Conservatori del Liceu: SuperSax Project ◦ Mishima: Ara i res ◦ Los Retrovisores ◦ Banda Municipal de Barcelona ◦ Amadeu Casas: The King is Gone ◦ Barcelona Gipsy Balkan Orchestra	◦ rumba ◦ jazz ◦ indie pop ◦ soul, garage, pop ◦ symphonic ◦ blues ◦ world music
	◦ Jordi Molina Septet: Matèria del temps ◦ Sopa de Cabra ◦ Manel: Jo competeixo ◦ Txarango: El cor de la terra ◦ Rumberos, pugin a l'escenari!	◦ folk ◦ rock ◦ indie pop ◦ dub, fusion ◦ rumba
카탈루냐 & 칠레	◦ BAM: The Zephyr Bones	◦ pop, rock, psychedelia
쿠바	◦ BAM: La Dame Blanche	◦ Latin American street music
에티오피아	◦ BAM: Hailu Mergia	◦ jazz, funk
프랑스	◦ BAM: Chassol ◦ BAM: Acid Arab	◦ pop, contemporary ◦ traditional middle eastern, electronic
	◦ BAM: Bala ◦ BAM: Malandromeda	◦ rock ◦ hip-hop

나라지역	공연팀명	공연장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 Nilufer Yanya ◦ BAM: Ray BLK ◦ BAM: Marika Hackman ◦ Anna Meredith ◦ BAM: United Vib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B, soul, pop ◦ hip-hop, R&B ◦ song-rock ◦ electro pop ◦ afrojazz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 Miss Red ◦ BAM: A-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cehall ◦ traditional middle eastern & electronic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ero Pesce & Questioni Meridionali Folk: TransHumus ...oltre la.. ◦ Bella Ciao&Jaume Arnel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lk ◦ folk
자메이카	◦ BAM: Equiknoxx feat. Shanique Marie	◦ dancehall
런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Family Atlantica: Cosmic Unity	◦ folk, jazz, dance
네덜란드	◦ BAM: Jungle by Night	◦ afrobeat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 Sensible Soccers ◦ BAM: Gala Drop ◦ BAM: Pega Mons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g pop ◦ rock ◦ punk pop, dream pop
포르투갈 & 베네수엘라 & 영국	◦ BAM: Fumaca Preta	◦ tropical psychedelia
대한민국	◦ BAM: Idiotape	◦ EDM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M: Spiral Stairs ◦ BAM: Girlpool ◦ BAM: Endless Boog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ck ◦ punk-folk ◦ krautrock, Southern rock
베네수엘라	◦ La Vida Boheme: La Lucha	◦ alt-rock

빛과 불의 축제

프로젝션 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2일 오후 10시 45분/ 9월 23일 오후 8시 30분/ 9월 24일 오후 8시 45분/ 9월 25일 오후 8시 30분 ◦ 축제가 진행되는 매일 밤 산 자우메 광장의 바르셀로나시 청사 정면을 스크린으로 하여, 시청 파사드 프로젝트 쇼가 펼쳐짐
피로뮤지컬 (Piromus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5일 오후 10시 ◦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쇼로, 음악과 불꽃, 조명이 몬주익의 마법의 분수(Font màgica de Montjuïc)와 어우러짐

주 : '음악과 BAM'은 주요 프로그램을 지역 중심으로 다시 분류하여 요약정리함.

자료 : 메르세 축제 홈페이지 참고.



인간 탑 쌓기



코레폭



공연



공연



BAM



프로젝션 쇼



가족 활동



거인 퍼레이드

자료 : 메르세축제 홈페이지의 시청각(Audio visuals)자료 중 “Dissabte 23 Merce Musica i BAM”, “Merce 2017: Tradicional Diumenge24”, “Mercè 2017: Tradicional”, “Mercè 2017: Mercè Arts de Carrer”, “Gaudeix del MAC Festival!” 영상에서 가져옴

[그림 5-4] 2017 메르세 축제

3.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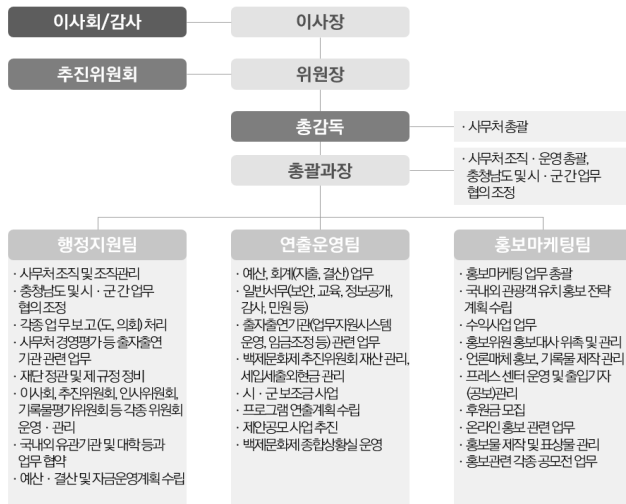
1)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1) 백제문화제 개요

- 백제문화제는 1955년 부여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백제 말 3층신(계백, 흥수, 성충) 제향과 낙화암에서 백마강에 몸을 던진 백제 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재를 거행하면서 시작됨
- 제12회를 맞은 1966년부터는 공주와 부여가 동시에 백제문화제를 진행하다가 1979년부터 격년제(공주: 홀수해, 부여: 짝수해)로 개최했고, 2007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주와 부여가 매년 백제문화제를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변화해 옴(백제문화제 홈페이지)

(2) 백제문화제 운영 조직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특히 웅진 및 사비 시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적 운영계획을 통하여 백제 문화제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육성시키고자 설립됨
 - 추진위원회의 이사회에는 공주시장, 부여군수 등이 소속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는 업무특성에 따라 행정지원팀, 연출운영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분
 - 행정지원팀에서는 추진위원회 조직의 운영 및 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연출운영팀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을 맡고, 홍보마케팅팀은 백제문화제를 효과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 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단지 및 백제역사문화관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이들 기관과 백제문화제 운영·발전을 위한 정보 및 인적 자원을 교류하기에 용이할 것이라 예상됨



자료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그림 5-5]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도

- 2018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총 예산 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76억 원으로 충청남도(약 18억), 공주시(28억), 부여군(28억), 기타 임시수입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마련됨
- 2018년도의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8억 증액되었고 충청남도가 총 예산의 24%, 공주시·부여군이 각 37%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투입

[표 5-13] 2017~2018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과목	2017	2018년	증감
총 예산	5,800,000	7,550,000	1,750,000
출연금	소계	5,500,000	1,880,000
	도	1,500,000	280,000
	공주	2,000,000	800,000
	부여	2,000,000	800,000
임시수입	20,000	15,100	△4,9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0,000	154,900	△125,100

자료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a), <2018 예산 및 운영계획>.

- 2018년도 총 예산 중 52억 원은 공주시와 부여군의 운영 사업에, 약 24억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예산으로 책정
 - 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제 연출·운영에 약 7억, 홍보·마케팅에 약 6억, 행정·지원에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9억4천만 원은 행정 운영경비에 사용

[표 5-14] 2017~2018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과목		2017	2018년	증감
총 예산		5,800,000	7,550,000	1,750,000
시 군		3,600,000	5,200,000	1,600,000
추진위		2,200,000	2,350,000	150,000
목적 사업	소계	1,400,000	1,410,000	10,000
	연출운영	870,000	715,000	△155,000
	홍보마케팅	500,000	642,000	142,000
	행정지원	30,000	53,000	23,00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800,000	940,000	140,000
	인건비	495,331	477,161	△18,170
	행정운영비	238,780	346,432	107,652
	청사운영비	50,000	65,000	15,000
예비비		15,889	51,407	35,518

자료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a), <2018 예산 및 운영계획>.

- 백제문화제 운영에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주시, 부여군이 맡는 역할은 구분되어 있음
- 추진위원회는 대표 프로그램 개발, 학술회의 및 국내외 교류업무, 홍보물 제작배부, 프레스센터 운영·홍보대사 위촉, 안내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 홍보, 후원사·수익사업 발굴 및 유치, 상품화 사업, 기업 참여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
- 공주시와 부여군은 백제문화 및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관람객 안전보험 가입,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 및 교통대책 마련, 숙박시설 및 음식점소 수용대책 등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업무 운영을 주로 담당함

[표 5-15]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공주시·부여군의 역할

구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주시·부여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 프로그램 개발 개·폐막식 의전업무 총괄 학술회의 및 국내·외 교류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폐막식 운영 백제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제례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백제문화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상황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관람객 안전보험 가입 편의시설 설치운영: 종합안내소, 의료지원시설 등 시설물 안전 및 교통대책: 주차장 시설 등 잡상인 대책 및 행사장 경호 행사장 기반시설
홍보 및 관람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영상, 리플릿 등 제작배부 수도권 등 옥외광고 및 현장홍보 협력방송사 선정 및 운영 홍보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 홍보 프레스센터 운영, 홍보대사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지 홍보물 설치: 현수막, 깃발, 홍보탑 등 축제현장 방문 관광객 유치 등 숙박시설, 음식점소 수용대책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사·수익사업 발굴 유치 상품화 사업(기념품) 기업 참여방안 수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후원사업 유치 식품료 판매사업 임대사업,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자료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b), <2018 주요업무계획>.

(3) 2017 백제문화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백제문화제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2017년도 제 63회 백제문화제의 내용을 검토함
 - 2018년 제64회 백제문화제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 약 9일간 공주와 부여 지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임
- 2017 백제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공주시 및 부여군 지역 일원에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됨

[표 5-16] 2017 백제문화제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2017 제63회 백제문화제
기간	2017.9.28.~2017.10.5. (8일간)
장소	공주 및 부여 지역 일원
주최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주관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후원	한국관광공사, 농협, 한화, 맥시스컴퍼니

-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①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프로그램, ②공주시 프로그램, ③부여군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추진위원회 프로그램은 주로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됨
 - 주제공연, 미디어아트 쇼, 해외 초청공연 등이 진행됐고, 특히 퍼레이드는 두 지역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별해 상호 방문·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역 간 문화교류에도 기여함
- 공주시 행사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공식·대표 프로그램, 야간 행사, 제례불전, 전시, 문화예술, 경연,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분
 - 공주시에서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에는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쇼, 웅진백제 4대왕 추모제 등의 각종 제례, 백제 문화 볼거리 및 체험행사 등이 포함됨
- 부여군에서는 부여수륙대제와 같은 불교행사와 함께 백제사비천도행렬, 백제대왕제 및 삼층제를 포함한 제례불전, 백제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향토행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 및 백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표 5-17] 2017 백제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공연: 폐막식 무대 공연 한류백제 미마지 미디어아트 쇼 해외 초청공연: 백제 해외 교류국 예술단 초청 공연 통합 퍼레이드: 공주시·부여군 대표 퍼레이드 프로그램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상호 방문·결합해 교차 진행하는 화합의 한마당 	
공주	공식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막식: 식전공연-오프닝쇼-축하공연 및 불꽃쇼로 구성 세계유산 등재 2주년 기념 축하쇼 웅진판타지아: 세계유산 공산성을 배경으로 금강 위에서 펼쳐지는 멀티미디어쇼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무령왕 이야기 역사문화 체험 “백제마을 고마촌”: 다양한 테마촌을 통해 백제 생활문화를 직접체험하고 엿보는 교육적 프로그램
	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빛과 이야기가 있는 “백제등불향연”: 무령왕 승전식유등, 백제유등, 황포돛배, 고마나루이야기 유등, 백제와 공주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상징 등의 향연
	제례 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웅진백제4대왕 추모제, 무령왕 현공다례, 영산대제 등 전통민속예술공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내 고장 민속공연을 보존하고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제 수석연합전시회, 세계유산등재 2주년 사진전시(아이러브 세계유산도시 공주) 등
	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예술인 및 동아리 프린지 공연, 초·중·고등학생 백제문화 씨알의 어울림, 국악한마당, 백제 혼불 재화, 무령왕이 깨어나다-백제 제례악무용 시연, 무령왕 인형극 등
	경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제기념 제5회 시장기 전국남녀도궁대회 등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 전통놀이 체험, 백제 기마문화체험, 백제풍경전, 백제의 술 충남을 만나다 등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 밤마실 야시장, 공주산성시장 프리마켓 등
부여	주요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막식: 주제공연, 공식행사, 축하공연, 폐막 불꽃쇼 백제역사문화행렬 백강의 노래: 백강에서 벌어진 해상 전투와 백제 부흥을 꿈꿨던 민초 이야기를 그린 국악 뮤지컬 백제사비정도 고유제: 백제 중흥을 위해 사비로 도움을 옮긴 제26대 성왕의 정도고유제 재현 부여수륙대제: 백제의 역대 군왕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산화하신 수많은 무명 장졸들의 영가를 위한 불교행사 백제사비천도행렬: 백제 26대 성왕이 백제중흥의 응지를 품고 부여 사비성으로 천도하는 행렬 재현
	제례 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천제: 계백장군의 유허지인 천등산정 채화단에서 백제혼불 재화를 위한 고천제

구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충제: 백제 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분투한 팔충신과 황산벌 전투에서 구국의 한을 안고 장렬히 전사한 오천결사대의 넋을 추모하는 제(祭)의식 ◦ 백제대왕제: 사비로 도읍을 옮긴 후 제도를 정비하고 높은 문화국가로 발전시켜 신라와 일본국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6대왕의 성덕을 추모하는 제(祭)의식 ◦ 삼충제: 백제 칠백년 사직이 위란에 처하였을 때 충간과 살신으로 충의를 빛내신 삼충신(성충·홍수·계백)을 추모하여 혼을 기리기 위한 제(祭)의식 ◦ 유왕산 추모제, 궁녀제, 오천결사대 충혼제, 삼산제 등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테마로드전시관, 세계유산등재 관련 사진전, 백제 왕흥사 창건 1440년 기념 특별전 등
경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백제 토기 경연대회, 백제술·음식 만남의 날 경연대회 등
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 축하가요제, 계백의 꿈, 한중문화교류공연, 백제기악 미마지 탈춤극 공연, 지역단체 연계 전통공연, 백제 난장판 놀음, 백제의 울림 등
지역 전통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산 별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는 백제군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향토행사 ◦ 세도면 산유화가, 세도면 장군제, 부여읍 용정리 상여소리 등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VR체험, 백제문화체험 ‘탐본체험교실’, 백제마보무예 체험 및 공연, 부여사비투어 등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 굿뜨래 농민장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판매

자료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백제역사문화행렬(부여)



유왕산 추모제(부여)



백제문화제 야경(공주)



영산대제(공주)

자료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그림 5-6] 2017 백제문화제

2)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1) 한성백제문화제 개요

-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왕궁인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자리 잡았던 서울시 송파구에서 열리고 있으며,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2018년에는 제18회 차를 맞이함(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 백제 초기 500여 년 간의 한성백제 융성기를 재현한 체험형 역사문화 축제로, 2014년부터 연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송파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 등급(글로벌육성축제·대표축제·최우수축제·우수축제·유망축제·육성축제) 중 ‘육성축제’에 해당함

(2)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직

-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가 주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
- 송파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의 축제진흥팀이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음
 - 송파구 문화체육과 축제진흥팀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과 함께 한성백제문화제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안전관리, 홍보체험부스 운영, 인력운영, 홍보, 사이버 홍보단 운영 및 자원활동가 관리, 행사용 물품관리 등을 수행함(송파구 홈페이지)
-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을 위한 총 예산은 10억 원이며, 서울시비(2억 2천만 원), 송파구비(3억 1천만 원), 기부기금(4억 7천만 원)으로 마련되었음

[표 5-18] 2017~2018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예산

(단위: 천원)

과목	2017	2018년	증감	
총 예산	1,064,000	1,000,000	△64,000	
출연금	국비	84,000	-	84,000
	서울시비	200,000	220,000	△20,000
	송파구비	310,000	310,000	-
	기부기금	470,000	470,000	-

자료 : 송파구 문화체육과 내부자료 협조받음.

- 2018년도의 예산은 2017년도 대비 6천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대신 서울시가 지원 예산을 2천만 원 증액함
- 201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의 등급(대표축제·최우수축제·우수축제·유망축제)에 따라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지원해 옴
- 그러나 2018년부터는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이 ①글로벌육성축제, ②대표축제, ③최우수축제, ④우수축제, ⑤유망축제, ⑥육성축제로 나뉘어졌고, '육성축제'의 경우 예산 지원 없이 홍보 및 컨설팅 지원을 받음
-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는 '육성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평가 등 실사를 통해 내년도에 예산 지원이 있는 ‘유망축제’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게 됨

(3) 2017 한성백제문화제 분석

- 본 연구는 2017년도 제17회 한성백제문화제의 내용을 검토함
 - 2018년 제18회 한성백제문화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임
- 2017년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송파구 주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됨

[표 5-19] 2017 한성백제문화제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2017 제17회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2017.9.21.~2017.9.24. (4일간)
장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주최	송파구
주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한성백제문화제는 크게 ①대표 프로그램, ②볼거리, ③즐길거리, ④먹을거리, ⑤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한성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에는 동명제, 한성백제 혼불채화식,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한성백제 체험마을,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이 있음

[표 5-20] 2017 한성백제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행사명
대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명제(제21회 백제고분제): 493년간 한성백제시대를 꽃피운 왕들에 대한 제사 • 한성백제 혼불채화식(진혼무, 칠선녀, 채화식 등): 풍납토성(한성백제 왕성)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혼불 채화 •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행사장을 순회하며 한성백제 주요 왕(은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개로왕)과의 즐거운 만남 • 한성백제 역사문화거리행렬: 관광객 참여형 퍼레이드 • 한성백제 체험마을: 2천년전 한성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재현한 체험마을
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 등불거리: 한성백제 등불거리 •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대중음악,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 백제 각저: 삼국시대 전통놀이인 씨름 한마당 • 한성백제문화제 연계 테마전시: 백제유적 출토 중국 도자 • 개막제 및 주제공연: 2천년전 서울, 송파! 한성백제 왕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공연 • 한성백제 착한콘서트: 소외계층 등을 위한 나눔 콘서트 • 한성백제문화제 특별공연: 처용무, 판소리, 솟대쟁이패, 매사냥, 교방축원무, 줄타기, 태권, 아리랑, 교방장구춤, 농악, 탈춤 등 • 제26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 송파구민을 위한 구민의 날 행사 • 제14회 한성백제 어울마당: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어울마당 • 평화의 광장 야외 콘서트: 동서양의 만남 '오페라 공연' • 폐막제 및 불꽃놀이 • 한성백제 왕들을 만나다: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은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개로왕의 업적에 대한 공연 • 한성백제 학술대회: 백제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 한성백제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 송파산대놀이: 송파동과 가락동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
즐길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놀이, 문화체험, 일반체험부스 등 • 한성백제 매 체험: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매' 체험 행사 • 근초고왕 어가행렬: 근초고왕이 되어보는 어가체험
먹을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및 세계 먹거리 장터
어린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 성곽돌기: 소원등 들고 몽촌토성 돌기 • 한성백제 별 헤는 밤: 우리 별자리 등을 만들어 꿈마을 몽촌토성 역사 속으로 걷기 • 도전! 한성백제 박사 퀴즈: 한성백제 역사 및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OX퀴즈로 풀어보는 퀴즈 한마당

자료 :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한성백제성곽돌기



축성놀이



어울마당



송파산대놀이

주 :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에는 2016년도 자료사진까지 등록되어 있어 ‘2016 한성백제문화제’ 현장사진을 참고함

자료 :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그림 5-7] 2016 한성백제문화제

3) 부안 오복마실축제

(1) 부안 오복마실축제 개요

-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마실’로 대표되는 부안의 푸근한 인심과 정을 이웃과 더불어 나눈다는 의미의 축제로서 매년 5월 개최됨(부안 오복마실축제 홈페이지)
- 2018년 부안 오복마실축제의 슬로건은 ‘부안오복마실 거리(路)에서 찾은 여유’로 부안에 마실 나와 오복거리(풍복이 소리거리, 강복이 체험거리, 재복이 장터거리, 휴복이 놀이거리, 자복이 추억거리)에서 즐기고 체험하며 오복(福)을 받는 참여형 축제임
- 2018년 제6회를 맞은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2012년에 제1회 ‘부안 마실축제’로 시작하여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부안 오복마실축제’로 개칭됨

- 지역설화(수성당 개양할미 설화)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킨 우수사례라 할 수 있음

[표 5-21] 부안 오복마실축제의 역사적 의미

설화	내용
수성당 개양할미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에는 칠산 앞바다를 지키는 개양할미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8명의 딸이 있었고 전국 8도의 각지를 지키도록 함 • 개양할미에게는 하늘의 보물인 5개의 구슬이 있었는데 이 구슬은 각각 성공, 건강, 재물, 휴식, 사랑을 주는 복이었음 • 개양할미는 곰소앞바다 게란여(뚝병)를 메우다가 하늘의 보물인 5개의 구슬을 잃어버림 • 개양할미는 화가 나서 칠산 앞바다에 큰 재앙을 내림 • 부안사람들은 개양할미를 달래기 위해 오복구슬을 찾게 해 달라는 뜻의 오색 뱃기를 달아 위도 떠뱃놀이를 하며 당신굿을 지냈고, 8도에 나가있는 8명의 딸들도 오복구슬을 찾기 위해 당신제를 지내게 됨 • 하늘은 이에 감복하여 개양할미에게 오복구슬을 찾아주었고, 개양할미도 부안사람들과 8명의 딸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생명의 싹이 움트는 5월이면 부안사람들과 전국 8도를 지키느라 고생한 딸들, 그 지역민들을 부안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하며 오복을 나누어 줌

자료 : 부안 오복마실축제 홈페이지.

(2) 부안 오복마실축제 운영 조직

- 2011년 7월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의 축제팀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효과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함(문화관광산업연구원, 2017, 87쪽)
- 부안군의 문화관광과가 축제 운영을 지원하고,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는 행사기획연출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총괄분과’, 행사기획연출을 위한 ‘기획분과’, 쓰레기대책 및 가로변 정비를 위한 ‘환경생태보전분과’, 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 및 각종 체험장을 운영하는 ‘체험행사분과’, 그 외에 ‘의전 및 홍보분과’, ‘행사진행분과’, ‘자원봉사분과’, ‘시설 및 교통분과’로 구성됨

□ 위원회명 :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 이석기)
 □ 구성인원 : 71명



자료 : 부안 오복마실축제 홈페이지.

[그림 5-8]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 조직도

- 2018년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의 총 예산은 8억 9천만 원으로, 국비(1억2천만 원), 전라북도비(7천만 원), 부안군비(7억 원)로 마련됨

[표 5-22] 2017~2018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 예산

(단위 : 천원)

과목	2017	2018년	증감
총 예산	890,000	890,000	-
출연금	국비	-	120,000
	전라북도비	70,000	70,000
	부안군비	700,000	700,000
	기부기금	120,000	-

자료 : 문화관광산업연구원(2017), <제5회 부안 오복마실축제 축제평가보고서> ;
 2018년도 예산은 부안 오복마실축제제전위원회 직접 문의함.

- 2018년도 예산의 총액은 2017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나 2017년도에 책정되었던 기부기금 1억 2천만 원 대신, 2018년도에는 국비 1억 2천

만 원이 투입되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8년도 전통분야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되면서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음
- 부안군은 오복마실축제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 ‘부안 오복마실축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음(문화관광산업연구원, 2017)
- 평가에는 경제효과, 전문가 평가, 축제 발전방안 항목과 함께 ‘방문객 설문조사’와 ‘지역 상인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축제와 지역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분석

- 본 연구는 2018년도 제6회 부안 오복마실축제의 내용을 검토함
 - 2018년 제6회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부안군 지역 일원에서 부안군 주최,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됨

[표 5-23]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2018 제6회 부안 오복마실축제
기간	2018.5.5. ~ 2018.5.7. (3일간)
장소	부안군 지역 일원
주최·주관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

- 축제의 주요 행사는 풍복이 소리거리, 자복이 추억거리, 재복이 장터거리, 강복이 체험거리, 휴복이 놀이거리로 나뉘며 각각의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그 외 복 받는 날 퍼레이드와 위도띠뱃놀이, 전통문화놀이가 번영로에서 운영되었음

[표 5-24]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p>풍복이 소리거리 (메인무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는마당-닫는마당: 식전공연, 공식행사 ◦ 이웃사촌 공연 한마당: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다른 지역의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 한마당 ◦ 결혼식때 한복입고 강강술래: 결혼식 때 한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함께 강강술래를 하는 대동한마당 ◦ 크로스오버 팝페라 콘서트, 오복이의 재롱잔치, 따로 또 같이! 플래시몹, 마술공연, 열린음악회
<p>강복이 체험거리 (강복이체험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민 공모 체험부스: 지역특산물 및 부안관련 체험 ◦ 붓글씨 여행: 붓글씨로 가훈, 부래만복 등 쓰기 ◦ 왕을 이겨라: 스마트스텝프투어 ◦ 오복이샵 운영: 오복이 캐릭터관련 상품 전시 및 판매
<p>자복이 추억거리 (아담사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복마실 운동회: 물동이이고 달리기, 꽃게걸음 반환점 돌기, 오복판에 고무신 넣기 ◦ 주렁주렁 오복을 잡아라: 오복을 주제로 복을 짓는 소원지 달기, 오복등길에 매달려 있는 오복주머니를 통해 원하는 복을 짓기 ◦ 옛다! 오복 받아라: 개양할미가 부안을 찾은 관광객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부안의 오복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 복받는날 퍼레이드: 오복지기(군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한바탕 같이 놀며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오복을 선물 ◦ 오복마실 퍼레이드 춤 경연: 부안 오복마실축제의 주제의식에 대한 춤 경연 ◦ 오! 디로갔나: 오디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부안 참봉의 우수성을 알림 ◦ 오색워터 Fun Fun 마당: 오복컬러대전, 오복박 떠트리기, 오복물총대전, 오색오복 물풍선 받기 등 ◦ 마실유랑극단: 다양한 복장을 갖춘 캐릭터가 오복 마당을 순회하면서 재미있는 퍼포먼스 연출 등 ◦ 위도 띠벧놀이: 풍어를 기원하는 위도 띠벧놀이 행사재현 ◦ 정의로운 복사또
<p>재복이 장터거리 (상설시장 특설무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복거리 볼거리: 세계 7개국 버스킹 공연 등 ◦ 다문화! 다함께 Let's GO: 글로벌 먹거리, 세계전통의상, 코스프레 의상대여 체험 제공 ◦ 마실 樂! 전국청소년예능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가요제 ◦ 부안사람 솜씨자랑!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문화예술 동호회 예술공연(난타, 섹스폰, 댄스, 해피댄싱, 기타 등) ◦ 부안 오복마실장터: 부안군 9경, 9품, 9미 및 6차산업 인증 농산물 홍보관 ◦ 중국어 말하기 대회+차이나 공연, 오복인형극

구분	프로그램
휴복이 놀이거리 (목포냉동 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놀이터: 전래놀이 체험과 추억의 놀이대회 운영 ◦ 오복마실 원정대: 축제장 전역을 돌아다니며 오복을 찾기 위한 다양한 미션 수행 ◦ 내게도 이런 시절이: 옛날교복 대여 및 사진 찍기 등 ◦ 농촌이야기: 재래 농기구 전시 및 재래 농기구 체험
축제 밖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전국노래자랑: KBS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축제 홍보 ◦ 부안음식맛축제: 부안군 대표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요리 경연, 전시 및 시식 ◦ 전국농악경연대회: 부안농악의 전성기를 이끈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농악경연대회 ◦ 바다생물과 함께 신나는 숨바꼭질: 변산면 모항갯벌체험 ◦ 부안마실길 오복걷기 행사: 마실길 5코스(솔섬~모항) 걷기(거리 5km, 소요시간 2시간 30분) ◦ 부안힐링투어: 부안군 대표적인 관광지 투어 ◦ 오복담은 딸기 수확체험, 가족과 함께 장보는 모습 그림 그리기 대회

자료 : 부안 오복마실축제 홈페이지; 문화관광산업연구원(2017), 92~106쪽.



마실춤 퍼레이드



마실춤 퍼레이드



옛다! 오복받아라



위도띠벳놀이



부안힐링투어



대동한마당



오디로 갔나

자료 : 부안 오복마실축제 홈페이지



마당극

[그림 5-9] 2018 부안 오복마실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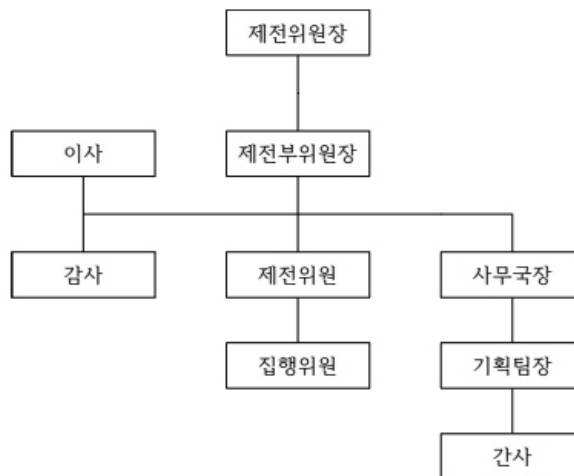
4) 김해 가야문화축제

(1) 가야문화축제 개요

- 가야문화축제는 김해지역의 대표 전통문화예술축제로, 가락국을 건국한 김수로왕의 창국정신을 기리고 우수한 가야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며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임(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
- 가야문화축제는 1962년부터 수로왕 춘향대제일(음력 3월 15일)에 맞추어 개최되어 온 ‘가락문화제’와 2005년과 2006년에 개최된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통합해 2007년에 새롭게 단장됨(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

(2)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운영 조직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는 2018년 4월 기준, 52명의 제전위원 중 1명의 제전위원장과 2명의 제전부위원장을 두고 있으며, 이사 4명, 감사 2명, 집행위원 29명이 있음. 또한 각각 1명의 사무국장, 기획팀장, 간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함(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직접문의)



자료 : '제37회 가야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과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연구자가 작성

[그림 5-10]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조직도

-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의 문화예술과에서 가야문화축제의 운영을 지원
- 2018년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의 총 예산은 13억 원으로 김해시(10억), 김해시 홍보비(1억 4천만 원), 자부담(1억 6천만 원)으로 마련됨
 - 2018년도 예산에는 김해시비가 증액(7천9백만 원)되었고 김해시 홍보비(1억 4천만 원)가 추가 책정되었으며, 자부담(약 9천만 원)하는 예산은 감액되면서 2017년도 대비 약 1억2천8백만 원의 예산이 증액됨

[표 5-25] 2017~2018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예산

(단위: 천원)

과목		2017	2018년	증감
총 예산		1,171,765	1,300,000	128,235
출연금	김해시비	921,000	1,000,000	79,000
	김해시 홍보비	-	140,000	140,000
	자부담	250,765	160,000	△90,765

자료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직접 문의함.

(3) 2018 가야문화축제 분석

- 본 연구는 2018년도 제42회 가야문화축제의 내용을 검토함
 - 2018년 제42회 가야문화축제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대성동고분군, 가야의 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릉원, 수로왕릉, 구지봉, 해반천 외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됨

[표 5-26] 2018 가야문화축제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2018 제42회 가야문화축제
기간	2018.4.27~2018.5.1. (5일간)
장소	대성동고분군, 가야의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릉원, 수로왕릉, 구지봉, 해반천 외 김해시 일원
주최	김해시
주관	(사)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 가야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①공식행사, ②민속행사, ③축제행사, ④체험행사, ⑤설치행사, ⑥연계행사, ⑦부대행사로 구성됨
 - 주요 행사로 고유제·혼불채화, 춘향대제, 수로왕행차 퍼레이드, 세계화합 김해줄땡기기, 초청공연, 장유화상추모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가야 뱃길체험, 가야문화테마존, 마상무예공연, 철기문화체험, 2018 가야 차문화 한마당, 미디어불꽃쇼 등이 있음
- 가야문화축제는 ‘이천년 가야역사, 찬란한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가야 역사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가야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축제가 기획됨(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
 - 승마체험, 가야 병영체험, 철기문화체험마을, 가야공예, 가야문화 및 전통 체험부스, 민속놀이 체험, 유물 및 순장 체험과 ICT 가야역사 체험관을 운영하여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가야문화축제를 직접 답사한 결과 축제 안내, 안내표지판의 부족, 주차장 협소, 휴식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임
 - 가야문화축제의 주요 행사 장소는 대성동고분군, 가야의 거리, 대성동 고분박물관, 수릉원, 수로왕릉, 구지봉, 해반천 등으로 행사 공간이 다양하고 광범위했음
 - 그러나 축제장 위치를 안내해주는 이정표나 지시방향 안내가 부족하여, 원하는 축제 행사장을 찾아가거나 다른 축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행사장이 넓은 만큼 더 많은 안내 인원의 보강과 안내표지판 및 길 안내 방향 표시가 필요함
 - 가야문화축제에 참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축제행사장 근처에 있는 9개의 학교를 안내 받았으나, 주말이 아닌 평일의 경우 학교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행사장 근처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자가용 이용 시 접근이 어려웠음
 - 축제기간 중 햇볕이 강해 쉼터를 찾는 관람객들이 상당하였음. 그러나

넓은 행사장에 비해 설 곳이 많지가 않아 관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보다 많은 쉼터나 그늘막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5-27] 2018 가야문화축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제·혼불채화: 수로왕의 탄강지이자 경남의 성지인 구지봉에서 고유제를 지낸 후 혼불채화 의식 수로왕행차 퍼레이드: 수로왕이 봉황동 유적지에서 인도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를 맞이하는 친영례 행렬 연출 춘향대제: 국가사적 제73호인 김해 수로왕릉 승선전에서 가락국의 시조대왕인 수로왕부터 9대왕 숙왕까지 기리는 ‘춘향대제’와 수로왕의 신위를 모신 무형문화재 제11호 ‘승선전 제례’ 행사 뉴 미라클 러브: 가야테마파크의 창작뮤지컬
민속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유화상추모제: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수로왕에게 시집 올 때 가락국에 불교를 전래한 허황옥 공주의 오빠 허보옥(장유화상)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제 김해석전놀이: 김해 전사들이 돌을 던져 왜적을 물리친 것을 기려 전통 민속놀이로 계승시킨 놀이
축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문화권 통합축제 한마당: 가야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계승과 가야문화권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단 및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가야문화 예술 경연대회 “슈퍼스타 G” KNN라디오 특집공개방송 “인문학 콘서트” (두근두근 가야사)
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가야역사 체험관: 수로왕의 탄강설화를 바탕으로 대형 돔텐트에 구성된 체험관 가야역사테마존: 수릉원 일대를 가야역사 테마존으로 구성해 독립테마파크로서 역사, 체험, 교육, 볼거리 조성 해반천 가야갯길: 해반천 일대를 가족형 콘텐츠의 테마공간으로 구성하여 축제거리로 조성
설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문양 깃발설치, 수로왕 탄강·결혼 설화 벽화설치, 철조형물 설치, 소망등 설치, 수로왕 캐릭터 유등 설치
연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김해식품박람회, 2018 가야차문화 한마당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6회 전국정가(시조, 가사, 가곡)경창대회 등

자료 : 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



춘향대제



김해식품박람회



승선전 제례



금이야, 옥이야 캐릭터 퍼레이드



가야역사테마존



유물발굴체험



ICT 가야역사테마존

자료 : 연구자 직접 촬영.



수로왕 결혼 설화 벽화

[그림 5-11] 2018 가야문화축제

5) 강릉단오제

(1) 강릉단오제 개요

- 강릉단오제는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매년 단오에 열리는 국내 최대의 단오축제임
 - 민속학자들은 강릉단오제가 고대 부족단위의 국가에서부터 행해졌던 민속예술행사의 모습을 지닌 축제라 봄. 또한 강릉단오제는 농경사회에서 하늘에 풍작을 기원했던 제사이자,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놀았던 축제였음(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홈페이지)
- 강릉단오제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등록되었고, 2005년 11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었음(강릉단오제 홈페이지)

(2) 강릉단오제 운영 조직

-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 행사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가는 주체임
 - 1973년 강릉문화원 내 ‘강릉단오제 행사팀’으로 구성되었으나, 2006년 3월 강릉문화원으로부터 분리·독립한 뒤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강릉단오제를 이끌어 가는 시민단체로 자리를 잡음
 -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경영관리팀, 홍보팀, 기획운영팀, 공연기획팀으로 구성(강릉단오제 홈페이지)
-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의 종합계획 수립·진행, 강릉단오제 축제 관련 문화재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위한 부속기관의 운영, 단오 관련 문화 콘텐츠의 개발, 국내외 문화 교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강릉단오제 홈페이지)



자료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그림 5-12] 강릉단오제위원회 조직도



자료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그림 5-13] 강릉단오제위원회의 기능

- 2018년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총 예산은 약 24억 원으로 강원도비(약 7억7천만 원), 강릉시비(약 2억5천만 원), 공모사업비(약 7억3천만 원), 자부담(약 7억 원)으로 마련됨
- 2018년도의 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약 3억7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2017년에 비해 공모사업비가 약 1억6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강원도비 보조금 약 2억5천만 원이 추가 투입되었음

[표 5-28] 2017~2018 강릉단오제위원회 예산액

(단위: 천원)

과목		2017년	2018년	증감
출연금	소계	2,087,172	2,465,800	△378,628
	강릉시비 보조	774,000	774,000	-
	강원도비 보조	-	250,000	250,000
	공모사업	572,600	738,680	166,080
	자부담	740,572	703,120	△37,452

자료 : 강릉단오제위원회에 직접 문의함.

- 강릉단오제의 운영에 사용된 2017년 결산액은 약 9억4천만 원이고, 2018년 예산액은 약 11억9천만 원임
- 2017년 예산액에 대한 자료 확보를 하지 못 하여 부득이 2017년 결산액과 2018년 예산액을 비교함
- 현 상황에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2018년 예산액이 2017년 결산액 대비 약 2억 4천만 원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축제 운영에 사용되었을 것이라 예상됨
- 그러나 실질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늘지 않아 각 단체별로 돈을 모으는 등 자원봉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때문에 참가단체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된 바 있음(조상원, 2018.4.16.)

[표 5-29] 강릉단오제 운영에 사용된 2017년 결산액과 2018년 예산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강릉단오제 운영비	944,378	1,194,000

자료 : 강릉단오제위원회에 직접 문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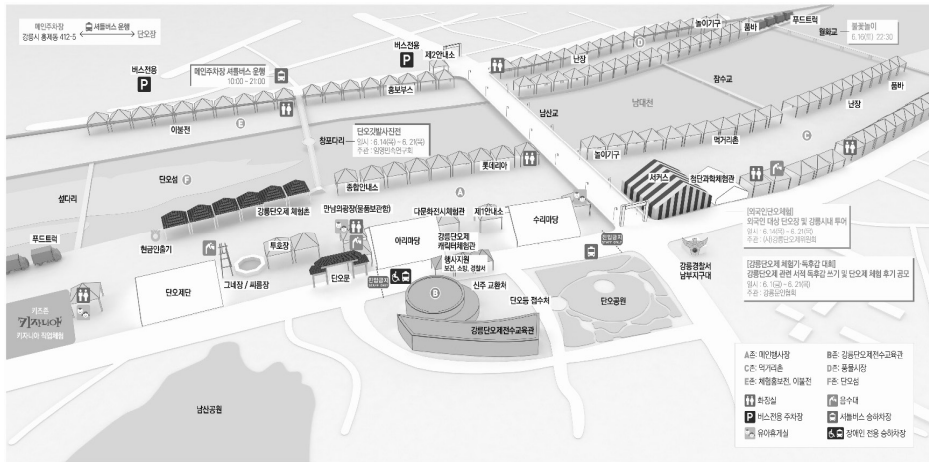
(3) 2018 강릉단오제 분석

- 2018년 강릉단오제는 6월 14일부터 6월 21일, 총 8일간 강릉남대천 일원에서 개최됨

[표 5-30] 강릉단오제 개요

구분	내용
축재명	2018 강릉단오제
슬로건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기간	2018.6.14.~2018.6.21. (8일간)
장소	강릉남대천 및 지정행사장
주최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
주관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강원도, 강릉시

- 강릉남대천의 남산교를 중심으로 ‘단오맞이 제11회 한·청 실버가요제’, ‘강릉 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등이 진행된 “수리마당”, ‘관노가면극’, ‘탐라문화제 외도동민속보존회 공연’ 등이 진행된 “아리마당”, 지정문화재 행사가 진행된 “단오제단”이 배치되었고, 이 외에도 넓게 펼쳐진 천막 부스에서 먹거리촌, 난장, 체험관, 민속놀이 행사장 등이 운영됨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는 처용무, 판소리, 해외 초청공연, 전통문화교실 발표회, 뮤지컬,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었음



자료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그림 5-14] 강릉단오제 행사장 안내도

- 강릉단오제의 주요행사는 ‘지정문화재 행사’, ‘전통연희 한마당’, ‘무대 공연예술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크게 총 10개로 구분됨

[표 5-31]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프로그램
지정문화재 행사	신주빚기, 대관령산신제, 대관령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 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 소제
전통연희 한마당	세계무형문화유산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공연, 지역무형문화재 공연, KBS 농악경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무대공연 예술제	무대공연 예술작품 선정작, 국내예술단 초청공연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청소년 단오마당 D.Y.F, 블링블링강릉단오 등
국외 초청공연	캐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사천성
단오 체험촌	수취리떡만들기, 단오신주 맛보기, 창포머리 감기, 단오부채 그리기, 단오빔 체험, 관노탈 그리기, 관노 캐릭터 탁본하기, 단오차(茶)체험, 단오등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한마당	신통대길 길놀이, 신주미 봉정행사, 신주빚기 체험행사, 단오등 행사
민속놀이 행사	씨름대회, 그네대회, 투호대회, 줄다리기 대회 등
경축 문화·예술 행사	단오깃발사진전, 강릉단오제 체험기 및 독후감 대회 등
부대행사	다문화체험촌, 외국인단오체험, 한청시립가요제 등

자료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 행사인 영신제, 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등 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프로그램들로 구성됨
 - ‘영신제’는 국사여성황사에 봉안한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을 남대천 굿당으로 옮겨가기 위해 지내는 제례. 유교식 제례에 이어 부정굿과 여서낭굿 대맞이 굿이 펼쳐짐
 - ‘영신행차’는 영신제를 마치고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의 위패 및 신목을 남대천 굿당으로 모시는 거리 행차임
 - ‘조전제’는 단오제 기간동안 매일 아침 10시 굿당에서 올려지는 유교식 제례
 - ‘단오굿’은 조전제에 이어 단오굿당에서 무녀 여러명과 악사들이 함께 진행. 굿은 집안 대대로 무업을 계승한 세습무가 담당하고, 악사들은 반주 외에 해학적인 촌극을 공연해 굿당을 장식하는 각종 무구와 지화를 만듦(강릉단오제 홈페이지)
 - 어린이 푸드트럭존, 강릉단오제 캐릭터 체험관, 강릉단오제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용 AR·VR 게임, 단오부채 그리기, 단오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 이 외에도 가족 뮤지컬,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됨. 대규모로 형성된 먹거리촌, 체험관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서 축제의 활기를 더함



신주빛기



대관령산신제



대관령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조전제·단오굿·송신제



KBS사장기 농악경연대회



강릉단오제 체험촌



부대행사(먹거리)

자료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및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5-15] 2018 강릉단오제

- 축제 관람객을 위한 안내소, 물품보관함 및 유아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안전관리 본부 및 안전요원, 지속가능한 축제를 지향하는 환경관리 본부는 지역 축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나 강릉단오제에는 곳곳에 이와 같은 시설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음
 - 안내소에서는 외국인 관람객 등을 위해 강릉단오제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
 -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물품보관함 이용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유아를 동반한 가족관람객을 위해 유아휴게실이 설치되었음
 - 행사 진행 도중 위급환자 및 사고 발생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릉소방서 요원들이 상시 대기하는 안전센터가 마련됨
 - 또한 축제개최로 인한 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관리본부가 운영됨
-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단오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을 다국적으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했고, 축제 안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다각화된 방식으로 축제를 홍보함
- 이와 함께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을 비롯해 강원·강릉 자매도시,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국제 초청공연 등을 통한 왕성한 지역·국제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음(구정민, 2018.6.14.)
- 그리고 연차별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 단오제 평가 및 발전방안』을 발행해 축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환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강릉단오제의 유래와 관련 설화, 발전방향 등에 대한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인 강릉단오제의 발전을 꾀함



강릉단오제 안내소



관람객을 위한 간이 편의시설



단오 119 안전센터



환경관리본부

자료 :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5-16] 2018 강릉단오제 안내·편의시설 및 안전·환경 관리 부스

4. 정책적 시사점

1) 시사점

□ 축제의 명확한 정체성 정립

- 검토한 우수사례들의 공통적 특성은 축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해당 주제를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수성당 개양할미 설화’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발전된 것으로, 지역의 설화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수성당 개양할미 설화를 바탕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고 축제 정체성을 강화함

- ‘세종시 백제대제’는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서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백제역대 국왕 및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와 유래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불비상의 기록에 근거해 제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타 지역의 백제문화제의 제례와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한 만큼, 불비상의 내용과 의미를 살려 ‘백제대제’가 세종시 지역의 특화된 행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 스페인의 ‘메르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인간 탑 쌓기(Castellers)’은 2010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축제를 통해 스페인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도움
- ‘강릉단오제’는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한 걸작’으로 선정되었음. 강릉은 이처럼 가치 높은 문화자산인 강릉단오제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전수교육관을 운영하여 강릉단오제가 후대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세종시 백제대제’는 국보 제106호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기록에 근거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가치 높은 자산으로, 제례 의식을 공고히 하는 등 세종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다음 세대로 제례 의식을 전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가 지금보다 수월할 수 있고, 또 ‘세종시 백제대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백제문화제’에서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웅진백제 4대왕 추모제’ 등의 행사를 운영함.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세종시의 운주산성, 금이성 등의 백제문화자산을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기획사업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임
-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대전에 위치해 있음. 센터와 함께 연계 프로그램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축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검토한 우수사례들은 축제의 주제를 명확히 표현하는 대표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체적으로 대표 프로그램 외에, 음악 공연, 미술 전시, 워크숍, 학회, 지역 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예를 들어, ‘한성백제문화제’는 크게 대표 프로그램,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 프로그램에는 백제 고분제, 혼불채화식, 한성백제 주요 왕을 주제로 한 갈라퍼레이드,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한 체험마을 등을 운영
-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의 유래와 관련된 설화, 발전 방향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강릉단오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
- ‘세종시 백제대제’도 보다 풍성한 문화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회를 행사 개최 시기에 함께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백제시대 옷 입어보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필요 있음
- 부여군은 ‘백제문화제’에서 백제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향토행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 및 백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

- ‘세종시 백제대제’ 역시 제례행사와 함께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간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지는 못 하고 있음. ‘백제문화제’의 사례처럼 백제문화를 콘텐츠로 한 공연 및 기타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임

□ 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과 효율적 업무 분장

-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위원회 구성원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성공적인 축제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가 격년제로 개최되다가 2007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매년 통합 개최되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백제문화제 ‘총감독’ 하에 ‘행정지원팀’, ‘연출운영팀’, ‘홍보마케팅팀’을 구성해 행사의 기획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문화제가 운영 및 관리됨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운영’,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수익사업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공주시와 부여군이 분담해 담당함
- 검토한 사례 중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총괄분과, 자원봉사분과, 기획분과, 환경생태보전분과, 의전·홍보분과, 체험행사분과, 행사진행분과, 시설·교통분과로 구성된 ‘부안 마실축제제전위원회’를, ‘가야문화축제’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강릉단오제’는 경영관리팀, 홍보팀, 기획운영팀, 공연기획팀으로 구성된 ‘강릉단오제위원회’를 두고 있음
 - 특히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는 강릉단오제의 종합계획 수립, 강릉단오제 관련 문화재 및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을 위한 부속기관의 운영, 단오 관련 문화 콘텐츠의 개발, 국내외 문화교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강릉단오제가 균형적·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구축해 오고 있음

- ‘세종시 백제대제’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비암사, 세종문화원, 세종향토사연구소 등이 협력적으로 참여할 때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종시는 비암사, 세종문화원, 세종향토사연구소 등 백제대제 유관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

□ 지역 간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발전 도모

- 영국의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공연팀을 초청해서 예술인들의 국제적 교류를 장려하고, 시민들에게는 한 자리에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이웃사촌 공연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자매도시의 문화예술단체가 초청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함. 이는 지역 간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축제가 보다 풍성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고, 관람객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례임
- 강릉단오제위원회도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을 비롯해 강원·강릉 자매도시, 동아시아관광포럼, 국제 초청공연 등을 통해 왕성한 지역·국제 문화교류를 이어오으로써 ‘강릉단오제’의 가치 제고에 기여함
- 세종시는 백제 문화자산을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공주, 익산, 부여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에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서울의 한성백제문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음. 이들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백제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학술회의 등을 기획하여 ‘세종시 백제대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축제 홍보

-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람객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예를 들어, 영국의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들의 축제 참여를 독려하고 높은 홍보 효과를 얻고자 ‘젊은 음악가 여권 (Young Musician’s Passport)’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배부함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축제 참여를 늘리고,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임
-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단오제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다국적어로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고, 축제 안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다각화된 홍보 방식을 활용함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에서는 어떠한 관객을 타겟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관람객 개발을 위해 타겟 관람객 층을 설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는 세종시 백제대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얻기에 제약이 있음
 - 검토한 우수사례들의 경우 당해 연도 축제 개요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과거 행사 자료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둬
 - 세종시 백제대제도 홍보의 차원에서, 그리고 축제 자료 축적의 차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재무정보, 경영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도별 백서를 제작해 자체적인 환류체계를 보유함
 - 제공되는 자료에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경영평가 결과서’, ‘예산 및 운영계획’, ‘예산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있음
 - 위원회의 연도별 ‘백제문화제백서’는 ‘백제문화제의 유래와 연혁’, ‘백제

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과 지원체계’,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행사장 조성 및 행사 운영 지원(공주시·부여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황’,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수익사업’, ‘예산편성 및 재정결산’, ‘추진결과와 평가’, ‘다음해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이 외에도 ‘부안 오복마실축제’, ‘강릉단오제’ 등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연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해 오고 있음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는 백서, 결과보고서 등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에는 위와 같은 성격의 결과물을 제작해 당해 연도의 행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다음 년도 행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세종시 백제대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축제 자원 다각화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는 약 2,000만 원의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행사의 규모를 키우기에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때문에 백제대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지원금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을 나누어 예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비록 2018년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관광축제 등급 중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 없이 홍보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나, 2017년도에는 국비 약 8천 여 만 원을 지원 받았음
- ‘세종시 백제대제’도 발전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게 기획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지원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을 것으로 보임

□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기획

-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는 안전한 축제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사

항을 정함

- 보안 직원들이 관람객의 가방을 점검하고 위험 물질 등을 포함한 금지 항목을 축제 장소에서 소지하지 못 하도록 규제함
- 맥주 축제인 만큼 아이들이 맥주 텐트를 방문할 때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음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지나친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한 옥토버페스트'를 표방함
- 또한 '옥토버페스트'는 축제에 활발히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 및 이동수단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함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텐트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넓은 자리와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축제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류장마다 구조단체가 대기함
- 스페인의 '메르세 축제'는 밤에 불꽃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시내를 질주하는 행사인 '코레폭(Correfoc)'에서 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불꽃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복장을 갖추고 참가하도록 함
- 2018년 '세종시 백제대제'가 진행된 장소인 '비암사'는 제례가 진행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운주산성 광장'도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음. 따라서 노약자, 어린이 등 관람객들의 안전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강릉단오제'는 축제 관람객을 위한 안내소, 물품보관함, 유아휴게실, 안전관리 본부 등을 운영함. '세종시 백제대제'도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 있음

2) 국내 유사사례 비교

- 2018년 기준으로 세종시 백제대제, 백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의 주요 사항을 살펴봄
-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과 비암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백제문화제 및 한성백제문화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주관함

- 세종시 백제대제도 공주시와 부여군과 같이 통합적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5-32] 국내 유사사례 비교

구분	세종시 백제대제	백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조직	세종문화원, 비암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행사예산 (단위: 천원)	20,000	1,410,000 ¹⁾	1,000,000
행사기간	2018.4.15.	2018.9.14.~ 2018.9.22.	2018.10.11.~ 2018.10.14.
주요 프로그램	(문화원) ◦ 백제대제 제례행사 ◦ 문화공연 (비암사) ◦ 백제영산대제 ◦ 문화공연	◦ 공식·대표 프로그램, 야간행사, 제례 불전, 전시, 문화예술 행사, 경연대회, 체험 프로그램, 판매, 지역 전통공연	◦ 백제고분제, 혼불채화식, 체험마을, 콘서트, 테마전시, 학술 대회, 먹거리 장터, 어린이 프로그램 등
기타특성	◦ 세종문화원, 비암사가 백제대제를 별도로 진행하였음 ◦ 세종문화원은 유교식, 비암사는 불교식으로 제례를 올림	◦ 공주시와 부여군이 별도로 백제문화제를 진행해 오다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매년 통합 개최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행정지원팀, 연출 운영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분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육성축제'로 선정 ◦ 제례행사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음

주 1): 2018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 예산 중 '목적사업'에 해당.

-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한 해 행사 예산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반면,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한 해 시 지원금은 2천 만 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됨
- 행사 규모, 행사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종시 백제대제의 예산을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및 한성백제문화제의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시 지원금은 행사의 기획력을 높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백제대제를 세종시의 역사문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례행사 뿐만 아니라, 세종시 백제대제의 의미에 토대를 둔 공연,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학술대회,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행사를 진흥시키고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1. 발전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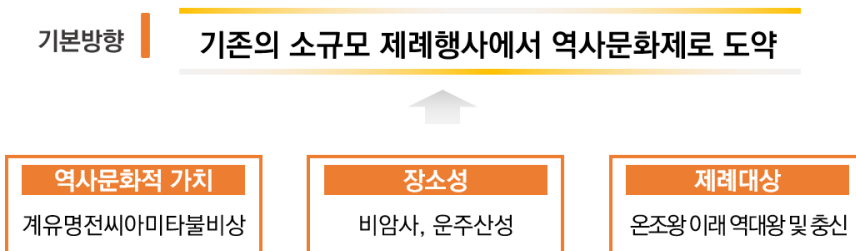
6장

6장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1. 발전방향

1) 기본방향

- 세종시 백제대제의 주요 특성으로 ①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 106호)의 기록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역사문화적 가치), ②불비상을 시납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비암사’와 백제 역사문화자산인 ‘운주산성’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장소성), ③백제의 역대 모든 국왕을 추모하는 제례를 지낸다는 점에서 타 지역 백제문화제의 제례행사와 차별화된다는 점(제례대상)이 있음
-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세종시 백제대제가 두드러지는 변화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의 소규모 문화행사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도약”이라는 발전 기본방향을 설정함



[그림 6-1]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기본방향

2) 목표

- 본 연구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기존의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①세종시 백제대제를 위한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화, ②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강화, ③특화 문화콘텐츠 육성을 목표 과제로 수립

-
- 1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화
 - 2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강화
 - 3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그림 6-2]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목표

(1)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화

- 세종시 백제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 백제대제에 대한 지원 제도를 합리화·체계화하여 이원화된 운영 구조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세종시 백제대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 세종문화원, 비암사 간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를 하고,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과 운영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함
- 백제대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원의 정당성과 발전적 운영의 가능성을 제고함

(2)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강화

- 세종시 백제대제의 명확하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세우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계획

-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 정립을 위해 세종문화원, 비암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백제대제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연구를 수행
- 참여자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의 백제대제 운영의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참여자층 확대와 지향하는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도약하기 위해 특화 콘텐츠 육성
-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는 비암사의 유형문화재, 세종문화원 부설기관인 세종향토사연구소가 축적해 온 향토사 자료가 있음
- 타 지역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스토리텔링 자원 사례를 참고해 계유명전 씨불비상의 기록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콘텐츠로 개발함

2. 추진전략

-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운영 현황 분석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①이원화된 운영으로 행사 파급효과 감소 우려, ②부족한 예산으로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규모 확장에 한계, ③세종시 백제대제만의 특성 부각 부족, ④관객개발을 위한 노력 및 홍보 부족, ⑤지역 간 연계협력 부족, ⑥낮은 행사 장소 접근성, ⑦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⑧부실한 환류체계 등의 문제를 진단함
- 그리고 국내·외의 역사문화제 우수사례를 분석해 ①축제 정체성 확립, ②문화자산의 보존과 적극적 활용, ③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④지역 간 문화교류, ⑤축제 추진위원회 조직과 효율적 업무분장, ⑥환류체계 구축, ⑦재원 다각화, ⑧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⑨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기획 영역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 세종시 백제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

을 반영해 앞서 제시한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5개 영역(①추진체계·제도, ②정체성, ③사업, ④관람객·홍보, ⑤예산·재원)에서의 추진전략을 제안

추진 전략

추진체계·제도	협력적인 백제대제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합리화
정체성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연구 및 강화
사업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관람객·홍보	관람객층 특성 파악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
예산·재원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원 다각화

[그림 6-3]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 추진전략

- 추진체계 및 제도: 세종시-세종문화원-비암사 간 협력적인 백제대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전문화 도모. 공정한 지원 체계 및 합리적인 평가 체계 구축
- 정체성: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정체성을 확립·강화하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조직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시행하고 역사적 가치 제고
- 사업: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을 연계해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타지역과 백제문화 교류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지속적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관람객·홍보: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를 찾는 관람객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홍보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향후에는 관람객층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예산·재원: 지원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점진적 예산 증액 제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 추진과제

- 본 연구는 2018 세종시 백제대제 현장을 답사하고, 비암사 및 세종문화원의 부설기관인 향토사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제대제의 문제점을 진단함
- 국내 역사문화제를 답사하고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문화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을 세우고 문화제 및 축제 운영, 문화제 활용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함
- 추진과제는 앞서 제시한 5대 추진전략별(①추진체계·제도: 협력적인 백제대제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합리화, ②정체성: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연구 및 강화, ③사업: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 ④관람객·홍보: 관람객층 특성 파악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 ⑤예산·재원: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원 다각화)로 구분해 제시하였음
- 또한 우선적으로 백제대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후, 점진적으로 규모 확장과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추진전략별로 단기 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를 구분해 추진과제를 제안함

[표 6-1] 세종시 백제대제 추진과제 제안

영역	추진전략	단기 과제 (2019년~2020년)	중기 과제 (2021년~2023년)	장기 과제 (2024년 이후)
추진체계 · 제도	협력적인 백제대제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제도 체계화 - 공정성에 근거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지원 - 제례행사와 문화 행사를 구분한 지원 방식 고려 ·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매년 내·외부 인력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 모니터링단 조직 - 평가 결과가 다음 해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백제대제의 합리적 운영 및 정기적 발전방안 공동으로 마련 - 세종시-세종문화원-비암사가 협력적으로 발전 방안 구상 - 문화재 활용, 문화재 운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 세종시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조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된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출범 추진 - 효율적 업무분장: 추진위원회는 총괄기획단, 행정지원팀, 행사진행팀, 연출운영팀, 문화교류협력팀, 홍보미케팅팀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어 위원회 운영 체계화 - 세종문화원-비암사의 협력 필요 · 세종시 백제대제를 시무형문화제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
정체성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연구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및 가치 정립을 위한 TF팀 조직 - 세종문화원-비암사-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팀에 의한 백제 문화, 체제 등에 관한 학술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사 보완

영역	추진전략	단기 과제 (2019년~2020년)	중기 과제 (2021년~2023년)	장기 과제 (2024년 이후)
사업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점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산을 연계해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암사의 유형문화재, 세종문화원 및 세종향토사 연구소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료 활용 • 계유명전사이미타불비상의 기록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콘텐츠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의 스토리텔링 지원 개발 사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발굴, 연계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음악 공연, 전시, 학회, 지역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규모 확장에 기여 • 백제 문화 교류 가능 분야 및 지역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과의 백제문화 교류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 백제문화교류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자산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공주, 익산, 부여, 서울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백제문화 및 지역의 역사문화제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정례화 - 백제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외 연계 관광 코스 발굴 • 백제세계유산센터(대전 소재)와 연계·협력해 프로그램 개발, 학술행사 개최

영역	추진전략	단기 과제 (2019년~2020년)	중기 과제 (2021년~2023년)	장기 과제 (2024년 이후)
관람객 ·홍보	관람객층 특성 파악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배제대제를 찾는 관객 특성 및 수요 조사 · 낮은 행사 장소 접근성 개선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암사, 운주산성에 대한 세종시민 및 타지역 관람객의 접근성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셔틀버스 운영 · 관람객 편의 시설 및 안전 요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배제대제 안내 홈페이지 구축 · 주요 관객층을 설정하여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층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재원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원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예산지원 및 효율적 사용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예산 증액 계획 마련 · 자체 재원 조성 및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사업, 공모사업 지원 계획, 후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 공모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회원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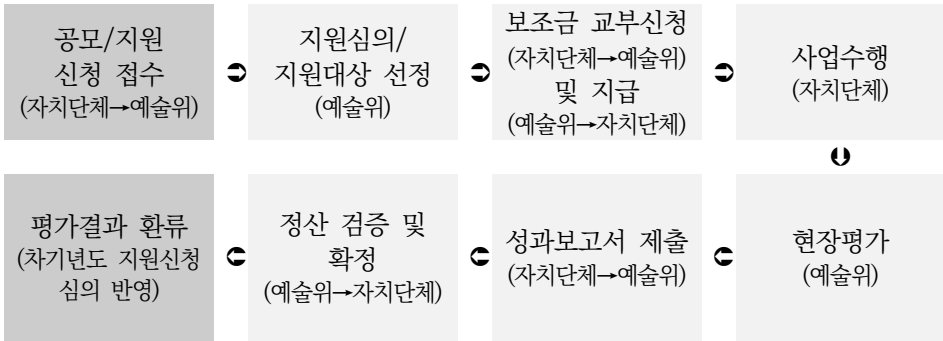
1) 단기과제

(1) 지원 제도 체계화

- 세종시 백제대제를 추진하는 행정차원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백제대제는 세종문화원과 비암사가 제례행사와 문화행사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례의 형식과 문화행사의 내용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제는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이원화된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과제로 세종시 백제대제 진행을 위한 제례와 문화행사를 구분해 별도로 백제대제 사전실행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한 단체가 제례행사를, 또 다른 단체가 문화행사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 예산 지원 방식 수정
- 이와 같은 예산 지원 방식은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제 중복의 문제를 완화하고, 사전실행계획서 내용의 충실성을 높여 행사 진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2)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매년 내·외부 인력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현장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행사 당일 프로그램 운영과 효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세종시 백제대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세종시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와 심의를 통해 백제대제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백제대제에 대한 현장평가와 성과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가 다음 해 백제대제 수행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축



[그림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추진 절차

- 지역 축제, 문화제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되,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가치와 정체성, 운영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표 6-2] 가야문화축제 평가 및 환류 방식

구분	내용
가야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공간 컨셉, 공간 구조 및 배치 - 축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 - 축제의 속성: 일탈성, 유희성, 이야기성, 참여성 - 홍보: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의견, 감정, 의미 - 경제적 파급효과 등 • 평가방법: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 문화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정립 - 가야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가야문화 이야기 발굴 - 가야문화축제의 브랜드화 - 해외 문화교류 - 관광객 대상 편의시설 확충 등

자료 : 김해시(2017), <제41회 가야문화축제 평가보고서>.

- 김해시는 연차별 가야문화축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함. 평가만에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가 다음 해 축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지속적인 축제 개선에 기여함

-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축제 공간, 축제 프로그램, 축제의 속성, 홍보, 관광객 만족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함
- 평가를 토대로 지역 특화 문화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정립, 가야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가야문화 이야기 발굴, 가야문화축제의 브랜드화, 해외 문화교류 활성화, 관광객 대상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하여 가야문화축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짐
- 부안군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평가는 방문객 설문조사, 축제장 주변 지역상인 설문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문가 평가로 구성됨
 - 방문객 설문조사의 문항은 축제 명칭과 장소의 적합도 및 선호도,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축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축제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부안오복마실축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얻음
 - 부안오복마실축제에는 장터거리 등이 조성되어 지역 상인의 축제 참여를 독려함. 축제와 지역 상인이 지속적으로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방문객 뿐만 아니라 축제장 주변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축제참여도, 축제로 인한 매출 손실 여부, 만족도 등을 조사함
 - 이 외에도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발전역량, 효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짐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축제를 보완·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함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 평가연구>의 발전방안에는 축제의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정비, 공간 구성 정비, 홍보체계 정비, 편의시설 정비, 주차 및 교통 시스템 정비, 지역주민 만족도 및 참여도 제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발전방안은 차년도 축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표 6-3] 부안오복마실축제 평가 및 환류 방식

구분	내용
부안오복 마실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명칭 적합도 및 선호도 - 축제 장소 적합도 및 선호도 - 축제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 축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 축제에 대한 만족도 • 축제장 주변 지역 상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참여도 - 축제로 인한 매출 손실 여부 - 축제 명칭·장소 적합도 및 선호도 - 축제에 대한 만족도 - 축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 경제적 파급효과 • 전문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운영 - 축제 발전역량 - 축제의 효과 및 주요 프로그램 등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정체성 강화 - 축제 프로그램 정비 - 축제장 공간 구성 정비 - 홍보체계의 정비 - 편의시설의 정비 - 주차 및 교통 시스템 정비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참여도 제고 방안 - 지역 관광지와 연계 강화

자료 : 문화관광산업연구원(2017),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 평가연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연차별로 백서를 작성해 문화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계획 및 실행 단계의 업무를 정리하여 문화제 운영에 대한 기록을 축적해 오고 있음
- 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계획에 따라 문화제가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음

[표 6-4] 백제문화제 평가 및 환류 방식

구분	내용
백제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과 지원체계 • 2017년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검토 • 2017년 백제문화제 행사상 조성 및 행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황,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수익사업 • 2017년 백제문화제 편성예산 및 재정결산 • 2017년 백제문화제 추진결과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용역에 의한 평가 - 방문객 만족도 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방문객 특성(방문 동기, 동행자, 참여일수, 교통수단 등), 백제문화제 만족도, 성과, 개최효과,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백제문화제에 지출한 현금 비용, 편의시설 등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관찰 평가: 공간설계, 운영부문, 프로그램부문 - 빅데이터 분석: 실증적, 과학적 방법으로 방문객의 행태 및 특성 등을 파악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원화된 축제 운영주체(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주시, 부여군)에 대한 개선 논의 - 축제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 - 개최공간 설계 • 2017년 백제문화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 기본방향 설정, 표적 방문객 설정 - 행사장 조성계획, 프로그램 계획, 국제회의 및 행사계획 - 운영 및 관리계획: 홍보, 주차 및 교통, 숙박, 운영인력, 후원 및 협찬 계획 등

자료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c), <제63회 백제문화제 백서>.

- <제63회 백제문화제 백서>에는 편성예산 및 재정결산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사용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도 외부 용역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평가에는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찰평가,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됨
 -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는 방문 동기, 동행자, 교통수단, 만족도, 지출 현금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문화제 홍보,

- 시설 및 공간 배치, 프로그램 기획 보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방문객들의 행태 및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백제문화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 특히 외부 업체가 문화제 운영의 삼원화 문제를 진단함에 따라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자리가 마련되었음
 -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고 문화제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기획의 기본방향, 표적 방문객 설정, 행사장·프로그램·국제회의 등의 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의 내용이 담김
 -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외부 용역에 의해 강릉단오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
 - 방문객 설문조사는 조사지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단오제를 찾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음
 - 향후 타겟 방문객 설정, 프로그램 기획, 행사장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문 횟수, 동반자 유형, 정보 습득 경로, 재미있는 프로그램, 구입 물품, 이동수단 이용 유무, 참여 동기 등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
 - 이 외에도 관광객의 숙박 장소, 이용 교통수단, 소비지출, 접근성·홍보 및 안내·행사 내용·프로그램 내용·먹을거리·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문항을 설계
 -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릉단오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이루어졌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민속축제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등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짐

[표 6-5] 강릉단오제 평가 및 환류 방식

구분	내용
강릉단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내국인·외국인)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조사지를 다국어로 제작 - 방문객 특성: 방문 횟수, 동반자 유형, 정보 습득 경로, 재미 있는 프로그램, 구입물품, 이동수단 이용 유무, 참여 동기, 인지도, 지정문화재 관람 및 참여 유무 - 관광객 특성: 숙박 장소, 교통수단, 소비지출 - 만족도: 접근성, 홍보 및 안내, 행사 내용, 프로그램 내용, 먹을거리, 편의시설, 재방문 의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 • 전문가 진단 • 강릉단오제 현장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축제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 모니터링에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 모두가 사용됨 - 전문교육을 받은 평가요원에 의한 참관, 소수 심층인터뷰를 통한 모니터링 진행 - 단위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항목: 주제성, 참여성, 고유성, 신기성, 의외성 -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항목: 편의시설, 홍보 및 안내, 공간 배치, 진행 및 운영 • 경제적, 비경제적(사회문화, 환경) 파급효과 분석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 기본방향 및 SWOT 분석 - 사업화 방안: 단오캐릭터 및 단오 스토리 개발, 강릉단오방송국 개설, 관광 기념품 개발 -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 개선방안: 공간 다각적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단오장 만들기 -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방안: 다국어 서비스 제공, 학술 프로그램 확장, 홍보전시관 운영 - 마케팅 방안 등

자료 : 강릉단오제위원회(2017), <2017년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용역>.

- 2018년에 36회차를 맞이한 세종시 백제대제도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를 연차별로 수행해 문제점을 영역별로 진단하고,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평가의 내용은 앞서 살펴 본 사례와 같이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참여 기관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진단, 현장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 마련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및 가치 정립을 위한 TF팀 조직

- 세종시 백제대제는 세종시의 가치 높은 역사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출판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가치와 의의를 정립하는 것은 백제대제가 지닌 전통의 맥을 잇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 이에 따라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과 가치 정립을 위한 TF팀을 조직할 것을 제안함
 - 세종문화원, 비암사,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

(4)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산을 연계해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보다는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산을 연계한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를 보완·개발할 것을 제안
- 현재 비암사는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제3호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제12호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제13호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을 보유하고 있음
- 세종향토사연구소는 1983년부터 지역 향토사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통문화와 향토자료를 발굴, 보존해 풍부한 향토문화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음
 - 현재 세종문화원 부설기관인 세종향토사연구소는 1983년 연기문화원의 부설기관인 ‘연기향토사연구소’로 발족된 것으로 201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함
- 세종시 백제대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비암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소개·안내하여 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시민에게

세종시 보유 문화자산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

- 백제대제는 제례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를 보완·개발해 나간다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5)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기록을 스토리텔링화

- 세종시 백제대제는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백제 역대 국왕 및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 유래함
- 불비상의 기록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콘텐츠로 개발해 활용할 것을 제안
 - 앞서 역사문화제의 우수사례로 살펴봤던 ‘부안 오복마실축제’도 지역의 수성당 개양할미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킨 사례임
 - 불비상이 만들어진 시기와 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소품, 복식을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
 - 예를 들어, 한국국학진흥원은 스토리테마파크를 통해 주제, 인물,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와 문화유산’, ‘문화와 예술’, ‘설화와 민담’, ‘관광과 축제’, ‘생활과 의식주’ 등의 카테고리에서 부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축적·제공 (부산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자료: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스토리테마파크 “용왕제”).

[그림 6-5] 전북 부안의 ‘용왕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사례

(6) 관람객 특성 및 수요 조사

- 향후 세종시 백제대제의 홍보 전략 및 연계 프로그램 기획은 수요 조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있음
- 아직까지 백제대제를 찾는 관람객 특성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람 동기, 만족도 등을 포함한 관람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장에서 설문조사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관람객 특성과 수요를 파악할 것을 제안함

(7) 낮은 행사 장소 접근성 개선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 2018년도 세종시 백제대제는 비암사와 운주산성에서 진행되었음. 비암사는 백제대제의 기원이 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이 발견된 곳이라는 점에서, 운주산성은 백제부흥 운동군의 최후의 구국항쟁지라는 점에서 백제대제 개최지로서의 의의는 높으나 접근성이 좋지 못 함
- 때문에 세종시 주요 공공시설, 세종버스터미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서 행사지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수요 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 또한 비암사와 운주산성은 장소적 특성상 주변에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백제대제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앞서 검토한 사례 중 안내부스, 물품보관함 이용 서비스, 유아휴게실, 안전센터 등을 행사장소에 설치해 운영한 강릉단오제 사례 참고해 볼 만 함

(8) 공정한 예산지원 및 효율적 사용 방안 마련

- 공정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제출된 사전실행계획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백제대제, 백제 문화, 지역의 문화 및 행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여 백제대제의 사전 준비 절차를 정교화하고 예산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함
- 백제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실행계획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단계에서 세종문화원과 비암사 등에 컨설팅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각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임
- 다음은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공정성에 근거한 예산 지원을 위해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을 위한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과 류정아(2007)가 제안한 지역축제 평가지표를 활용해 세종시 백제대제 사전실행계획서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안한 것임

[표 6-6] 예산지원을 위한 사전실행계획서 평가 내용 제언

구분	제례행사	문화행사
유형별 평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대제의 정체성 및 지역문화의 향토성 부각 세종시 백제대제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 전통의 보존, 표현의 정확성 문화자산의 재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 및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의 기여도 지역문화예술인의 참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공통 평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목표의 구체성·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행사규모, 관람객 수 세부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운영 조직 및 구성 인력의 적절성 예산계획의 건전성 및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충실성 기타 행사장 환경 조성 및 편의시설 운영 계획 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접근성 개선, 공간배치, 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료 :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을 위한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과 류정아(2007)의 50~51쪽의 지역축제 평가지표를 활용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2) 중기과제

(1) 세종시 백제대제의 합리적 운영 및 장기적 발전 방안 협력적으로 마련

- 세종시 백제대제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원화된 행사 운영이 백제대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 **협상 테이블 구성**: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문제진단과 평가, 개선방안을 두고 관계자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필요 있음
 - 현재까지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 관계자 간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못한 채 운영의 이원화가 심화되었음. 그러나 외부기관에 의해 진행된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된다면 각 관계기관의 역량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됨

- 세종시 백제대제 관계기관 간 갈등의 원인과 내용을 정리·진단하고 함께 갈등의 해소 방안을 이야기 해 나가야 함

○ **논의 안건:** 세종시가 중심이 되어 세종문화원, 비암사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 테이블에 ㉠세종시 백제대제의 합리적 운영, ㉡장기적 발전 방안, ㉢세종시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조직 계획 수립 등의 안건을 올릴 것을 제안함

- 문화재 활용, 문화제 운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

(2) 백제 문화·제례 연구 활성화

○ 백제 문화, 제례 등에 관한 학술연구 활성화

- 세종시가 보유한 백제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나아가 백제 문화, 제례 등에 관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책자 발행
- 비정기적으로 운영된 학술발표회를 정례화함

○ 백제대제 준비 및 이행과정을 영상, 문서로 기록화하여 전통을 보전하고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백제대제의 전통과 원형을 이어나가고, 전승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승 기반을 구축
- 제작한 자료는 교육,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세종시 백제대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기록화 사업의 추진은 향후 백제대제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와 연계되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3)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발굴, 연계 프로그램 기획

○ 앞서 살펴본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는 제례행사 외에도 전시, 지역 전통 공연, 체험, 야간, 경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음. 백제문화제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장르와 내용이 풍부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 제고와 함께 관광객 유입의 효과를 얻음

- 세종시 백제대제의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례행사와 함께 문화행사, 음악 공연, 전시, 학회, 지역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할 것을 제안
- 대중음악, 전통음악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퍼레이드, 야간 행사, 민속놀이, 백제 옷 입어보기 등의 체험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6-7] 공주시·부여군·익산시의 백제문화유산 탐방 코스

구분	내용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코스 ◦ 공주역, 공주시청 -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 - 국립 공주박물관 - 백미고을 중식 - 공산성 - 석장리 박물관 - 계룡산 도예촌 체험 - 공주역, 공주시청 • 가을코스 ◦ 공주역, 공주시청 -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 - 공산성 - 백미고을 중식 - 마곡사 - 알밤줍기 체험 - 공주역, 공주시청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꽃향(香) 이색투어 ◦ 궁남지 - 부소산(황포돛배) - 국립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오층석탑 • 백제향(鄕) 생생투어 ◦ 부소산 - 정림사지오층석탑 - 국악단공연 - 국립부여박물관 - 능산리와 나성 • 문화향(嚮) 싱싱투어 ◦ 백제문화단지 - 무량사 - 반교리 돌담마을(휴휴당) - 궁남지 • 사비향(向) 상상투어 ◦ 궁남지 - 부소산 - 국립부여박물관 - 정림사지오층석탑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코스 ◦ 익산역 - 문화원 - 익산쌍릉 - 왕궁유적 - 미륵사지 - 보석박물관 - 문화원 - 익산역

자료 :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익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는 백제세계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와 공주시가 함께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와 공주시의 시티투어 코스는 백제문화유산

을 테마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종시에는 한솔동 백제 고분역사공원, 운주산성, 금이성 등의 백제문화자산이 있는 만큼 인근 지역과 연계해 백제문화투어 코스의 개발·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6-8] 세종-공주 시티투어 코스

구분	내용
행복세종 백제공주 세종-공주 시티투어	· 조치원역 - 도담동 싱싱장터 - 세종호수공원 - 대통령기록관 - 조세박물관 - 산림박물관 - 석장리박물관 - 공산성 - 송산리고분군 - 공주역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 홈페이지.

- 이 외에도 세종시에는 연화사, 관음암, 청안사 등의 가치 높은 전통사찰과 한옥체험업 운영 시설, 초려역사공원, 김종서장군묘, 어서각역사공원 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있음.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추진을 제안

(4) 백제문화 교류 가능 분야 및 지역 탐색

-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분포되어 있고, 특히 공주시는 세종시와 인접해 있어 두 도시 간 백제문화자산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시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해 설립된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업무협약 등의 형태를 통해 세종시의 백제 문화 자산에 대한 관리·활용의 노하우를 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센터에서는 세계유산 확장등재 학술연구, 3차원 기록화 구축, 가상현실 유적 파노라마 제작,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제안 공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5) 세종시 백제대제 안내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전략 마련

- 세종시 백제대제의 효과적 안내 및 홍보, 행사 자료의 축적, 예산 사용

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함

- 2018년 현재 시점까지 세종시 백제대제를 알리기 위한 안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행사 안내 및 과거 백제대제 운영 관련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음
- 한 사례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는 구축한 공식 홈페이지의 메뉴를 크게 ‘백제문화제 안내’, ‘일정/프로그램 안내’, ‘문화제의 기록’, ‘관광 정보’, ‘소통광장’, ‘재단정보공개’로 구분하고, 하위 메뉴를 구성해 해당되는 풍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공주·부여의 홈페이지에서 특징적인 점은 재단의 경영정보, 재무정보, 감사 및 윤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투명한 재단 운영이 백제문화제의 내실있는 성장과 예산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 왔다고 판단됨
- 이러한 공식 홈페이지의 구축은 행사의 효과적 안내와 홍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행사의 자료를 연차별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대제의 역사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홈페이지에서 세종시 관광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백제대제 방문과 세종시 관광에 대한 유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방문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방문객의 특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표 6-9]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사이트맵

구분	내용			
백제문화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소개 • 조직도 • 업무/전화번호 • 홍보대사 • 행정서비스 현장 • 정보공개 • 관계법령 • 오시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물 • 엠블렘 • 마스코트 • 행사장 오시는 길 • 공주 • 부여 • 주차장/교통통제 • 주차장 정보 • 교통통제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안내 • 공주 • 부여 • 후원안내 • 후원안내 • 후원현황 • 후원신청 • 신청정보 확인
일정/프로그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일정안내 • 공주 •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폐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 달력 • 추진위 프로그램 • 공주시 프로그램 • 부여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권 • 예매/유료정보 • 백제문화제 테마여행 • 공주 • 부여
문화제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역사 • 백제문화제의 유래 • 백제문화제의 연혁 • 사진으로 보는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기록관 • 공주 • 부여 • 테마 기록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기록관 • 백제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물 기록관 • 포스터 • 리플릿
관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관광지 • 공주 •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 공주 •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 공주 •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 • 공주 • 부여
소통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식 • 서포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고시공고 • 홍보물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A
재단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보 • 주요사업연구보고서 • 경영실적 평가 및 조치사항 • 이사회 관련 • 각종위원회 회의록 • 공무국의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정보 • 감사보고서 • 수의계약결과 • 업무추진비내역 • 결산서 • 인건비예산 및 집행현황 • 예산 및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윤리 • 부패임직원현황 • 임직원 행동강령 • 청렴서약 	

자료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6) 단계별 예산 증액 및 자원 다각화 방안 마련

- 2018년 백제대제에 대한 세종시의 지원 예산은 약 2천만 원(세종문화원, 비암사 각 1천만 원)으로 소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상당히 적은 액 수입
 - 2018년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행사 예산은 약 14억 원(2018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 예산 중 ‘목적사업’에 해당)이며,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예산은 약 10억 원임
- 행사 운영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은 오히려 행사 파행의 우려를 키울 수 있음
- 따라서 단기 과제에서 제시하였듯 백제대제 추진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고, 세종문화원-비암사-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TF팀을 조직한 후 단계별 예산 증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종시 백제대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예산의 증액과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백제대제 운영을 위한 자원의 다각화, 개인·단체·기업의 후원 방안 확대를 통해 예산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재원을 확보해 백제대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민간 주도형 행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최영화, 2017), 자체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후원 개인, 단체, 기업에 제공할 혜택, 권리 등을 구체화하여 자원 조성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 국비 확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모 사업에 지원할 신청 계획 수립 마련이 필요함
- 지원 예산의 증액과 자체 자원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예산 운용이 담보되어야 함. 예산 운용의 노하우를 배우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장기과제

(1) 일원화된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출범 추진

- 세종시-세종문화원-비암사가 협력적으로 수립한 세종시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조직 계획에 따른 일원화된 백제대제 추진위원회 출범 제안
- 추진위원회는 총괄기획단, 행정지원팀, 행사진행팀, 연출운영팀, 문화교류협력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어 위원회 운영을 전문화·체계화함
 - **총괄기획단**: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을 총괄하고 세종시, 세종문화원, 비암사 간 업무 협의 조정 역할 수행, 종합상황실 운영, 연차별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 작성
 - **행정지원팀**: 사무국 조직 관리 및 세종시와의 행정 업무 협의, 각종 업무 보고와 회의 운영·관리, 예산·결산 및 자금 운영계획 수립
 - **행사진행팀**: 행사장 확보 및 배치 계획 수립, 사고 대책 마련, 체험장 운영, 자원봉사 인력 관리, 쓰레기 대책 마련, 교통통제 방안,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
 - **연출운영팀**: 행사(제례행사/문화행사) 기획 및 연출 담당
 - **문화교류협력팀**: 타 지역과의 백제문화 교류 업무 담당
 - **홍보마케팅팀**: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업무 총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 세종시 백제대제를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

- 체계적으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백제대제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 방안 마련을 제안
-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형식 및 절차 등을 정립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종시가 중심이 되고, 세종문화원과 비암사가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발전시켜 방향성을 정할 것을 제안

(3)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사 보완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백제대제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과 의의를 정립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세종시 백제대제의 유래, 의의, 형식, 절차, 내용을 정리한 인쇄물을 발간·배포할 것을 제안
- 정립한 세종시 백제대제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4) 타 지역과의 백제문화 교류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 백제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교류할 수 있는 분야와 지역을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 연계·협력한 백제문화 교류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행해 볼 것을 제안
- 현재까지 세종시 백제대제는 제례행사와 간단한 문화행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시도해 보기 적합한 여건이라 할 수 있음
-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의 결과와 성과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통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역 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
 -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세종시 백제대제의 총괄기획, 연출운영, 문화교류협력 분야 담당자와 타 지역의 백제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분포해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한성백제박물관 및 백제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 백제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 네트워크 지역과 백제문화 및 지역의 역사문화제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정례화 및 백제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을 제안함
- 백제 왕궁인 사비궁,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백제 개국초기의 궁성인 위례성, 백제의 대표적 고분을 보여주는 고분공원, 충남도민의 기증으로 조성된 백제의 숲, 백제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역사문화관이 조성되어 있는 부여군의 '백제문화단지'(백제문화단지 홈페이지)와 연계한 관광 코스 발굴 제안
- 이 외에도 대전시에 위치한 백제세계유산센터와 연계·협력해 기획 프로그램 개발, 학술행사 개최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5) 관객층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행사의 발전과 지속, 확장에는 관객층의 확대가 필수적 요소이나, 제례 행사의 경우에 행사 성격상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기에 한계를 지님
 - 제례행사의 경우 소수 관객층에 한정되기 쉬움
- 따라서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세종시 백제대제의 의미, 의의, 전통에 대한 안내, 백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지역의 문화자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홍보전략 마련·추진은 새로운 관객층의 발굴과 함께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6) 국비 공모사업 지원 계획 및 신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 사업인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사업' 등에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안함
- 각 공모사업의 심의 기준에 맞춘 신청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

**[표 6-10]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통분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지원결정 내역**

단체명	지원신청사업명	지원예정액(단위: 원)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 추진위원회	제23회 광주남한산성 문화제	33,000,000
(재)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의 전당	2018 김해가야금축제	60,000,000
마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무술년 마산만날제	80,000,000
(사)신라만파식적보존회	경주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	40,000,000
고싸움놀이 보존회	제36회 고싸움놀이 축제	70,000,000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우리국악의 희노애락	60,000,000
(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단연합회	제47회 부산민속예술축제 및 제 36회 부산청소년 민속예술축제	40,000,000
(사)서울아리랑 페스티벌조직위원회	2018 서울아리랑 페스티벌	100,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2회 2018 부평풍물대축제	200,000,000
화엄음악제집행위원회	2018 화엄음악제	120,000,000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추진위원회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70,000,000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	부안마실축제	120,000,000
(사)국가무형문화재 입실필봉농악보존회	필봉마을굿축제	120,000,000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200,000,000
(사)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500,000,000
춘향제전위원회	제88회 재감통 춘향제	500,000,000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제5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50,000,000
박동진판소리선양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90,000,000
영동축제관광재단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190,000,000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2018년도 전통분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 및 지원결정 세부내역").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사업은 ‘글로벌육성축제’로 ‘안동국제탈춤축제’ 등 4개, ‘대표축제’로 ‘무주반딧불축제’ 등 3개, ‘최우수축제’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등 7개, ‘우수축제’로 ‘고려대가야 체험축제’ 등 10개, ‘유망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 등 21개, ‘육성축제’로 ‘한성백제문화제’ 등 40개를 선정·발표(문화체육관광부, 2017.12.28.)
 - 이 중 ‘육성축제’는 예산 지원 없이 홍보 및 컨설팅을 지원받는 대상으로, 현장평가 등 실사를 통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망축제’로의 진입 여부를 심사받게 됨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통분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행사는 총 19개로, 적게는 3천3백만 원, 많게는 5억 원을 지원함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 제언

7장

7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83년 ‘백제충령제’로 시작되어 1986년 ‘백제대제’로 개칭된 후 2018년 36회차를 맞이하였으나 행사 콘텐츠에서의 발전적 변화가 부각되지 않고, 최근에는 공동 주관처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근래 지역의 고유 역사문화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효과적으로 문화자산을 계승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세종시 백제대제도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하에 기존의 갈등 사항을 해소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백제대제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해 나갈 것을 제안함
- 본 연구는 백제대제의 의미와 연혁,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및 현황, 역사문화행사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3대 목표를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를 추진 단계별로 제안함

1)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이해

- 세종시 백제대제는 1960년대 비암사에서 발견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의 백제가 멸망한 직후 673년 전씨 등 백제 유민들이 8개의 석불비상을 만들어 비암사에 시납하고 백제 역대 국왕 및 대신,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지냈다는 기록에서 유래함
- 전의고적보존회가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류성과 비암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결과로, 1983년 음력 4월 15일에 ‘백제충령제’를 올리기 시작했고 1986년 ‘백제대제’로 개칭됨

2)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및 현황 분석

- 현재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업무과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등에 근거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백제대제가 세종시의 향토무형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
-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임

3) 세종시 백제대제 실태분석 결과

- 최근 연도별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2018년 4월 15일에 진행된 백제대제를 현장답사해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 이원화된 행사 운영으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예산 및 특화 콘텐츠 부족, 관객개발을 위한 홍보 부족, 지역 간 문화교류 부족, 낮은 행사 장소 접근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부실한 환류체계를 세종시 백제대제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함

4) 우수 역사문화행사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의 우수 역사문화행사를 분석하고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명확한 정체성 정립, 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축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축제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효율적 업무 분장, 지역 간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 홍보 방식 다각화, 환류체계 구축, 축제 자원 다각화, 관람객 편의 제고 등이 역사문화행사의 성공 요인임을 알 수 있었음

5)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방안 제시

- 세종시 문화예술 여건 분석, 백제대제 실태 분석, 우수 역사문화행사 사례 분석, 전문가 콜로키움을 통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 기본방향과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고, 추진전략별로 단기·중기·장기과제를 구분해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기본방향: 기존의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로 도약
 - 3대 목표: 협력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화,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강화, 세종시 백제대제의 특화 문화콘텐츠 육성
 - 5대 추진전략: 협력적인 백제대제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합리화, 세종시 백제대제의 정체성 연구 및 강화,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관람객층 특성 파악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마련,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원 다각화
 - 추진과제: 단기 과제(2019년~2020년), 중기과제(2021년~2023년), 장기 과제(2024년 이후)로 구분해 제시. 우선적으로 백제대제의 추진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점차적으로 행사 내용을 풍성하게 기획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높여 역사문화제로 나아갈 것을 제안

2. 정책 제언

1) 세종시 백제대제의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 점검 제안

- 본 연구는 과거 백제대제 행사 자료를 검토하고, 2018년 백제대제 답사를 통해 행사의 ①체계, ②예산, ③사업, ④홍보, ⑤장소·시설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함

[표 7-1] 세종시 백제대제의 문제점

구분		내용
체계	이원화된 운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관처인 세종문화원과 비암사가 같은 날 겹치는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두 곳의 행사장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음 행사 운영이 이원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함
	환류체계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백제대제의 연차별 결과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고 있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예산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 지원금은 간소한 행사를 치르기에도 충분하지 않음 백제대제가 역사문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강화, 행사 규모 확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은 지양하고, 운영체계 확립 및 정밀한 예산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사업	특화전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화 전략, 타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은 지역문화에 술제 발전의 중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 세종시 백제대제도 타지역의 백제문화제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 간 연계·협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서울시 등과 함께 연계해 세종시 백제대제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홍보	관객개발 전략 및 홍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타겟 관객층을 설정하고, 그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도 이루어져야 함 세종시 백제대제는 올해 36회째를 맞이하였으나 안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행사의 의의, 내용, 일정, 장소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음
장소 · 시설	낮은 장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세종시 백제대제가 개최된 비암사와 운주산성예의 접근성은 매우 좋지 않음 버스정류장, 기차역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함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협소, 안내부스·안전관리부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미흡

- 진단된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함

2) 제안과제의 단계별 추진

- 본 연구는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 과제(2019년~2020년)’, ‘중기 과제(2021년~2023년)’, ‘장기 과제(2024년 이후)’로 구분해 제안하였음
- 이는 급속한 변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진전략별로 수행함으로써 백제대제의 의의를 살리며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현재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 상 가장 큰 어려움은 이원화된 운영체계라 할 수 있는 만큼, 단기·중기·장기계획 모두에서 추진체계·제도 영역의 추진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제안해 궁극적으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원화된 백제대제 추진체계 구축을 지향
- 우선적으로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의 협력 기반을 만들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이행하여 안정적 운영의 토대를 다질 것을 제안함
- 또한 백제대제와 지역 문화자산을 연계한 특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 백제대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관람객 특성 파악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 지원 예산 증액과 함께 자체 예산 조성 및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다음은 단계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임

[표 7-2] 세종시 백제대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제안

구분	중점 추진과제				
단기 과제 (2019~2020년)	지원 제도 체계화	백제대제 발전 TF팀 조직		지역문화 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람객 특성 및 수요조사
	평가·환류 체계 구축				
중기 과제 (2021~2023년)	공정한 예산지원 방안 마련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백제대제/ 백제문화 학술연구	백제대제 특화 콘텐츠 강화 및 백제문화 연계 사업 발굴·기획	안내 홈페이지 구축
	단계적 예산 증액 방안 마련	추진위원회 조직 계획 수립	백제문화 교류 가능 분야·지역 탐색		주요 관객층 맞춤 홍보 전략 마련
		자체 재원 조성 방안 마련			
	↓				
장기과제 (2024년 이후)	일원화된 추진위원회 출범 추진				
	국비 공모사업 지원 고려	백제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백제대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확대 방안 마련	

3) 세종시 백제대제 지원을 위한 기존 조례 보완·조례 제정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12호, 2016.8.10., 일부개정)는 세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26호, 2017.7.21., 일부개정)는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향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53호, 2018.8.10., 일부개정)는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

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조례에서 ①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②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③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④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음
- 이와 같은 조례는 세종시의 전통 문화예술, 사회적 의식, 축제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세종시 백제대제를 특정 계층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제례행사라고 볼 때 기 제정된 조례는 백제대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한계가 있음
-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종시 백제대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식의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운영해 기존의 소규모 제례행사에서 역사문화제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백제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고 추후에 역사문화제로 확장되었을 때 백제대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 백제대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안해 보고자 타 지역의 문화제 지원 및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봄
- 앞서 국내 역사문화제의 우수사례로 살펴본 백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 강릉단오제, 가야문화축제, 부안 마실축제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향후 백제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역사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는 ①위원회 설치, ②위원회의 기능, ③위원회의 구성, ④예산 지원, ⑤행사주관, ⑥집행위원 및 사무국 설치, ⑦행사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7-3]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제 지원 및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조례

구분	주요 내용
<p>「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백제문화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이하 “재단”)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 2.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진행 3.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4.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5.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 (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과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으로 함 • (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p>「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은 한성백제문화제(이하 “축제”)의 기획 및 자문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둬. ②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역사학자, 관광·축제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개최시기) 축제는 송파구민의 날을 전후로 매년 개최하되, 그 시기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함 • (축제주관) 축제는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음 • (축제위탁) 축제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문화제(이하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둬 •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구분	주요 내용
「강릉단오제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이하 “단오제”)를 향토고유의 축제로 승화시켜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전일) 단오제는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전·후 2일의 기간을 포함한 5일간으로 하되, 신주빚기, 대관령성황제 및 산신제 등의 행사는 별도일정에 의하여 실시함 • (행사) 강릉단오제와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 • (단오제전위원회) ①행사(강릉단오제, 민속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를 둔. ②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③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 • (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오제의 선양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단오제 예능전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오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4. 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등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가야문화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 •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제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3. 축제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국내·외 축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 (집행위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을 둘 수 있음. ②집행위원은 문화예술인, 다른 축제 관계자 등 실질적으로 축제를 집행할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함 • (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

구분	주요 내용
	<p>무국을 설치함. ②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축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지원) ①시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②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축제의 평가)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위원회는 평가결과의 개선·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함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부안군의 대표 축제인 “부안 마실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 설치)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는 “부안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2.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4.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 5.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 등 •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수당 등 필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료: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1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1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송파구규칙 제684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200호).

- 타 지역의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존의 조례를 보완 혹은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 조례’ 제정을 검토할 시 다음의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본 제안 사항은 백제대제 추진위원회의 조직을 가정하고 작성되었음

- **위원회 조직과 운영:** 역사문화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 문화, 예술, 지역 축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향후 위원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의 위촉과 위원회의 업무 추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위원회의 기능:**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 ㉠ 세종시 백제대제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세종시 백제대제 행사장 부지계획 수립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운영
 - ㉢ 세종시 백제대제 총괄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 ㉣ 세종시 백제대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 세종시 백제대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 사업 추진 결산 보고 및 평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지원:** 세종시가 ‘위원회’의 운영과 백제대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세종시 백제대제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지원 및 결산 보고의 방식 및 내용을 제시
 - **행사주관:** 백제대제는 설립된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종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함. 단, 위원회가 행사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가 위탁 운영하거나 세종시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환류체계:** 행사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행사의 운영 및 진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세종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축제 기획, 실행, 결과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발행.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 차년도 백제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함
- ‘세종시 백제대제 운영 조례’의 제정을 앞서 제시한 발전방안의 추진과

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백제대제 운영의 이원화가 심화된 현 시점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될 경우 행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임

- 세종시 백제대제의 성공적인 지속 개최와 안정적 운영이라는 조례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백제대제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
- 때문에 세종시 백제대제 관계 기관 간에 백제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2013), 〈제37회 가야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강릉단오제위원회(2017), 〈2017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및 발전 방안 용역 보고서〉.
김해시(2017), 〈제41회 가야문화축제 평가보고서〉.
다빈치 축제 편집팀(2016), 〈세계축제100〉, 다빈치.
류정아(2003), 〈축제인류학〉, 살림.
류정아(2007),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재청(2017),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2017.02.23. 고시.
문화관광산업연구원(2017), 〈제5회 부안 오복마실축제 축제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12.28.), 〈문체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5), 〈세종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기본 계획〉.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a), 〈2018 예산 및 운영계획〉.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b), 〈2018 주요업무계획〉.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8c), 〈제63회 백제문화제 백서〉.
비암사(2018), 〈2018 세종시 비암사 백제영산대제 리플렛〉.
세종문화원(2018), 〈2018 세종문화원 백제대제 리플렛〉.
세종문화원, 〈세종문화원 내부자료 “백제대제 역사”〉.
세종특별자치시(2014.03), 〈제1회 세종 통계연보〉.
세종특별자치시(2015.03), 〈제2회 세종 통계연보〉.
세종특별자치시(2016.03), 〈제3회 세종 통계연보〉.
세종특별자치시(2017.03), 〈제4회 세종 통계연보〉.
세종특별자치시(2018.02), 〈세종 통계월보〉
세종특별자치시(2018.03), 〈제5회 세종 통계연보〉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과(2018), 〈문화체육과 내부자료 “『제36회 백제대제』 행사 관련 보고”〉 2018.04.10.
손수연(2018), 글로컬리즘 관점에서 본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 논문.
손수연·황기식(2018), “유럽문화에서 글로컬의 의미 : 유럽의 축제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6권 1호. 151~169.
최영화(2017),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193호, 2016.12.26., 일부개정.
- 「강릉단오제 운영 조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534호, 2004.12.17., 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126호, 2012.3.15., 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684호, 2012.7.19.,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72호, 2016.8.10.,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717호, 2015.9.30.,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53호, 2018.8.10.,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26호, 2017.7.20., 일부개정.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200호, 2016.12.30., 일부개정.

곽우섭(2017.04.14.). 파행 우려 ‘세종시 백제대제’, 정상개최 : ‘비암사’-‘세종문화원’ 정상화 합의, 비암사에서 영산대제, 문화공연 등 선보여. <세종의 소리>.

URL: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63>

노왕섭(2017.04.14.). 세종시, 15일 백제대제 거행. <중앙일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474073>

조상원(2018.04.16.). ‘실질적 예산 부족’ 단오제 참가 단체 불만. <강원일보>.

URL: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041500047>

가야문화축제(<http://www.gcfkorea.com>)

강릉단오제(<http://www.danojefestival.or.kr>)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https://www.gn.go.kr/dano/index.do>)

강원도(www.provin.gangwon.kr)

경기도(www.gg.go.kr)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경상북도(www.gb.go.kr)

공주시 문화관광(<http://tour.gongju.go.kr/html/kr/>)
광주광역시(<http://www.gwangju.go.kr>)
김해시청(www.gimhae.go.kr)
네이버 지식백과, 옥토버페스트 검색(<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44030&cid=42836&categoryId=42836>)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메르세 축제(<http://lameva.barcelona.cat/merce/en>)
목향재(<http://cafe.naver.com/myong7351>)
문화재청(www.cha.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뮌헨 시 홈페이지(<http://www.muenchen.de>)
백제문화단지(<http://www.bhm.or.kr/html/kr/>)
백제문화제(<http://www.baekje.org/html/kr/>)
부산광역시(www.busan.go.kr)
부산광역시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서비스(<http://story.busan.go.kr/index.busan?contentsSid=73>)
부안 오복마실 축제(http://www.buanmasil.com/s1_1.html)
부여군 문화관광(<http://tour.buyeo.go.kr/html/tour/>)
세종시립민속박물관(<http://www.sejong.go.kr/museum.do>)
세종전통장류박물관(http://dwe.andongit.com/sub03_01-2.php)
세종특별자치시(<http://www.sejong.go.kr/index.jsp>)
세종특별자치시 공식블로그 '세종스토리'(<http://sejongstory.kr>)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http://www.sejong.go.kr/artcenter.do>)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나들이(<http://www.sejong.go.kr/tour.do>)
송파구(<http://www.songpa.go.kr>)
송파구 문화관광(<http://culture.songpa.go.kr>)
스코틀랜드 전통예술·문화(<http://www.tracscotland.org>)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https://www.edbookfest.co.uk>)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페스티벌(<https://www.sciencefestival.co.uk>)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https://www.eif.co.uk>)
에든버러 페스티벌(<https://www.edinburghfestivalcity.com>)
에든버러 호그마니(<https://www.edinburghshogmanay.com>)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http://oktoberfestbeerfestivals.com>)

옥tober페스트(<https://www.oktoberfest.de>)
울산광역시(www.ulsan.go.kr)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
위키백과,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 검색(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86%94%EB%8F%99_%EB%B0%B1%EC%A0%9C%EA%B3%A0%EB%B6%84_%EC%97%AD%EC%82%AC%EA%B3%B5%EC%9B%90)
위키백과(영어판), Edinburgh's Hogmanay 검색(https://en.wikipedia.org/wiki/Edinburgh%27s_Hogmanay)
익산시 문화관광(<http://www.iksan.go.kr/tour/index.iksan>)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전라남도(www.jeonnam.go.kr)
전라북도(www.jeonbuk.go.kr)
제주특별자치도(www.jeu.go.kr)
조세박물관 홈페이지(<http://www.nts.go.kr/museum>)
충청남도(www.chungnam.go.kr)
충청북도(www.chungbuk.go.kr)
트래블아이(<http://www.traveli.co.kr>)
학림재(<https://haklimjae.modoo.at>)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kor/bz15/addOn/main/publish/index.jsp>)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www.arko.or.kr/main.do>)
한국여인생활사박물관(<http://koreason.co.kr>)
한성백제문화제(<http://www.baekjefest.com>)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